

이미지_역사와 인간 사이

다섯 가지 해석들

Art Director / 김미진 Kim, MiJin

2019.12.9.-12.19

토탈미술관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이미지_역사와 인간 사이
다섯 가지 해석들

Image_Between History and Human Five Interpretations

Contents

시공간 사이	7
표면과 내부 사이	39
의식과 무의식 사이	63
개인과 집단 사이	87
권력과 난민 사이	113

이미지_역사와 인간 사이 다섯 가지 해석들

김미진 (전시기획자, 홍익대 미술대학원 교수)
Kim, MiJin (Art director, Professor of Fine Arts at Hongik University)

『이미지_역사와 인간 사이, 다섯 가지 해석들』은 예술과미디어학회와 한국영상문화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와 연계하여 기획된 국제전시입니다.

오늘의 디지털 환경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자연 그리고 개인 일상의 소소한 부분까지 자신 혹은 타자의 특수성으로 소통되며 세계와 즉각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과거에는 이미지가 세상을 드러내는 표피적 창이었다면 현재는 다양한 첨단 기술과 다중 감각들이 함께 접목되어 일상화되면서 예술을 생산해 내는 풍부한 의식과 표현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현재로부터 새로운 것들의 기록이며 작가들은 언제나 최전선에서 시대의 질료와 의식을 찾아 새로운 작업을 합니다. 이 시대의 작가들은 이미지 시대에서 역사 속 제시되었던 수많은 서사와 궤적 안에서 우주, 자연, 사물, 기계, 인간, 사회, 문화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해체, 재조합, 새로운 발견까지 일상과 개인의 정체성에 녹여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회화, 조각, 판화, 설치, 영상, 공예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국 작가 35명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터키, 일본, 중국 등 10개국 14명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전시방식으로는 “이미지: 역사와 인간 사이”라는 대 주제를 전시기획과 비평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5명이 각각의 이론으로 “다섯 가지의 해석들”을 작가와 함께 펼쳐 낼 것입니다. 「시공간 사이」는 압축된 시간과 공간, 형이상학, 자연, 우주, 생성, 소멸, 초월에 관한 것으로 유현주가 해석하고 권순왕, 남기성, 박형오, 오태원, 이선희,

이승희, 이지희, 이한수, 정영한, Emmanuel Ferrand, Janne Malmros, Simon Whetham이 참여합니다. 「표면과 내부 사이」는 사물, 표면, 내부, 미적 본질, 감성 등 이미지 본성에 관한 것으로 조경진이 해석하고 김예성, 김범수, 김정숙, 김혜련, 이수홍, 정미옥, 최철, Irene Pérez Hernández, Yasemin Özcan이 참여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는 기억, 의식, 무의식, 소통, 다중성 등의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다루며 정수경이 해석하고 김재남, 노주환, 심은석, 이주현, 임수빈, 정유정, Hanae Utamura, Nadine Rennert, Laure Catugier가 참여합니다. 「개인과 집단 사이」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환경을 살펴보는 주제로 이봉욱이 해석하고 김민형, 김병직, 김정희, 박정용, 정경연, 이원경, Xiaowen Zhu, Sarah Oh-Mock, Weixin Quek Chong, Claudia Schmitz가 참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력과 난민 사이」는 정치, 도시, 권력, 개인, 현재 등을 다루는 주제로 이재걸이 해석하고 권영란, 노영훈, 서정자, 예기, 이연숙, 이지숙, 정택성, Mari Eriksen, Riccardo Matlakas가 참여합니다.

이 시대의 빠르게 쏟아지며 흘러가는 이미지의 흐름 안에서 '사이'와 '해석들'은 창작, 담론, 소통의 생성지대로 전시를 상징합니다. 작가, 기획자, 이론가, 연구자, 비평가, 기관, 관객 등의 다양한 창작과 담론 생성의 여지와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모이고 또 흩어지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예술이 탄생할 수 있는 응축지입니다. 예술창작과 담론을 함께 실천하고자 기획한 이 전시가 현대미술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Image_Between History and Human Five Interpretations" is an international exhibition co-hosted by The Korean Society of Art and Media and The Korean Association for Visual Culture and designed in conjunction with an international academic competition.

Today's digital environment is instantaneous with the world, communicating local political, economic, social, natural and small parts of the personal life with their own or other peculiarities.

In the past, images used to be considered windows for the world, but now they are a rich tool of consciousness and expression that combines a variety of hi-technologies and multiple senses to produce art. History is a record of new things from now on, and Artists always work on the front lines looking for materials and rituals of the times. Contemporary Artists are expressing their daily and individual identities in several narratives and ranges presented in the age of images, including their exploration of space, nature, objects, machines, humans, society and culture, and their disintegration, recombination, and new discoveries. In this exhibition, 14 artists from 10 countries including Norway, Denmark, France, Spain, the UK, Germany, Italy, Turkey, Japan and China will take part, and including 35 Korean artists active in various contemporary art genres including painting, sculpture, engraving, installation, video and craft. The exhibition will feature the main theme of "Image_Between History and Humans Five interpretations" with the 5 authors' text in Curating and Art criticism.

"Between Time and Space" is interpreted by Yu HyunJu as about compressed time and space, metaphysics, nature, space, creation, extinction, and early months and took part by Qwon SunWang, Nam GiSung, Park HyungO, Oh TaeWon, Lee HanSu, Lee SunHee, Lee SeungHee, Lee JiHee, Chung YoungHan, Emmanuel Ferrand, Simon Whetham, and Janne Malmros. "Between Surface and Inner" is interpreted by Cho KyungJin on image nature such as objects, surface, interior, aesthetic nature and sensibility, and taken part by Kim YeSung, Kim BeomSoo, Kim JeongSook, Kim HaeRyun, Lee SooHong, Chung MiOk, Choi Chul, Irene Pérez Hernández and Yasemin Özcan.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is interpreted by Chung SuKyung on human nature such as memory, consciousness, unconsciousness, communication and multiplicity and involves Kim JaeNam, Noh JuHwan, Shim EunSeok, Lee JuHyun, Lim SooBin, Chung YooJung, Nadine Rennert, Hanae Utamura, and Laure Catugier.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is interpreted by Lee BongWook as a look at the society and environment surrounding human beings and includes Kim MinHyung, Kim ByungJig, Kim JungHee, Park JeongYong, Chung KyeongYeon, Lee WonKyung, Xiaowen Zhu Sarah Oh-Mock, Weixin Quek Chong and Claudia Schmitz.

Finally, "Between Power and Refugees" will be interpreted by Lee JaeGeol as covering politics, cities, empires and the present, and will be joined by Kwon YoungRan, No YangHoun, Suh JungJa, Kim Leggi, Lee YeonSook, Lee JiSook, Jeong TakeSung, Mari Eriksen and Riccardo Matlakas.

The 'between' and 'interpretations' that emerge in this rapidly flowing image stream represent an exhibition as a creative, discourse, and communication zone.

This is a place where there is a wide range of creative and discourse possibilities, such as artists, curators, researchers, critics, institutions, audiences, and so on, is constantly gathering, scattered and condensing the creation of new art. I hope that this exhibition, designed to work together with the creation of art and theory, will play a little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art.



시공간 사이

시공간 -사이

유현주 | 미술평론가

우리의 생체리듬이 자동화된 사회에서 우리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전유할 수 있을까?

아파트처럼 규격화된 격자의 공간처럼 근대의 시간은 벤야민이 말했듯이 '동질적이고 텅 빈' 시간처럼 표상되어왔다. 근대적 시간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입방체의 비어있는 공간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은 시간의 어떤 질적인 감각들을 박탈한다. 거기엔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반응하는 봄날 신체의 나른함과 초여름의 생기와 가을날 깊게 침잠하는 고독으로의 멈춤을 갖는 감각적 시간들을 포함하지 않으며 고흐의 밤의 카페에서 느껴지는 외롭고 불안한 잠 못 드는 시간의 느낌을 말하지 않는다. 앙리 르페브르가 언급했던 것 즉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제각각의 리듬인 '다(多)리듬성'을 잃어버린 채, 어쩌면 우리는 영화 <모던타임즈>의 찰리 채플린처럼 일터의 밖에서도 지속적인 동일한 노동의 압박을 받으며 자본의 시계가 요구하는 시간의 리듬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신호등처럼 사람들의 획일적이고 동일한 움직임을 만드는 거대한 사회기계의 부품이 아닌, 내 자신만의 생명의 리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11인의 작가들 작업은 바로 그러한 다리듬성 즉 자연/우주와 조화된 리듬을 현재의 시공간-사이에서 찾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발견한 생태적 리듬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시공간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시공간 사이에서 은폐되어 있는 것들, 개념화하기 어려운 사물의 언어들로서, 오직 예술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일상의 시공간의 틈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자연과 우주의 질서 안에서 존재자들-인간, 사물, 물질-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방식으로 생태적 리듬을 되찾아가는 작업들이라고 여겨진다. 작가들의 작업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사물에 이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물에 자신들을 동화하거나 스스로를 세계의 객체로 놓아둠으로써 사물 스스로가 말하게 하는 방식에 가깝다. 그럼으로써 자본주의 사회가 획일화시킨 시공간의 리듬에서 벗어나 사물의 생태적 시간을 갖게 하며, 감각하는 존재로서의 시간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준다.

권순왕의 개념적 판화작업은 동물의 피를 먹고 자라는 식물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목화솜 위에서 말의 이미지로 자라난 배추씨앗의 초록빛 새순은 외양은 식물이지만 동물피를 자양분으로 자라난 혼종의 생명체이다. 동물과 식물,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의 대립과 경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해체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에는 서구문명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반대의 정서가 흐른다. 인간의 개입을 벗어난 시간, 즉 자연의 다양성 속에서 시간의 변이와 그에 따른 존재의 비밀을 찾는 작업은 이지희의 작업에서 드러난다. 이지희의 작업은 동일하게 규격화된 시간 속에 인간의 삶을 고정시키는 사회의 강제적 배치를 벗어나 흐르는 시간 속에 변화하는 생명체의 가치를 상징화하는 작업이다. 그녀는 도토리, 솔방울, 열매들을 빛의 완만한 변용(metamorphosis) 속에서 서서히 시간의 흐름을 통해 변화해가는 리듬으로 표출한다. 그러한 자연의 리듬은 매혹적이며 때로 그것을 박제화하여 소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잔느 말로즈(Janne Malmors)의 작업은 바로 그러한 자연의 리듬과 패턴을 삶 속으로 가져온다. 그녀는 식물학, 곤충학, 기하학, 역사, 민속학, 패턴에 대한 관심과 예술적 실험을 통해 나온 식물의 형상을 일상의 장식과 의상 혹은 작은 조각들로 배치한다. 잔느의 작업이 19세기 산업혁명시기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물건들의 조야한 디자인에 저항했던 윌리엄 모리스의 '예술공예운동'의 정신을 상기시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편 자연을 향한 마음은 도시에서 살면서 어그러진 인간의 내적 자연의 상처와도 무관하지 않다. 박형오의 작업은 과거 옛집 마당의 나팔꽃 줄기와 꽃잎에 대한 기억에서 위로받으며 현재의 덧에 걸린 존재의 시름을 벗어난다.

현대의 도시공간은 사실 이질적 공간들을 도시가 표방하는 개념 속으로 몰아넣는 경향이 있다. 대도시일수록 과학, 문화, 미디어 등을 내세우며 도시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공간으로 획일화시킨다. 하지만 이승희의 작업은 도시공간과 생물학적 상징을 오버랩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공간을 죽어있는 공간이 아닌 '자생공간'으로 태어나게 한다. 작가에 따르면 그가 사용하는 기하학적인 "기호모양, 원뿔 등이 현대의 기계문명이나 디지털 세계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생명이나 탄생의 근원과 맞물린" 것이다. 흥미롭게도 그 기호들은 자궁 속 배아처럼 보이며 도시 내부의 보이지 않는 생명의 공간을 떠돌고 있다. 한편 보이지 않는 공간은 사운드를 통해 그려지기도 한다. 사이먼 웨덤(Simon Whetham)의 작업 <8 Hour day>는 8시간의 도시의 배회와 그 공간속 알 수 없는 대화와 소음 그리고 정적의 뒤섞임은 규격화된 시간의 리듬과는 다른 삶의 리듬을 만들고 있다. 그것은 의식의 공간에서 무의식의 공간으로의 밀어냄이고, 일상의 시공간의 틈을 비집고 나오는 생생한 은어들이며, 도시의 공간을 전혀 다른 장소로 읽게 하는 헤테로토피아이다.

시간이라는 것은 늘 현재성을 갖는다.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또 다른 오늘인 이유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기준점이 없는 비유클리드적 공간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정영한의 'You are my hero'는 그에게 신화로 존재하는 이상들-만 레이(Emmanuel Randnitzky), 살바도르 달리 등 시공을 초월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들에 대한 오마주이면서 무한대로 열린 역사의 공간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보게 한다. 그 망망대해의 우주의 공간에서 별자리를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이미지의 형상능력이며 벤야민은 이것을 '비감각적 유사성' 즉 미메시스로 보았다. 즉 인간이 우주를 보고 별자리를 그린 모방능력이 문화를 만든 것이다. 이한수의 <오리온>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모방능력에서 비롯된 상상력과 보이지 않는 미지의 것에 대한 환상과 욕망을 이야기한다. 가상세계로 인류가 빠져드는 것도 미지의 시공간에 대한 판타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선희의 <시간의 탐색>은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디지털 프로세싱으로 조형화하여 사진의 재현성과 디지털이 창조하는 가상성 사이의 긴장과 모호함을 탐색하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엠마누엘 페랑(Emmanuel Ferrand)의 영상작업은 주역의 35괘와 36괘를 제목으로 한 영상작업이다. 땅 위에 태양이 솟아올라 빛나는 상을 취한 괘인 화지진(火地晉)과 태양이 지는 괘인 지화명이(地火明夷)이라는 이 두 괘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약 7분간 흘러가는 영상은 한국을 찾은 엠마누엘의 시선에서 생태적인 것과 과학, 스마트도시화와 전통적인 농업생산을 하는 시골, 현대의 도시적 삶과 비근대적인 삶을 비교하고 무엇이 과연 올바른 삶을 선택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다.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1894년 4월 5일 프랑스 화학자 마르셀 베르텔로가 프랑스 화학산업조합 연회에서 발표한 연설문낭독이 배경음처럼

이어서는데, 그때의 시점에서 2000년이 될 미래의 삶이 화학(과학)의 도움으로 더욱 윤택해지고 전쟁이나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것은 사라지며 모두가 부를 공유하는 사회주의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이 화학자는 연설한다. 그러나 이 낭독의 배경 이미지의 말미에 마르셀랭의 희망찬 예언과는 다르게 캔, 플라스틱, 인스턴트 상품들과 같은 쓰레기가 범람하는 오늘날 한국 도시의 어느 거리가 등장하고 밤의 공간을 메우는 욕망에 불타는 간판의 불빛만이 번뜩인다.

남기성의 <먼지 시리즈>처럼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어서 우리 눈에 띄지 않았던 존재들이 기습적으로 다가올 때처럼, 현실에 가려졌던 본래의 시공간의 이미지는 섬광처럼 드러났다가 사라진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붙드는 것이 예술의 이미지이다. 속도전의 사회처럼, 더 빠르게, 더 많이 이겨야 살아남는 사회에서, 비생태적 리듬에 취해 정작 자신의 리듬을 잊은 우리들에게 폐랑의 영상은 사라진 어떤 섬광의 잔상이 된다. 지금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은 무엇인가? 음양오행의 생태적 리듬, 우주의 질서에 맡겨진 생명의 리듬인가? 태양처럼 뜨고 지는 것 사이에서, 우주의 불변하는 원리 그리고 반대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시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그 사이에서 작가는 묻는다. 우리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들과 우리가 진정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동질적인 공간과 시간에 길들여지지 않은 나만의 생태리듬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 자신과 타자를 사랑하는 것, 공존하기를 배우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닐까?

Between time and space

Yu, HyunJu | Art Critic

Can we completely possess our own time and space in our biorhythm-automated society? As the space of standardized grids like apartments, modern times have been considered "symmetrical and empty" times, as Walter Benjamin has said. The idea that modern time is like a cube's space waiting to be filled with something removes any qualitative sensations of time. It doesn't include spring-fever that responds to changes in the four seasons, vitality in early summer and sensuous time when is a pause to fall into sombre solitude in the autumn days, nor does it say the lonely, anxious, sleeplessness of time felt in a Gogh's night cafe. With the loss of every creature's rhythm, or "poly rythmie" as Henri Lefebvre mentioned, perhaps we are subordinated to the rhythm of time required by the clock of capital, under the same labour pressure that never ends outside the workplace, like Charlie Chaplin's movie of the <Modern Times>. What does it mean to live on my rhythm of life, not a part of a huge social machine that makes people uniform and equal movements like traffic lights?

The works of these 11 artists here show in common that they are looking for such ironies, namely nature/space and harmonized rhythms, between the present time and space. The ecological rhythms that they discovered,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are not something that can be embodied in the real-time and space that we live in, but rather things that are concealed between time and space, the languages of things that are difficult to conceptualize, that exist only in the form of art. It is thought that it reveals things that were not seen in the gap between everyday time and space and that is the work of reclaiming ecological rhythms by throwing questions about the beings-human, object and matter-in the order of nature and the universe. Artists' work is more like a way of letting things speak for themselves by assimilating themselves into things or putting themselves within objects of the world rather than putting subjective ideas into things. This allows us to break away from the time-space rhythms that capitalistic society has standardized, to have an ecological time of things, and to return our own time to ourselves as we are sensuous beings .

The conceptual print work of Qwon SunWang shows images of plants that feed on animal blood. The greenish young leaf of a cabbage seed, grown from cotton wool to the image of a horse, is a hybrid creature that is plant in appearance but has grown into animal blood. The artist's intention to blur or break the line between animals and plants, humans and nature, subject and object have a sentiment of opposition to the human-centrism of Western civilization. Time beyond human intervention, namely, finding the secret of time variations and consequent existence in nature's diversity, is revealed through Lee JeeHee work. Lee JeeHee's work symbolizes the changing value of life in time that flows away from the compulsory placement of society that holds human life in the same standardized time frame. She expresses acorns, pine needles and

berries in a rhythm that slowly changes through the passage of time in a gentle metamorphosis of light. The rhythm is very fascinating, sometimes it can drive us to own them as taxidermy. The work of Janne Malloros brings nature's rhythms and patterns into our life. She places the forms of plants in everyday decorations, costumes, or small pieces, which come out of interest in botany, entomology, history, folklore, patterns, and artistic experiments. It is not a coincidence that Janne's work recalls the spirit of William Morris's "Art Crafts Movement," which resisted the unpolished design of mass-produced objects in factories during the 19th-century industrial revolution. By the way, the mind toward nature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wounds of the inner nature of people who lived in the city. Park HyungO's work is comforted by his memory of the trumpet flower stems and petals in his old house yard in the past, therefore away from being's anxiety of the present trap.

Urban spaces tend to drive disparate spaces into the standardized concept. In big cities, they try to unify into a space that has become the city's trademark, science, culture and media. However, Lee SeungHee's work overlaps urban space and biological symbols, making the space where we live in <Self-Creating Space> rather than a dead one. According to the artist, he used geometric shape, "the symbol and cone dose not only represent modern machinery of civilization and the digital world, but also to be bound with life's origins and birth." Interestingly, the symbols look like embryos in the womb and float around the invisible space of life inside the city. On the other hand, invisible space is sometimes implemented through sound. Simon Whetham's work <8 Hour Day> creates a life rhythm different from that of standardized time, with an eight-hour mix of roaming about urban and the unknown conversation, noise and quietness in its space. That rhythm is a push from the conscious space to the unconscious one, vivid secret language that came up the gap between everyday time and space, and is Heterotopia that lets you read the city's space to a completely different place.

Time is always present. The reason why yesterday is today and tomorrow is another day is because, from a cosmic perspective, we are placed in a non-Euclidean space with no reference points. Chung YoungHan's <You Are My Hero> is homage to ghosts who exert influence over time and space, artists such as Man Ray(Emmanuel Randnitzky) and Salvador Dali, who are present as myths for him. and tells him tha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re united in a space of infinite-open history. It is the human imagination's ability that creates constellations in the boundless space, as Benjamin saw, this as a 'non-sensory similarity' or mimesis. In other words, human beings' ability to imitate, the way how they see the universe and draw constellations, created culture. Lee HanSu's <The Orion> tells of the fantasy and desire for the invisible unknown that stem from human imitative abilities. Human beings' tendency of falling into the virtual world won't be irrelevant to their fantasy of unknown space. In this regard, Lee SunHee's <Search for Time> is about digitally recording and re-organizing a photograph into digital processing to explore the tension and ambiguity between the representation of the photograph and the virtuality digital creates.

Emmanuel Ferrand's video work is titled with gwaes of the book of Changes 35 and 36. What do these two things say: Hwajijin(火地晉), a gwaee in which the sun rose on the ground and took a shining statue, and Jihwamyongie(地火明夷), a gwaee in which the sun sets? The video running 7 minutes, in the eyes of the artist visited Korea, compares ecological to science, smart urbanization to rural life of traditional agricultural production, modern urban life with non-modern one, which the video shows his agony over what chooses the right way to live. In the video clip, French chemist Marcellin Berthelot's

speech at a French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s party on April 5, 1894, is followed by a background sound, from which he speaks that the future life of 2000 years will become abundant with the help of chemistry(science) and that such things as a war or protectionism will disappear, and the dream of socialism, which everyone shares their wealth, will be realized. But the background image of the speech is different from Marchelin's hopeful predictions, with the appearance of a street in the Korean city today, where trashes such as cans, plastic, instant products are overflowing, and only the flashing signboard of burning lust that fills with the space at night.

When something small and insignificant, like Nam GiSung's <Dust Series>, comes up unexpectedly, the image of space that was hidden in reality, it appears like a flash and then disappears. It is the image of art to hold onto something that disappears. The images of the Ferrand's video become a remnant of a lost flash for us, living in speed-war society where we have to win more and more to survive, who have forgotten our own rhythms. What is gone from us now? Is it the ecological rhythm of yin and yang, the rhythm of life entrusted to the order of the universe? Between rising and falling like the sun, between the immutable principles of the universe and, conversely, things constantly changing in the time and space from past to present, the artist asks in between. What are the things that make our lives sustainable and what we really shouldn't throw away? it is something like getting our own ecological rhythms untamed in a homogeneous space and time back, loving myself and others more and learning to coexist, isn't it?

자라는 씨앗 이미지는 식물의 서사에 인간이 개입하는 불편한 콜라주다. 피를 먹고 자라는 식물의 형태를 시각화하는 것은 과학을 미술의 형태로 사유해 보고자하는 것이다. 식물은 동물의 피를 만들고 피는 다시 순환하여 식물을 만든다. 이것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서구문명의 도식을 수평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The growing seed image is an uncomfortable collage in which humans intervene in the narrative of plants. Visualizing the form of a blood-fed plant seeks to think of science as an art form. Plants make animal blood and the blood circulates back to make plants. This is to show the process of horizontally dismantling the Western civilization's diagram of human being as a supreme creature among all th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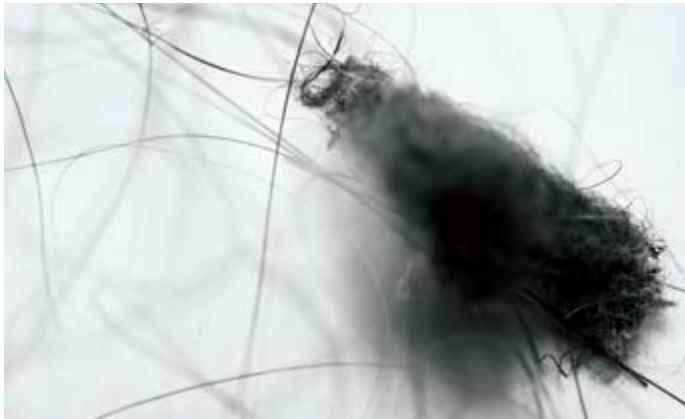


자라는 이미지-말, 목화솜, 배추씨앗, 프린트 장치, 개념판화, 55X80cm, 2018
Generating image-horse, cotton, cabbage seeds, printish apparatus, conceptual printmaking, 55X80cm, 2018

사무실 바닥을 쓸어 이 구석 저 구석에 내려앉아 있는 먼지와 머리카락을 채집하여 촬영하였다. 사소하고 하찮아서 눈에 띄지 않던 먼지를 마주하며 습관적인 인식을 반성해 본다.

I swept the floor of the office and collected and photographed the dust and hair that were sitting in the corner.

I face the dust that is small and trivial and is not noticeable, and reflect on the habitual perception.



먼지Series #3176, 사진, 잉크젯프린트, 80x53cm, 2017
Dust series #3176, photograph, inkjet print, 80x53cm, 2017



먼지Series #3103, 사진, 잉크젯프린트, 80x53cm, 2017
Dust series #3103, photograph, inkjet print, 80x53cm, 2017

기억에서 단초를 찾다.

삶과 닮아있고 세심한 병풍같은 옛집 마당 앞의 그들은 자신들의 공간으로 나를 쉽게 이끈다. 이른 아침 은은한 이슬을 머금은 연꽃빛의 나팔꽃 즐기와 가늘게 뜬 채로 바라본 하늘의 바다색과 닮아있는 투명한 꽃잎은 기억의 소중한 것으로 무장되어 오늘을 보내는 나에게 희망의 에너지가 되고 살아 숨 쉬게 하는 유의미한 삶의 원천이다.

복잡한 생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 속에 가뒤편 때 나의 눈빛은 그림자를 닮아있고 탁하여 거름망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건조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기억의 깊은 곳에 침잠해 있는 위안의 공간을 본능적으로 찾아 나선다. 옛집 마루에서 바라본 그들은 나를 위해 늘 첩예의 관계가 되어 끌어당기고 나는 자연스럽게 끌려간다.

Find the first step in memory

In front of the yard of an old house that resembles life and attentive folding screens, they easily lead me to their space. In the early morning, the soft morning glory stems with soft dew and transparent petals resembling the sea color of the sky, viewed with a narrow eyes, armed with the preciousness of memory, are a significant source of life for me to live and breathe.

My eyes are similar to shadows and my eyes do not pass through the sieve when my figure squeaks in a swamp of complex thought is locked in a mirror. To overcome these arid conditions, I instinctively seek a space of comfort that lies deep in memory. Looking at the floor of the old house, they are always attracted to me for an acute relationship, and I am naturally drawn.





위로가 되는 소리, 혼합재료, 100x80cm, 2019
Sound of consolation, mixed material, 100x80cm, 2019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말을 물질적으로 화신(化身)하는 사물의 그 물질성도 함께 사라질 때, 시라는 이름을 가진 미의 기적이 일어난다.” - 황현산 「말라르메의 언어와 시」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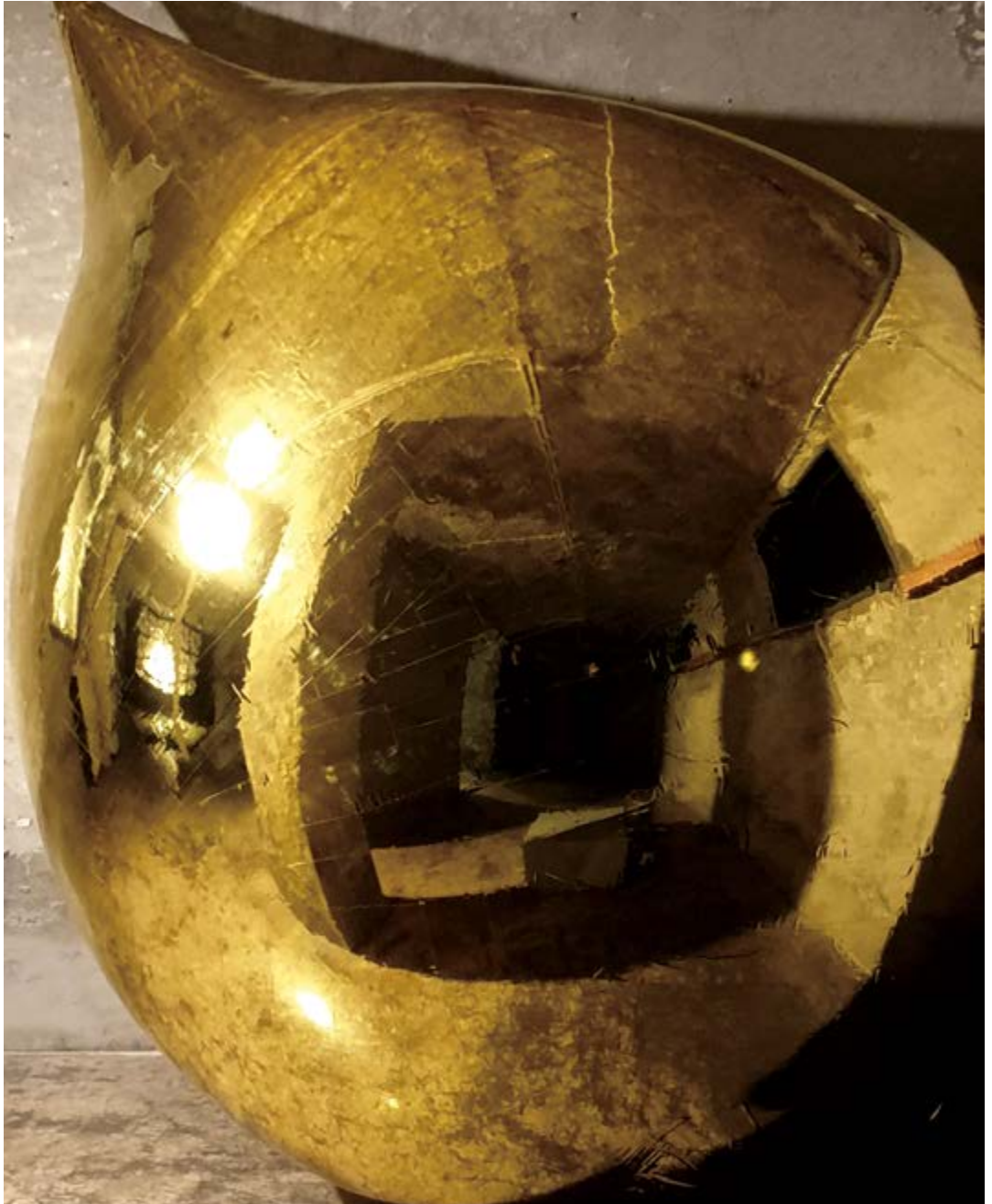
..... 이처럼 굳이 전시를 세밀하게 서술한 이유는 오태원의 예술은 각각의 작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작업이 공간 내부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시각적 스펙터클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어떤 연극적 정서 내지는 상태를 끌어낸다는 점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각각의 재료들의 색채와 질감 그리고 전시를 보다 극적으로 변신시켜주는 빛의 힘이야말로 오태원 작업이 가진 매력적인 측면이다. 오태원의 공간연출 방식은 설치미술에 바탕을 둔 조형적 드라마터그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 Or more precisely, when the materiality of things that materialize the word disappears, a miracle of beauty with the name of poetry occurs.” -Hwang Hyun-san

..... The reason why the exhibition is described in detail is that the art of Oh Tae-won is important for each work, but above all, the work is closely connected within the space, creating a visual spectacle and drawing out some theatrical emotions or states. To concentrate. The power of light that transforms the colors, textures, and exhibits of each material more dramatically is an attractive aspect of Otaewon's work. Oh Tae-won's space production method can be called as a formative drama tug based on installation art.



Drops, Black, 사진, 디지털 프린트, 60x45cm, 2018
Drops, Black, photograph, digital print, 60x45cm, 2018



Drops, Gold, 혼합매체, 250x160x160cm, 2019
Drops, Gold, mixed media, 250x160x160cm, 2019

이 작품은 실사 존재 증명의 가장 기초적인 매체인 사진으로 일상의 순간을 기록한 후, 유동적이고 하이브리드적인 디지털 프로세싱을 통해 새롭게 조형적으로 시각화하여 실사와 가상이 공존하는 심미적인 가상세계를 재창조한 작품이다.

This is a work to re-create the aesthetic virtual world where real-life and virtual coexist by visualizing them through fluid and hybrid digital processing after recording daily moments with photographs, the most basic medium of actual proof of existence.





시간의 탐색, 혼합매체, 가변설치, 2019
Explorer of Time, mixed media, variable installation, 2019

현실의 도시공간을 왜곡시켜 만들어진 가상공간의 상징과 디지털적 색면을 이용하여 표현한 반복적 색면과 가벼움 등은 물질주의 디지털 사회를 대변한다

화면 안의 디지털적인 기호와 상징, 비현실적 색채, 복제 속도감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단면적 모습을 넘어 정보화 사회를 표현해 보고자 한다.

현대인의 존재에 대한 생물학적 표현과 디지털 색면추상, 혼성적 융합을 통해 글로벌한 동시대 감수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The repetitive color plane and lightness represented by the symbol of virtual space and the digital color plane created by distorting the urban space of reality represent the materialist digital society.

I want to express the information society beyond the cross-sectional view of the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with digital signs and symbols, unrealistic colors, and speed of reproduction.

I would like to talk about global contemporary sensibilities through biological expression, digital color abstraction, and hybrid fusion of modern people.



자생공간1705, 캔버스에 아크릴, 112.1x162.1cm, 2017
Self-creating space1705, acrylic on canvas, 112.1x162.1cm, 2017



자생공간1901, 캔버스에 아크릴, 97x145.5cm, 2019
Self-creating space1901, acrylic on canvas, 97x145.5cm, 2019

본질은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지된다. 흐르는 시간의 맥락 속에서 생명체는 보다 큰 의미를 지니며 상반된 가치의 절묘한 조화와 순환을 보여준다. 변화하지 않는 듯 변화하는 빛의 완만한 변용(metamorphosis)은 에너지와 생명의 흐름과 순환을 암시한다.

In the context of flowing time, life has a greater meaning and shows the exquisite harmony and circulation of conflicting values. The gentle metamorphosis of light, which seems to change without any change, implies the flow and circulation of energy and life.





Treasured 02, 씨앗, 도토리, LED, 49 x 46 cm, 2019
Treasured 02, seeds, acorns, LED, 49 x 46 cm, 2019

외계인에 투영된 인간의 욕망과 문화 혼종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작업으로 휴머니즘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종교적 기대감을 대치하려는 듯한 욕망의 상징으로 또는 지극히 낮은 이질적인 것으로서의 외계인은 이한수가 그동안 꾸준히 천착해 온 상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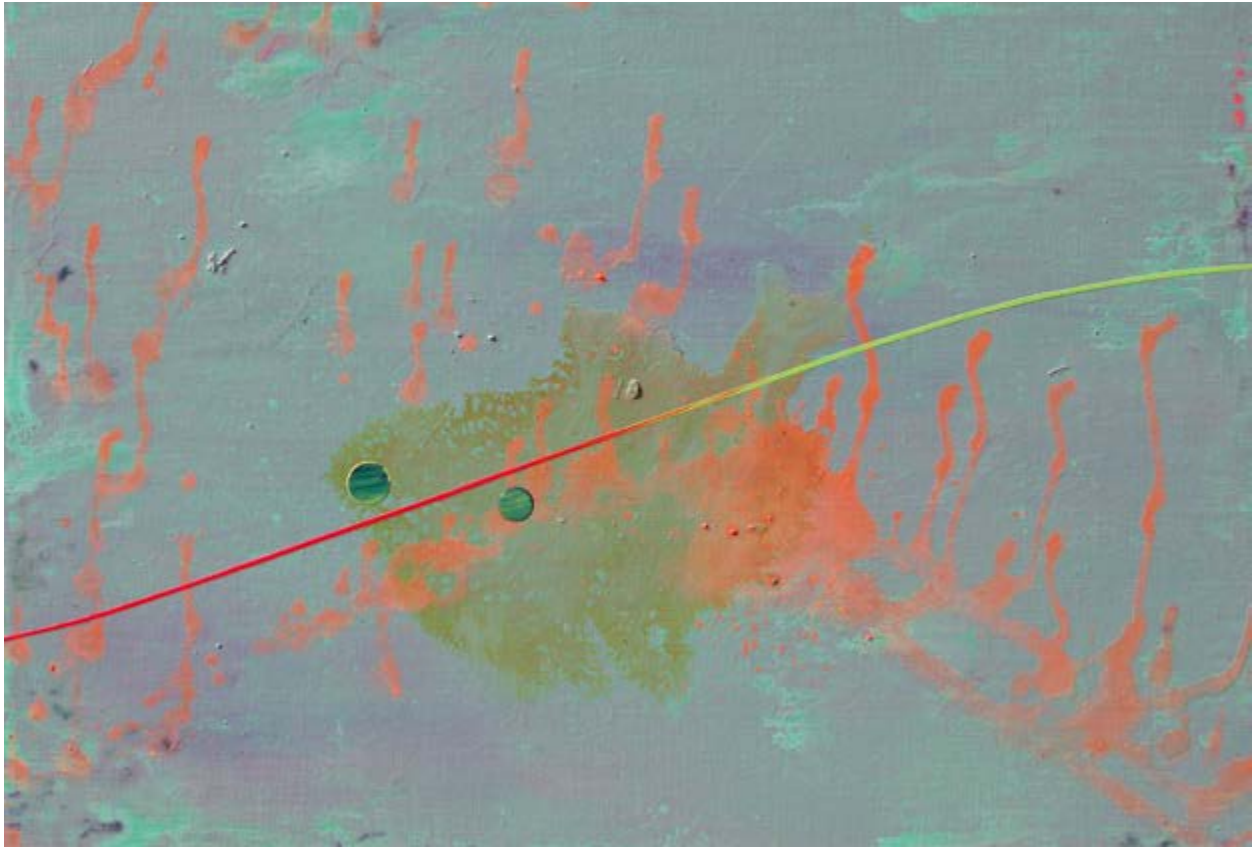
To work naturally expresses the human desire and an alien culture honjongseong projection can ask questions about the humanistic identity.

it is asked a question about the humanistic identity by works naturally expressed the human desire and hybrid culture projected on alien beings.

Alien as a symbol of the desire to replace religious expectations or beings extra-heterogeneous, this is Hansu Lee intends to present at his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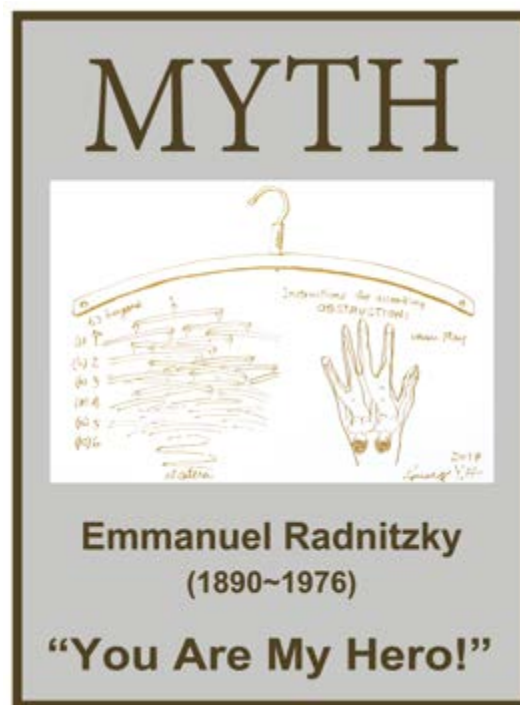
무제 1902, 캔버스 위에 아크릴 유화, 91X72.5cm, 2019
Untitled 1902, acrylic oil on canvas, 91X72.5cm, 2019



무제 1926, 캔버스 위에 아크릴, 50X72.7cm, 2019
Untitled 1926, acrylic on canvas, 50X72.7cm, 2019

정영한의 작품은 '오늘 또는 우리의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함축된다. <이미지, 時代의 斷想-아이콘> 연작은 오늘날 '신화'로 존재하는 20세기의 우상들의 초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21세기 현재 본인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명들에 대한 해석이다.

Paintings of Chung, Young-Han have connotation of 'contemporary or our time.' <Image, fragment of the time-ICON> series based on the portrait of 20th century's icons as 'myth' today, it is artistic interpretation of timeless and powerful ghosts that concerns me as an artist in today.



이미지-時代의 斷想 ; ICON, 피그먼트 인쇄된 종이에 아크릴, 57×76cm, 2019
Image-Fragment of the time ; ICON, acrylic on pigment printed paper, 57×76cm, 2019

MYTH



Salvador Dalí
(1904~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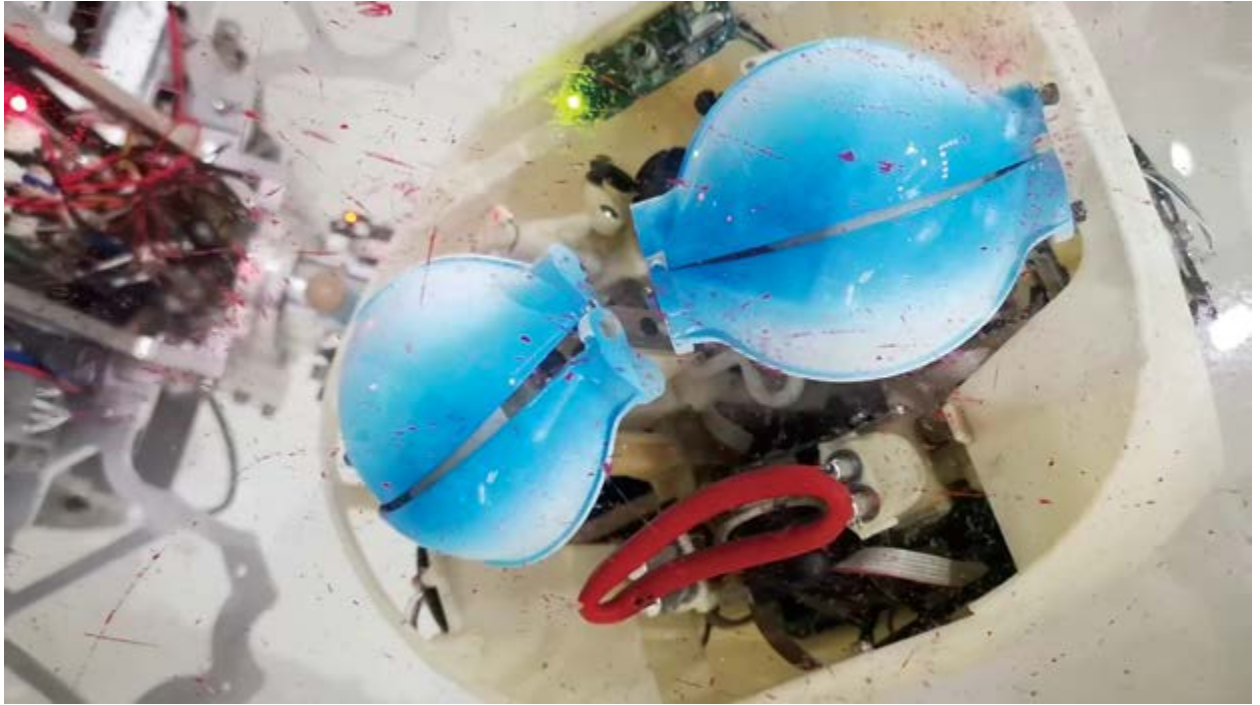
“You Are My Hero!”

Emmanuel Ferrand

The title 35, 36 refers to two consecutive hexagrams ䷗ ䷗ of the I Ching (주역/周易), ䷗ / 晉(jin) “progress” and ䷗ / 明夷(míng yí) “Darkening of the Light”. This video is a byproduct of a research residency I made in Daejeon, during the summer 2019, at the invitation of Daejeo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I wandered in the solitude of the vanishing remainings of the Expo 93, which, a quarter of a century ago, presented to the world the promises of a bright future. The whole city of Daejeon, a city dedic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and perhaps the whole country of Korea, is an invitation to meditate on our trust in the idea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to think of the place of humans in a nature which is now under the pressure of climate changes and ecological extinctions. The soundtrack is based on a text of the famous French Chemist, Marcelin Berthelot, who, more than one century ago, imagined how the development of science could lead to a genuinely ecological societal model.

제목 35, 36은 주역(周易)에 나오는 두 연속적인 육괘인 ䷗ ䷗, 즉 “진보(progress)”를 의미하는 ䷗/晉(jin)와 “빛의 암화(Darkening of the Light)”를 의미하는 ䷗/明夷(míng yí)을 가리킨다. 이 영상은 대전문화예술재단의 초청으로 2019년 여름 대전에서 만든 연구 레지던시의 결과물이다. 나는 25년 전에 세계에 밝은 미래의 약속을 제시했던 엑스포 93의 사라져가는 유물의 고독 속에서 방향했다. 과학과 기술에 전념하는 도시인 대전시 전체,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는 (기술적) 진보라는 생각에 관한 우리의 신뢰에 대해 숙고하고, 오늘날의 기후 변화와 생태학적 멸종의 압박을 받고 있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생각해 보도록 초대한다. 사운드 트랙은 프랑스의 유명한 화학자인 Marcelin Berthelot의 텍스트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는 1세기 이상 전에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진정으로 생태학적인 사회 모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상상했다.





35-36, 영상, 7분 15초, 2019
35-36, video, 7m 15s, 2019

Janne Malmros studied for a Master in Fine Art at The Slade School of Fine Art, UCL, London. She is a Copenhagen and London based artist but she has also lived in Kabul and elsewhere. Malmros' work is infused by strong interest in botany, entomology, the environment, history, fashion, geometry and pattern - manmade, computergenerated as well as those found in nature. Her work is non-prescriptive and driven by research and process. The work Ginkgo 01404 is a stop-frame animation in which the mass of an entire crown of a tree was photographed (over 9000 images). Malmros is interested in nature as a sculptural material - with its varied geometric repetitions, forms and patterns - and how this translates into a different medium.

Janne Malmros는 런던 UCL의 Slade School of Fine Art에서 미술 석사 과정을 공부했다. 그녀는 코펜하겐과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이지만 카불이나 다른 곳에서 살기도 했다. Malmros의 작품에는 식물학, 곤충학, 환경, 역사, 패션, 기하학, 패턴, 즉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 컴퓨터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이 스며들어 있다. 그녀의 작품은 비-규범적이며 연구와 과정에 의해 추진된다. 작품 Ginkgo 01404는 꼭대기까지 은행나무의 전체 덩어리를 (9000개 이상의 이미지로) 찍은 스톱-프레임 애니메이션이다. Malmros는 다양한 기하학적 반복, 형태 및 패턴을 가진 조각적 물질로서의 자연에 관심이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다른 매체로 번역되는지에 관심이 있다.





Ginkgo 01404, 스톱 프레임 애니메이션, 5분 6초, 2019
Ginkgo 01404, stop frame animation, 5m 06s, 2019

Stephane Marin invited me to contribute to his extensive and impressive series “Each Morning of the World”, asking me to send a soundscape response from Busan, South Korea, where I was based in February 2019. While there I was staying in a very cheap hotel room in a street parallel to the main street Chungangdaero and close to Busan Station.

It soon transpired I was in the meeting place of “Chinatown” and “Texas Street” which are essentially streets of bars that are closed during the day and open all night, where men go to meet women, or you can also meet them on the street. I think you can guess what the situation is. So as you pass by a bar, as a man, you will have girls calling to you to come in, or they will actually leave the bar to come and talk to you, offering company for the night, or a shorter time period...

Initially humourous, however ultimately quite sad and uncomfortable, I decided to record a walk around this area at around 1am to capture any situation that arose - and understand that what you hear will happen to any man who happens to walk in this area at this time, unaware of what awaits. This work is not condoning the practices that go on in this area, nor is it condemning, it is simply acknowledging it exists.

Conversely, the latter part of the piece was recorded at around 8am, which for many people is the time to travel to or begin their working day. Walking the same route, the streets were starkly quiet, empty, calm. The “8 hour day” in this area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experienced by most...

Stephane Marin은 2019년 2월에 내가 받을 두고 있던 한국의 부산에서 사운드스케이프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광범위하고 인상적인 시리즈 "세계 각지의 아침"에 참여해달라고 청했다.

그곳에서 나는 중앙대로와 평행하고 부산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주 싼 호텔방에 머물고 있었다.

알고 보니 나는 “차이나타운”과 “텍사스 거리”의 만남의 장소에 있었던 것인데, 그곳은 기본적으로 낮에는 문을 닫고 밤새 문을 여는 술집 거리인데,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러 가는 곳이자 당신들 또한 길거리에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나는 당신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남자로서 술집을 지나면 소녀들이 당신을 부르거나, 술집을 나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룻밤을 함께 보내거나, 아니면 더 짧은 시간 동안...

처음에는 유머러스했지만 궁극적으로 상당히 슬프고 불편했던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포착하기 위해 새벽 1시경에 이 지역을 산책하는 것을 녹음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것은 이 시간에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 작품은 이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행을 묵과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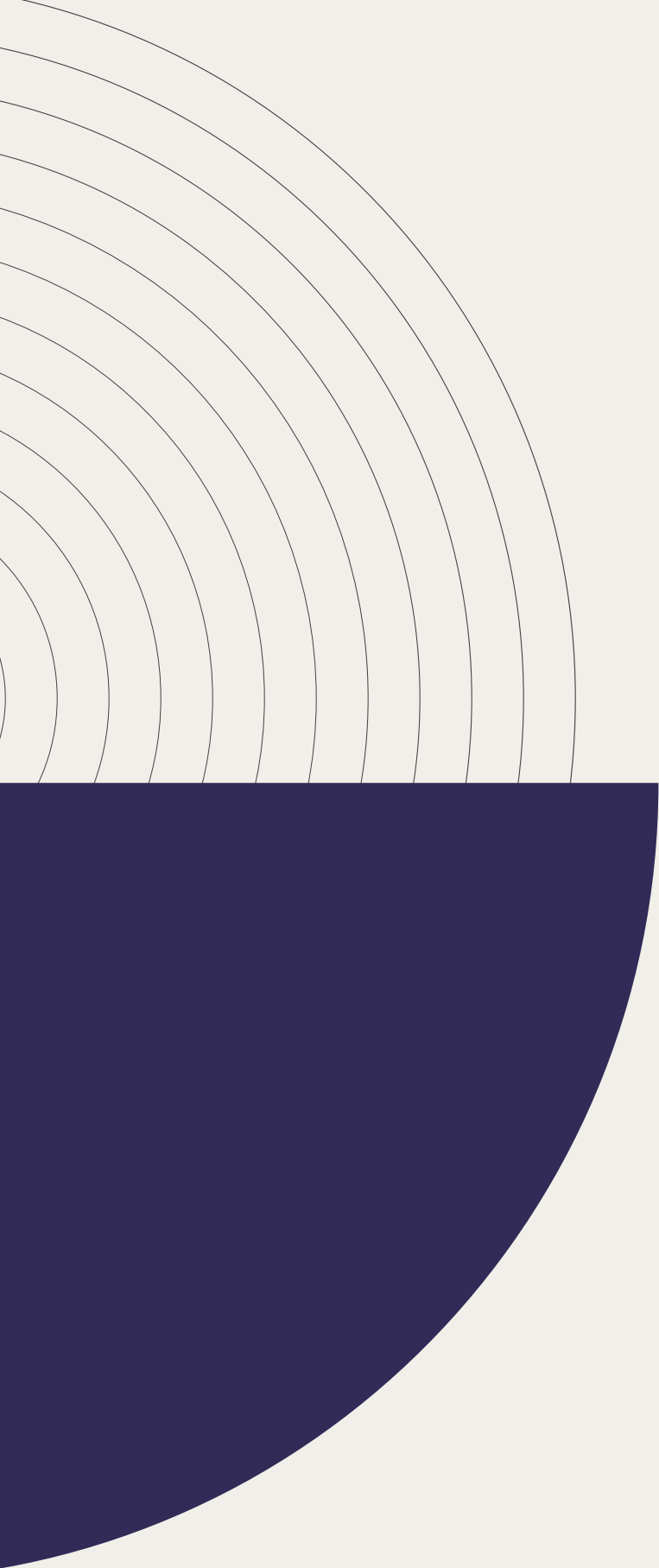
반대로 작품의 후반부는 오전 8시경에 기록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여행하거나 그들의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같은 길을 걸으면서 거리는 적막할 정도로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고 고요했다.

이 지역의 '8시간'은 대부분이 경험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8 hour day, 소리, 7분 14초, 2019
8 hour day, sound, 7m 14s, 2019



표면과 내부 사이

표면과 내부 사이

조경진 | 미술비평

_사물: 모습과 느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들, 개념들을 벗어나서 느낌을 잘 들여다보면 느낌이란 건 비슷할 수는 있어도 한순간도 같은 게 없다. 보통 우리는 이를 느낌의 '특이성(singularity)'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개념은 본성상 보편적이고, 우리는 느낌들의 특이성보다는 일반성이나 추상성에 길들어 있다. 문제는 특이성 없는 일반성은 구체성과 강도가 없는 공허함을 낳기 십상이라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물이 고유하며 특이함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단지 그것을 느끼고 보고 사고하는 우리의 방식이 틀에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원흉이 사고 자체에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가 특히 근대적 사고방식과 그것에 깊이 몰들어 있는 우리가 사고 자체(추론적, 도구적), 사고의 특정한 양태(진리 판단), 그리고 사고의 특정한 기능들(개념화, 범주화, 추상화)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해 왔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사물들은 느낌으로 존재하고 있다. 느낌이 일차적이고 그 느낌을 주는 '무엇(what, object)'인지, 그리고 그것을 '무엇(concept)'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다음의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론 모든 과학적 성과들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모든 존재와 인간에게 궁극적인 것은 결국 미학적인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인 '행복'을 떠 올려 보자. 이때도 행복한 느낌이 문제이다. 행복의 조건을 따지면서도 '행복감'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는가. 사물에 대한 이해를 느낌의 미학으로 접근하는 것, 사물의 본성에 객관화 이전의 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러한 작업이 바로 미술가들이 자신과 외부를 통합하고 특이성의 세계를 열기 위한 첫걸음이다.

_“사물과 느낌은 함께 성장한다.”

실제로 있는 것은 '과정'이라는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시공간은 현실적 존재가 생성하는 과정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사건이다. 시공간은 현실적 존재가 타자와 관계하는 근원적 조건이며, 이 조건 안에서 현실적 존재는 타자와 관계하며

동시에 각자를 구현한다. 생성의 존재론적 관점에 충실할 때, 시간과 공간은 명백히 상대적이고 모든 생성은 과정이다. 따라서 과정으로서의 생성에는 ‘합생(合生, concrescence: Alfred North Whitehead)’, 즉 말 그대로 “함께 모여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느낌의 과정으로서의 이 ‘합생’은 만족을 위한 것이다. 모든 존재는 현실적 존재이지만, 그들 각각은 만족의 지향점, 만족의 요소, 만족의 강도, 만족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때 ‘만족’은 정서적 만족이며 나아가 미적 만족이다. 합생의 과정은 미술가의 과정이 그렇듯이, 미결정이 결정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다수의 느낌이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화롭게 통일되어 가는 과정이다. 사물을 다루는 미술가의 창조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작업 과정이 단지 주어진 여건들을 논리적으로 결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느낌의 상호 조화를 이루는 합생의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사물이 합생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주체는 ‘자기 자신의 산출 과정에 내재’하게 되며, 결국 느낌을 떠나서는 주체는 존립할 수 없게 된다.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경험의 바깥, 과정과 느낌의 바깥에 있으면서, 경험의 여건들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초월적인 주체를 허용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과정이 주체이고 주체가 곧 과정인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물은 자신이 속해 있는 더 큰 전체를 자신의 제한 속에 끌어들이므로 오직 그 자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으로 사물은 그 자신의 양상들을 자신이 속해 있는 바로 그 환경에 넘겨줌으로써 비로소 그 자신이 되고 있기도 하다.”현대 미술 작품이 사물을 환영의 산물이나, 결정된 것의 준거로 등장시키지 않고 그 자체로 ‘문제(problem)’나 ‘문제적인 것(the problematic)’이 되려는 성향도 이와 같은 생각에 연결된다. 이때 사물의 ‘사물됨’은 새로운 느낌이나 세계의 발견 차원에서 감지되고, 여기서 작품은 사물에 대한 하나의 ‘시사(suggestion)’이자, 그로부터 우리의 사회, 역사적 존재 방식에 대한 반성을 끌어낼 수 있다. 결국 합생의 미적인 관점은 우리의 사고와 느낌이 순수한 문제로부터 활성화되도록 만들고, 사물이 시사하는 문제로부터 사물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

사물의 유혹

사물의 외부를 다듬거나 어떤 상태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인지적인 것에서 윤리적인 것으로 이행하는 우리의 습관적 판단을 멈추게 하고, 이러한 작용 이전에 존재하는 ‘미적인 것’의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이들이 바로 미술가들이다. 이들은 느낌의 자유를 발설하고 윤리적인 것과 미적인 것의 오묘한 절충을 꾀함으로써 “삶은 궁극적으로 미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존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미술 작품을 보고 느낀다는 것은 그것과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세계 전체가 재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은 우리 주변의 사물(혹은 인간)과 맺고 있는 관계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느낌의 증언이다. 작품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 우리 자신이 세계나 사물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에 관한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작품은 사물에 대한 발견, 타자에 대한 발견, 나아가 관찰자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 될 수 있다.

사물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유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술 작품에서 사물의 유혹은 우리의 사유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극대화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거나 무시할 수도, 혹은 특정한 유혹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나아가 이 ‘작품-사물’은 객체적이지만, 우리의 미래와 비전, 욕망을 위해 의미(개념, 명제)를 섭취하는 일에도 개입한다. 이런 식으로 작품은 우리가 대상에 중요성을 부여하게 하고, 그것의 특정한 측면이나 속성을 의미로 취하게 하고, 왜 그것에 그런 의미와 정서를 투여하는지에 관해 주체의 선택을 끝없이 되묻는다. 요컨대 사물의 의미보다는 사물이 의미화되는 방식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개념에 종속될 수 없는 ‘느낌’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 눈앞에 등장한 작품은 사물에 잠재된 특이성의 현전이자,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 존재의 특이성이 낳은 하나의 사건이 된다.

Between Surface and Inside

Cho, KyungJin | Art Critic

_Object: Appearance and feeling

you look inside the shapes and concepts that seem to be unchanged, it may be similar, but there is no same for at every moment. Usually, we can call it 'singularity' of feeling. Concepts are inherently universal, and we are accustomed to generality or abstraction rather than to the specificity of these feelings. The problem is that in the case of generality without specificity, it is likely to create emptiness without specificity and intensity. That's why we need to judge that "even though all things are unique and unusual, only because our way of feeling, seeing and thinking about them is framed for reasons that don't seem peculiar."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assume that the cause is the accident itself. Rather, it is reasonable to believe that it has attached undue importance to the modern way of thinking, especially to our thinking deeply imbued with it (the reasoning, the tooling), to certain forms of thinking (the judgement of truth), and certain functions of thinking (conceptualization, categorization, and abstraction).

Come to think of it, the things that surround us exist with feelings. What makes the feeling primary and gives it is what and what it can be called as a concept. From this point of view, all scientific achievements must be respected, of course, but what is ultimate for all beings and humans is, after all, an aesthetic attitude. Let's raise our happiness, the purpose of our lives. A happy feeling can be a problem at this time. What good would it be if there were no "happy feeling" even when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happiness? To approach an understanding of things with an aesthetic of feeling, to give the ultimate meaning before objectifying the nature of things, these are the first steps for artists to integrate themselves and open a world of singularity.

_"Object and feelings grow together."

You need to think over and over again about the word 'process' that exists. Specific time and space are events that are becoming real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real existence. Time and space need to be thought over and over again of the term "process" in which there is a real thing that has a different reality. Specific time and space are events that are becoming real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real existence. Time and space is the fundamental condition in which a realistic presence relates to another, and within this condition, the real existence relates to the other and simultaneously embodies each other. From a generative existential point of view, time and space are relative and all creation is a process. Thus, the generation as a process means "Agreed North Whitehead," which means "gathering together." And this 'emergence' as a process of feeling is for satisfaction. All beings are realistic beings, but each of them has a difference in the direction of contentment, the element of contentment, the intensity of contentment, and the manner of contentment. At this time, 'satisfaction' refers to emotional satisfaction and aesthetic satisfaction. The process of,

as is the process of an artist, is the process of uncertain things that moving toward certain things and the process of harmonizing the feelings of the majority into one for a certain purpose. The artist's creative process of dealing with things is important because the work process is not just logically combining the conditions given, but is faithful to the nature of the amalgamation of feelings. On the road to co-existence, the subject becomes "inherent in its calculation process" and eventually becomes unable to exist, regardless of feeling.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philosopher Whitehead, being outside of experience, outside of process and feeling, did not allow a transcendent entity to organize and organize the conditions of experience. The process is the subject and the subject is the process. Whitehead says:

"Objects are becoming themselves by bringing the greater whole of them into their limits. Also, on the contrary, things are becoming themselves by handing over their images to the very environment they belong to."

The tendency of modern art to become a "problem" or "the problem" in its own right is also linked to this idea. At this time, objects' "objected" is detected in terms of new feeling or discovery of the world, where works are one "suggestion" of objects and can draw reflections from them on our social and historical ways of being. Ultimately, the combinatorial aesthetic view makes our thoughts and feelings active from pure problems and restarts things from problems they represent.

_The Lure of the Object

It is the artists who stop our habitual judgment of moving from cognitive to ethical by trimming or presenting the surface of things in a certain condition and make the possibility of 'beauty' exist before this action. They preserve the fact that "life is ultimately aesthetic," by saying freedom of feeling and making a subtle trade-off between ethical and aesthetic. Going one step further from here, seeing and feeling artworks means that we and our whole world are reconstructed. The work is (or humans) and with things around us and us oblivious to the testimony of feeling. Works are also proof of how we feel, of what we can feel, of how we are meeting with one world or thing. In this respect, works can be discoveries of things, discoveries of hitters, and even rediscovery of oneself as observers.

Things exist in themselves but at the same time, they give us a seductive look. The lure of the things in the works of art is maximized as a way to the reason for the activation of us. We can avoid or ignore it, or a particular temptation could make us. Furthermore, vision, ambition and our future but it are 'work - things' to take (a concept,) for sense involved in. In this way, the work allows us to attach importance to the subject, to take its particular aspect or property for meaning, and to constantly ask the subject's choice as to why it is administered such meaning and sentiment. In short, it makes people pay attention to the way things are meaningful rather than the meaning of things. In a way that strengthens the "feel" that cannot be included in the concept, the work that appears before our eyes becomes an event that is the foresight of a latent singularity of things and the peculiarity of our being that embraces them.

CLONAGE: 잠재적인 것들

clonage(클로나쥬)의 주제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안에서 인간복제를 하는 과정에 쓰이는 용어로 clone(클론)화 되기 전의 연구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프로이트의 용어인 castration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클로나쥬(Clonage)는 “현실을 교묘히 굴절시키고 왜곡시켜 우리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불안하게 하나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작품을 보면 기괴한 인체의 시각적인 강렬한 끌어당김 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공포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몸의 단론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미지들은 의학적 도식들과 삽화 또는 신체부분사진으로 조합되어있다. 크게는 초현실주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이미지들은 막스 에른스트의 “천개의 얼굴을 가진 여자”삽화와 드로잉이다. super-objet시리즈의 형태구성은 포토몽타주 기법을 이용하여 입체화 시킨 것이다. 이는 오토마티즘automatisme과 형식적유사성을 갖는다. 본인이 차용하는 오토마티즘은 바타이유적 비정형을 조각성에 적용하여 새로운 추상의 가능성을 보려고한다.

Clonage: virtual things

‘Clonage’ is a term used in biotechnology during the process of human cloning, referring to the research process that takes place before forming a clone. It can also be seen to derive from the Freudian term ‘castration.’ Clonage signifies “that which skillfully deflects and distorts reality, rendering our senses confused and anxious yet allowing for the coexistence of reality and unreality.”

Looking at my work, one finds a psychological horror of anxiety and fear inherent in the strong visual pull of strange human bodies. Because my work relates particularly to discourses of the body, images are compounded from medical diagrams, illustrations, and photographs of body parts. It is largely influenced by surrealism, especially Max Ernst’s illustrations and drawings in *La femme 100 têtes*.

The composition of form in the series *Super-objet* was dimensionalized using photomontage technique. It bears formal similarity to automatisme. The automatisme that I borrow applies Bataillesque irregularity to sculpture,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 new abstr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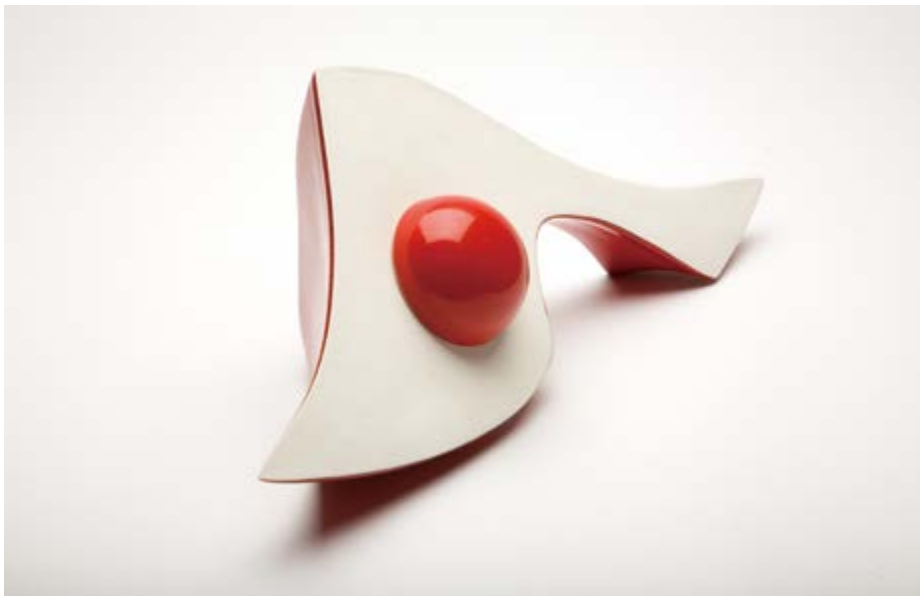




Pneuma5, 레진, 22x12x12cm, 2019
Pneuma5, resin, 22x12x12cm, 2019

이 도자작업은 개념적으로 일종의 향수병이며 조각입니다. 향기는 우리에게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림자와 향기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향기와 그림자 모두 실체는 없지만 존재합니다. 이 오브제의 형태는 특정 물체의 그림자에서 비롯되며 그 그림자는 다른 사물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림자라는 환영에서 나온 작품을 통해 사람들은 그 형상을 감상합니다. 물리적으로 담기지 않았지만 감각할 수 있는 향기를 또한 공유합니다.

This ceramic work is conceptually a sort of perfume bottle and sculpture. Fragrances create the atmosphere for us. There is a common sense between shadows and fragrances. Both the fragrance and the shadow is no entity, but it exists. The shape of this object comes from the shadow of a certain object, which reminds us of another object. Through the work of the illusion of shadows, people appreciate the image. It also shares a fragrance that is not physically contained but can be sensed.



Swan, 도자, 39x23x16cm, 2017
Swan, porcelain, 39x23x16cm, 2017



Absolute, 도자, 40x25x16cm, 2017
Absolute, porcelain, 40x25x16cm, 2017

나의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찾아서 내면으로 들어가 보았다.

감사, 축복, 담담함, 자연, 내려놓음, 은유, 여백, 비움, 진정성, 자유, 너그러움, 관조, 여운.....

각박한 현시대에 서로 조용하고 배려하면서

달항아리의 큰 뜻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모든 것을 수용하는 한지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Mainly expressed on the Hanji was the hope for showing solicitude and cooperate with others to fulfill the wish of a moon pot to live in harmony with others in this cold-hearted modern era.

In search for the words which I often use, I explored the inner world within myself gratefulness, blessing, nature, serenity, gentleness, blank space, emptiness, sincerity, freedom, meditation, emotional resonance.....



조용하대, 한지, 혼합재료, 50x70cm, 2018
HarmonyII, korean paper, mixed media, 50x70cm, 2018



조용하다, 한지, 혼합재료, 110x72cm, 2018
Harmony, korean paper, mixed media, 110x72cm, 2018

일상을 통해 경험되는 삶은 내가 상상하고 기획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삶은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또 하나의 다른 생명체처럼 통제할 수 없고 우연의 연속으로 구성되는 듯하다.

나의 작품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몰입 상태를 추구하면서 가능한 한 무심한 상태로 직관을 빌어 수행하듯 진행된다.

Life experienced through everyday life does not come true as I imagine and plan it.

Although life is mine, it seems to be made up of a series of uncontrolled, coincidental, as if it were like another creature.

My work is carried out by intuition, as indifferent as possible, in pursuit of a state of immersion away from everyday life.



Bring to mind, 면에 혼합재료, 180x180cm, 2019
Bring to mind, mixed media on cotton, 180x180cm, 2019



Bring to mind, 한지에 혼합재료, 150x90cm, 2019
Bring to mind, mixed media on korean paper, 150x90cm, 2019

산위에서 머나먼 지평선을 바라다 보는 꿈을 꾸다. 그곳에서 극과 극의 만남을 볼 수 있다.

자연질서의 증거 속에서 나 자신도 그중에 하나임을 발견한다. 우리의 자연세계는 주변의 극과 극의 상황들-삶과 죽음, 상승과 하강, 밝음과 어두움, 다가옴과 멀어짐, 주고 받음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극과 극의 이중적 상황들이 내 작업의 정신적 바탕을 이루고 있다.

나의 조각에서 나무를 선택하였다. 싹이 트고 자라서 생산을 하고 흙으로 돌아가 썩어서 거름이 되는 나무의 과정이 우리의 그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형태의 나무에 다듬어진 인공적 나무를 병치시킴으로써 감성, 직관을 표현하는 자연형태의 나무와 이성, 논리를 대신한 인공적 나무와 대조적 분위기를 띄운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질문들이 이성적 또는 감성적인 대답과 논리적 또는 직관적인 반응 중 어느 하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삶은 많은 선택적 편린 속에서 하나의 결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어떠한 선택도 우월하지도 하등하지도 않다. 나는 계속적으로 이성, 논리와 감성, 직관사이의 줄다리길 속에서 끊임없는 균형을 추구하고자 몸부림친다. 나의 작업에서 평행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나 자신 속에서 자연의 증거를 찾아내려고 한다.

I dream of seeing a horizon far from the top of a high mountain. There, I can see the encounter of extremes.

I feel I am ultimately another manifestation of natural order. Our natural world delicately balances opposite extremes; life-death, rise-fall, brightness-darkness, approaching-separating, and giving-taking. These dualistic qualities are the spiritual basis of my work.

I use wood as my medium in sculpture. This material's process-sprouting, growing, producing, dying, putrefying, and fertilizing is parallel to our own human condition. In each of my sculptures I marry wood found in nature to manipulated and manufactured wood. The natural shape, which represents my intuition, is in opposition to the processed wood which represents my intellect. We are posed with questions everyday that need either an intuitive or an intellectual response. Life always requests one decision within multi-sided coexis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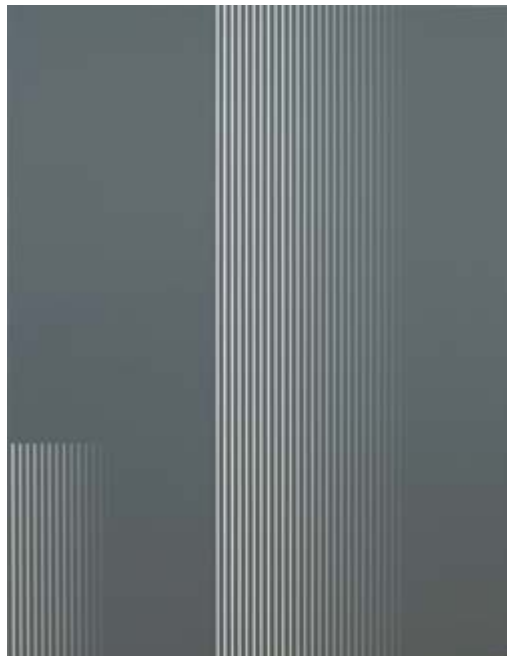
No choice is superior or inferior. I strive to balance the constant strain existing between intuition and intellect. By reaching this equilibrium in my work, I express a manifestation of nature inside my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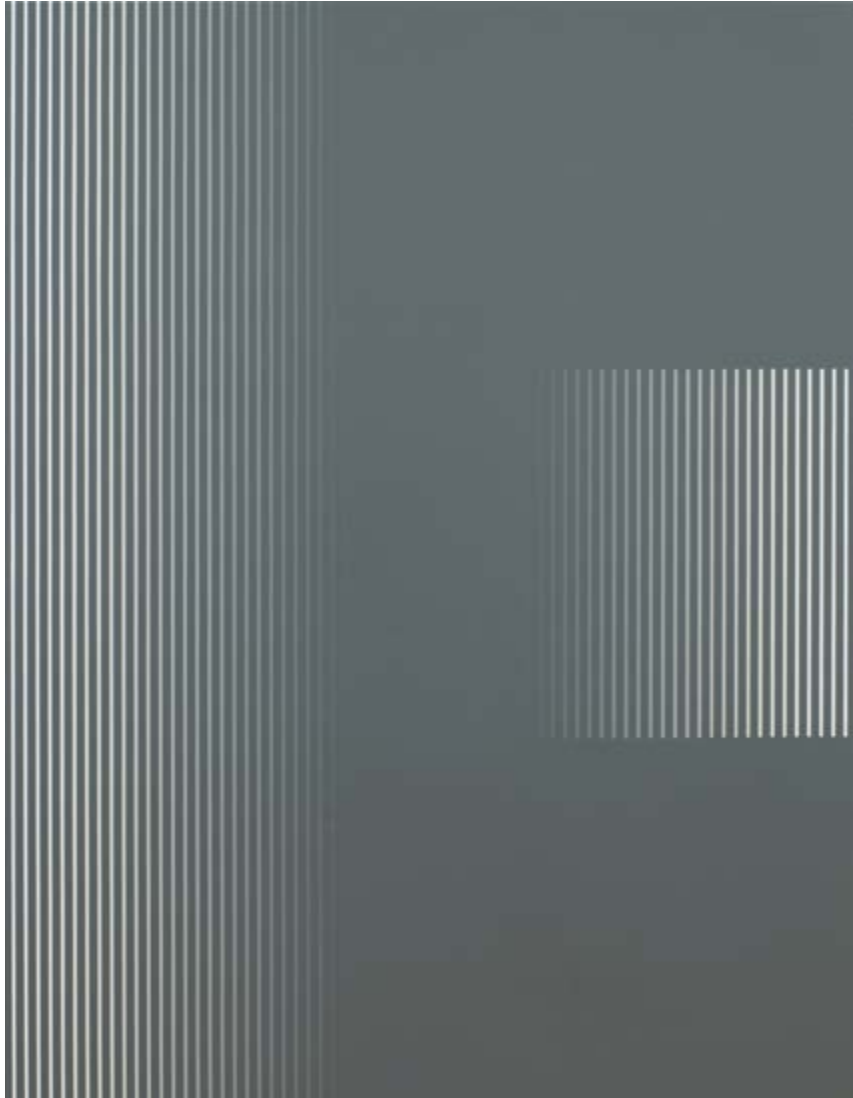
House&Home, 나무, 40x40x148cm, 2009
House&Home, wood, 40x40x148cm, 2009

나의 작업은 기존에 존재해 왔던 조형의 텍스트들을 다층적으로 재배치한 편집물이다. 이 딱딱하고 차가운 성질의 기하학적 조형언어를 통해 내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표면효과로서의 가상적 환영(illusion)과 감성코드로서의 유희(play)이다. 말하자면 기하학적 조형의 의미형식을 새롭게 탐색하는 것이다.

My work is a new compilation that rearranges the existing texts of the formative text in a multi-layered manner. what I am trying to reveal through this geometrical formative language of hardness and coldness is the imaginary illusion as a surface effect and a play as an emotional code. By doing so, newly pursuing the semantic form of geometrical shapes is what I intend to implement through my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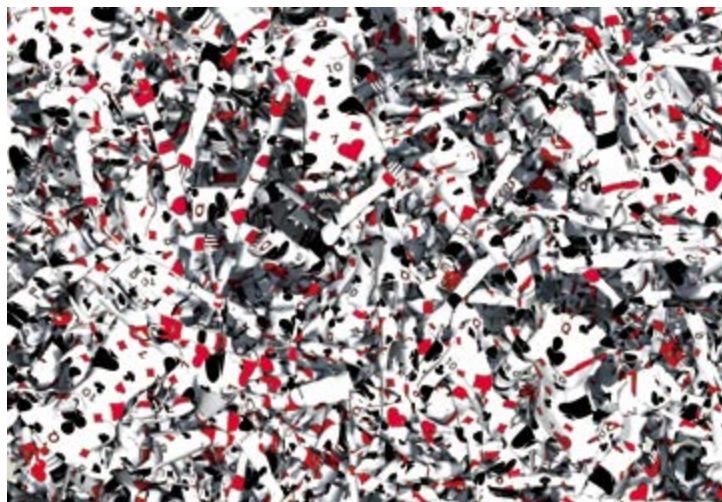
Transition 1920, 캔버스에 아크릴, 117x91cm, 2019
Transition 1920, acrylic on canvas, 117x91c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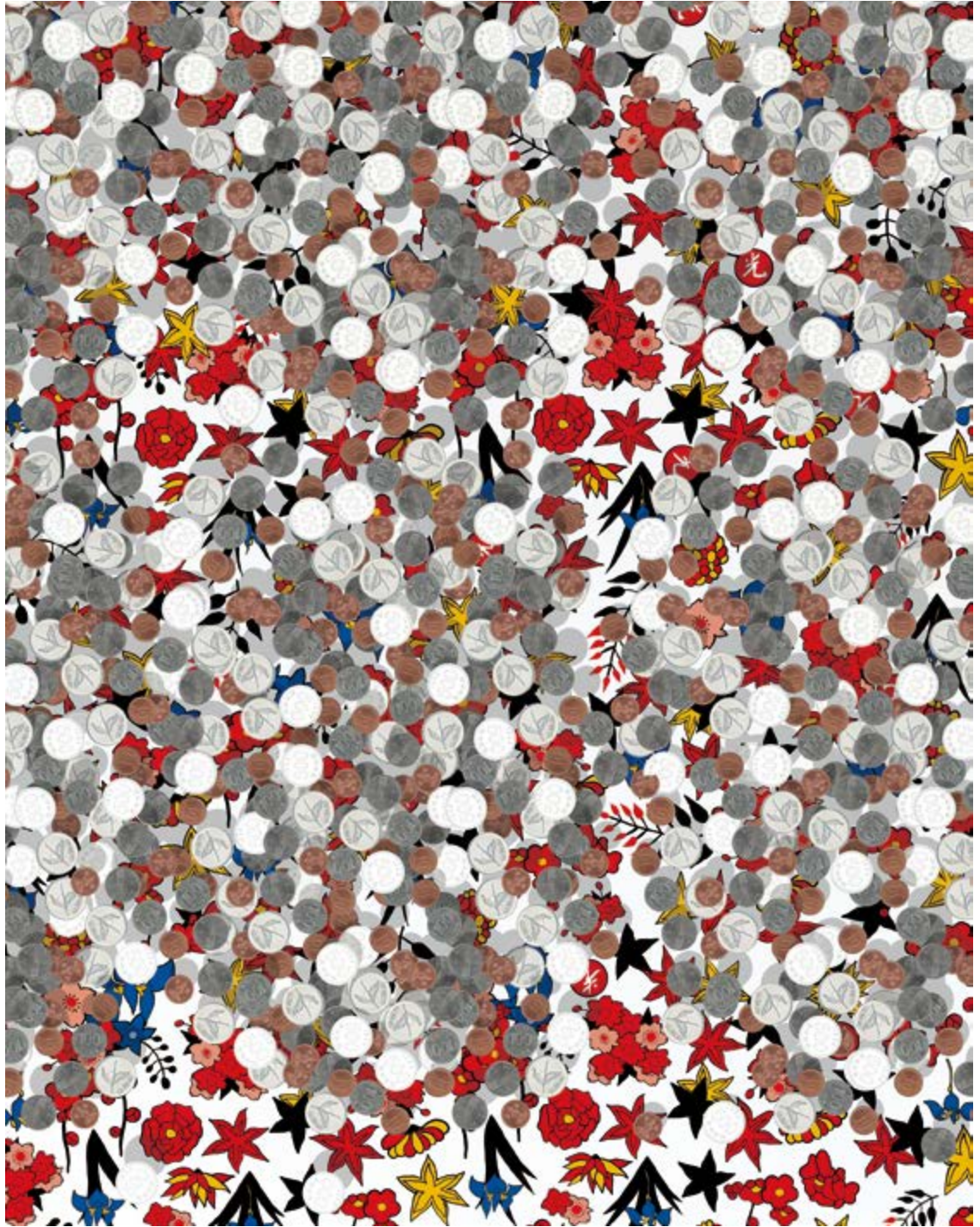
Transition 1919, 캔버스에 아크릴, 117x91cm, 2019
Transition 1919, acrylic on canvas, 117x91cm, 2019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한 이미지를 알루미늄 판에 디지털 프린트한 작업이다. 작업은 이미지에서 무엇부터 볼 것인가를 질문한다. 전통의 놀이라 할 수 있는 화투는 우리들에게 친숙하다. 동전 역시 항상 주머니에 몇 개 정도 들어있었던, 소중한 작은 뭔가를 사기 위한 필요 물건이었다.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쉽다. 쓸모없이 사라져가는 돈에 대한 운명인가. 가치를 잃어가는 동전들을 보면 시간과 시대가 바뀌어 감을 느낀다.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디지털 가상의 시대, 돈은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한 가상의 상징일 뿐 현실에서 떨어져 간다. 동전의 무게만큼이나 귀찮아졌고 그냥 물신의 상징물로 기록되어간다. 이젠 작업에서 화투와 돈으로서의 이미지보다는 디지털 회화를 만들어가는 구도의 하나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은 그림 속 풍경으로 만들어가는 조형적 요소로 보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것 같다.

My art works are made by the digital print process of variety computer programs. The work starts to ask what to look inside the image. The traditional playing cards of my art work are familiar to every korean. As well as the cards are disappearing, a few coins which often buy something precious but small was going into the past. Is it the fate of money that is disappearing at the end of it's use? I think it's a pity that things used familiar are getting disappeared. I feel that time is changing when I look at the coins that are losing value. In a digitally hypothetical age, money is no longer a virtual symbol, losing its function and moving away from reality. It becomes as annoying as the weight of the coin and is just recorded as a symbol of the object fetish. In my work, they now function as a composition of digital painting rather than meaning of cards and money themselves. So, I think it is more valuable to see these materials as pictorial elements that make the landscape in the painting.



더 좋은 날2, 알루미늄 위에 프린트, 116.9x80.3cm, 2019
More pleasant day2, printed on aluminum, 116.9x80.3cm, 2019



더 좋은 날, 알루미늄에 디지털 프린트, 72.7x53cm, 2019
More pleasant day, digital printed on aluminum, 72.7x53cm, 2019

<Unpacking Air> consists of an empty tub of mass-market hummus which is stamped with an expiry date. The tub is placed on a sheet of paper and is moved by the breath of the artist. The route of the tub is traced in pencil. The fleeting journey of the tub is then rendered as a mapped and recorded traversal of space. Breath, the invisible but fundamental engine of all human endeavour is thus recorded as well and the work takes on something of a biographical aspect. It is the record of human labour in a particular set of social and economic relations.

<Unpacking Air>에는 유통기한이 찍혀 있는 시장 판매용 후무스 빈 통이 등장한다.

통은 종이 위에 놓여 있고 화가의 숨결에 의해 움직인다. 통의 경로는 연필로 추적된다.

통의 덧없는 여정은 지도화되고 기록된 공간의 횡단으로 표현된다.

숨, 모든 인간적인 노력의 보이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엔진 또한 기록되고, 작업은 무언가 전기적인 측면을 띠게 된다.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관계의 특정한 집합에서의 인간 노동에 대한 기록이다.





Unpacking Air, 영상, 5분 26초, 2019
Unpacking Air, video, 5m 26s, 2019

Yasemin Özcan produced this video work for the Capadox Festival.

The title of the 3. edition was "Ways out from the World."

Capadox is an open air art festival in a central Anatolian city Nevşehir.

She focus on a ceramic studio and impressed by their relation to soil.

They work until 4 o'clock in their studio. After that they go to their vineyard to deal with the daily stress, they say. They also do farming there. And they keep the seeds in ceramic bottles they made.

The video focusus on their unmediated, direct relation to soil.

"Actually both are one and the same; it's all about interest in the earth. You deal with soil in both, after all. This goes for our profession of pottery, and for cultivating the earth, raising crops. It's about passion for the earth, the desire to create and experiment. When you come here, the whole world stays behind; it's a chunk of time you reserve for nothing but yourself. We enjoy ourselves, take pleasure in what we do, and then leave."

Yasemin Özcan은 카파독스 축제를 위해 이 영상을 제작했다.

3판의 제목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다.

카파독스는 아나톨리아 도시 네브세히르에서 야외 예술 축제다.

그녀는 도예 작업실에 집중하며, 그것이 흙과 맺는 관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작업실에서 4시까지 일한다. 그 후에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포도밭으로 간다고 한다. 그들은 또한 그곳에서 농사도 짓는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도자기 병에 시트를 보관한다.

영상은 그들과 흙의 중재되지 않은 직접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둘은 하나이고 동일하다. 그것은 모두 지상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결국 당신은 흙을 둘 모두에서 다룬다. 이것은 우리의 도자기 작업, 땅을 경작하고 농작물을 기르는 일에 해당된다. 이것은 땅에 대한 열정, 창조와 실험에 대한 욕구에 관한 것이다. 당신이 여기에 올 때, 온 세상은 뒤에 남아있다; 그것은 당신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남겨두는 시간의 한 덩어리다. 우리는 스스로 즐기고, 우리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떠난다."



Earth, The Mother Of Us All, HD 필름, 8분, 2017
Earth, The Mother Of Us All, HD film, 8m, 2017

7
B

의식과 무의식 사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

정수경 |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학과 교수, 미학 전공

이탈리아의 미학자 B. 크로체는 진정한 예술작품이란 오직 우리의 정신 속에 관념으로만 존재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하였다. 이는 예술가의 머릿속에 떠오른 예술적 심상을 물질적, 비물질적 매체들을 통해 감각 가능한 것으로 고스란히 옮겨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심상을 감각 가능한 작품으로 체현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 단순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 감각적 능력의 문제다. 데미안 허스트처럼 자신이 지닌 놀라운 심상을 스스로 재현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이의 손을 빌어 체현하는 경우는, 작가가 자신의 남다른 시각적 감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탁월한 손 감각을 빌리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머릿속에 떠오른 심상의 고유하고 독특한 성격에 있다. 이제는 새로운 것도 없이 예술가의 심상은 의식과 무의식이 다층적으로 겹쳐져 형성되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은 기억을 통해 인간을 불안과 불쾌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식의 방어막을 빠져나간다.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흐릿하고 모호한 꿈이나 무의지적 심상으로 돌아와 예술가를 교란한다. 심상을 매체적으로 체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심상의 무의식적 차원이며, 많은 현대 미술가들이 심상의 무시할 수 없는 이 차원을 작품에 붙들고자 고투한다.

이렇듯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심상을 붙들어 작품으로 체현하려면 그 미끄러짐의 까닭과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엄밀히 따지면 분석심리학자 융처럼 무의식을 의식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처럼 무의식을 외적 자극과 내적 충동이 의식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이해의 양상은 달라진다. 게다가 프로이트에 따르면 의식과의 관계 양상에 따라 무의식은 다시 둘로 나뉜다. 하나는 자극이나 충동의 일상적인 수준이 의식의 방어막을 작동시키지 않아 생겨나는 무의식으로서, un-consciousness이다. 보았으되 본 줄로 기억되지 않는 친숙한 공간에 대한 지각이 이런 정신 영역에 속한다. 이는 의식의 방어막의 용량과 경제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바로 그 경제성의 문제로 인해 의식은 보다 특별하고 강렬하고 근원적이며 끈질긴 자극과 충동을 막아서려 한다. 그 가운데 자아의 의식은 경우에 따라 초자아의 도덕률, 사회적 규범과 금기를 준용하여 그에 위배되는 자극과 충동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억누르고 밀어내려 하는데, 그리하여 의식과 기억의 영역으로부터 밀려난 무의식이 sub-consciousness이다. 그런데 이처럼 의식에 거부당해

무의식의 층위로 내려간 자극과 충동들은 불안의 내적 요인이 되어 반드시 회귀하며, 인간의 의식은 여기에 기억, 혹은 유사 기억의 형식을 입혀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예술 작품으로의 체현은 프로이트가 승화를 조건으로 달아 인정했던 유사 기억의 대표적 형식이다. 그러나 기억되지 않은, 기억은커녕 생각되어서도 안 될 것의 귀환은 본 모습 그대로일 수 없다. 가장이 개입한다. 꿈의 이미지에서 그러하듯, 전치와 응축이 예술 작품으로의 체현에서도 기본 문법이 된다. 이번 전시에서 우리는 임수빈과 이주현의 작품에서 이러한 문법의 전형을 볼 수 있다. 심은석의 작품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작품은 사회적 규범이 허용하지 않는 개인적 무의식의 비가시적인 층위를 이질적 물성의 융합을 통해 언캐니하게 구현하였는데, 그를 통해 작가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Laure Catugier의 작품에서 그러한 언캐니한 불안을 자아내는 역할은 등불의 움직임에 따라 일렁이는 의자의 그림자들이 맡았다. Nadine Rennert의 작품은 의식과 무의식 관계의 변주라 할 애도와 우울의 사이에 걸쳐 있다. 노주환의 작품의 경우, 좌우가 뒤집힌 서로 다른 크기와 색의 활자들로 띄엄띄엄 배치된 단어들은 단어들이 의미를 발화하기 위해 요청되는 구조화의 문법을 폐기함으로써 의식의 방어막을 무장해제한다. 기표와 기표가 통사론적 구조를 결여한 채 등성등성 자의적으로 이어져 만들어내는 발화의 방식은 일상 언어의 문법보다는 꿈의 문법에 더 가깝다. 정유정의 작품 역시 기표를 재배치하고 기표와 기의를 떼어놓음으로써 다른 의미의 발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하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품의 무의식이 형성되기도 한다. 김재남의 작품은 인간의 주관적 정신 작용을 배제하고 작업 과정을 오직 매체의 기계적 메커니즘에 맡기는데, 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질적인 매체간의 통약불가능성으로 인해 의식-무의식의 중층 구조와도 유사한 의미화의 미끄러짐과 비결정성이 발생한다. 사하라 사막에 비질을 하는 하나에 우타무라의 영상 작업은 마치 이 모든 유사 기억의 문법과 메커니즘을 슬로우 모션으로 풀어낸 것 같은 작업이다. 사하라 사막의 광대한 모래 언덕 위에 선 작가는 바람이 모래에 남긴 흔적이 거슬리기라도 하는 양 그것을 빗자루로 지우려 하지만, 그 결과는 매끈해진 모래언덕을 더 깊이 파이게 만드는 작가의 어지러운 발자국들일 따름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종종 겹쳐지고 엉키면서 나중 것이 먼저 것을 덮어버린다. 그 뿐일까. 지금은 선명해 보이는 것도 결국은 금세 흐트러져 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작가는 끊임없이 비질을 한다. 작가의 행위는 흔적을 지우기 위함일까, 아니면 흔적을 남기기 위함일까. 프로이트는 “잊기 위해 기억한다.”는 표현으로 우리의 의식이 지닌 역설적 성격을 압축했다.

이러한 유사 기억의 형식과 문법은 단지 작가들의 작업 과정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미끄러지는 심상을 어떻게든 작품으로 붙들어 매려 애쓰는 가운데, 작가들은 작품의 의미 또한 의식의 명료한 대상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이러저러한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작업의 문법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필연이다. 하지만 작가만큼이나 의식과 무의식으로 중층 결정된 수용자들이 작품을 만나면 작가가 애써 비끄러맨 조형과 의미의 매듭은 순식간에 풀려버리고 말 것이다. 이 또한 필연이다. 그럼에도 그 애씀, 그 매듭은 수용자의 미적 경험을 일으키는 중요한 방아쇠가 될 것임에, 결코 무의미로 소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도리어 그 미끄러짐 속에서 작품이 다양하게 주체적으로 발화됨을 목도하는 즐거움은 그야말로 오롯이 작가의 차지라 할 때, 작품은 그렇게 놀이터의 미끄럼틀이 되어도 좋지 않을까?

Between Conscious and Unconscious

Chung, SuKyung | Cha University, Professor of Dept. of Art Therapy, Aesthetician

B. Croce, an Italian aesthetician radically insisted that the genuine work of art resides solely in our mind as an ideal mental object. We may accept this insistence as to express the extreme difficulty in transforming the mental images of artists into something sensory via various media material or immaterial.

Why is it so difficult to embody the mental images in the sensory work of art? One basic reason is the shortage of plastic ability. When an artist resorts to the hands of other technician to embody his highly delicate mental images instead of doing it himself, as in the case of Damien Hirst, he might have thought it would be much better. But more important reason is the unique quality of mental image itself. As is generally known now, the mental image is formed by multi-layering of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or the subconscious. According to Freud, the unconscious slip through the memory blockade of the conscious against the anxious and the unpleasant. But they ceaselessly return in vague, ambivalent dream images or involuntary mental images to upset the artists. What makes the embodiment of mental image so hard is this unconscious dimension of mental image, unfixable and sliding. Many of contemporary artists struggle to grasp and tie this invincible unconscious level of the mental images in their works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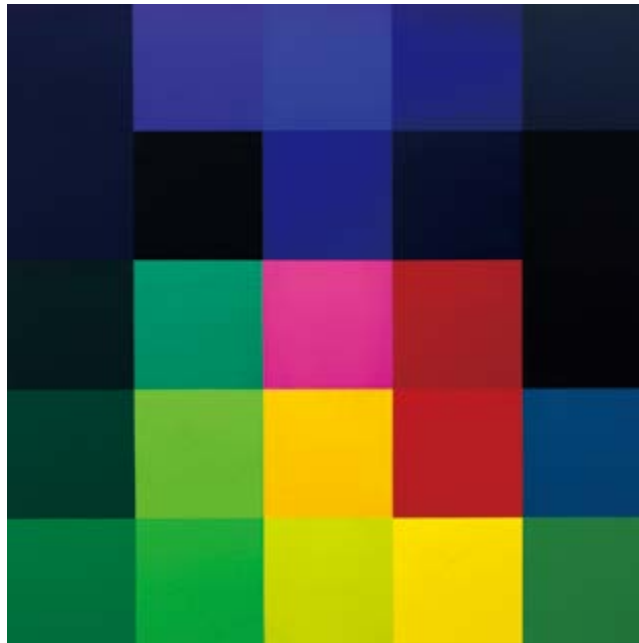
In order to capture the images that slide constantly like this into the work of art, we have to understand the reason and how it works. Strictly speaking, this understanding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we consider the consciousness, like analytical psychologist Jung, as preceding consciousness, or, like the psychoanalyst Freud, as being made by the external stimulus and the internal impulse in a constant relationship with consciousness. Furthermore, according to Freud, the unconscious is divided into two,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with consciousness. One is un-consciousness which is created by not activating the shield of consciousness. The usual level of stimulus or impulse bypass the vigilance of the consciousness. Perceptions of familiar spaces that I have seen but do not remember belong to this mental realm. This is partly due to the capacity and economy of the shield of consciousness. Because of that economic problem, consciousness seeks to block more special, intense, fundamental and persistent stimuli and impulses. Meanwhile, the consciousness of the ego sometimes suppresses and pushes down the stimulus and impulse contrary to the morality of the superego, social norms and taboos not even to be thought or imagined. So pushed out of the realm of consciousness and memory is sub-consciousness. However, the stimuli and impulses rejected by the consciousness and subsided to the level of the unconsciousness are to be returned as internal factors of anxiety, and the human consciousness tries to relieve the anxiety by endowing them a form of memory or pseudo-memory.

Embodiment as a work of art is a representative form of pseudo-memory Freud approved with the qualification of sublimation. But the return of what is not to be remembered, not to be thought of, cannot be as it is. The disguise intervenes. As is in the dream images, displacement and condensation become basic grammar in the embodiment of art. In this exhibition, we can see this grammar typically in the works of Lim SuBin and Lee JuHyun. The same is true of Shim EunSeok's works. Through the fusion of heterogeneous physical properties, his works embody the invisible level of personal unconsciousness that social norms do not allow. His uncanny works fully convey the artist's anxiety. In Laure Catugier's work, such an uncanny anxiety is activated by the shadows of the chairs swaying to the movement of the light. Nadine Rennert's work resides somewhere between mourning and melancholy, a vari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In the case of Noh JuHwan's work, the left and right inverted words arranged spacingly in different sizes and colors disarm the conscious shield by discarding the syntactics that is indispensable for the words to utter meaning. The way of utterance made by arbitrary sequence of signifiers without syntactic structure is closer to dream grammar than grammar of everyday language. Jung YouJung's work also uses a strategy to induce different meanings by rearranging the signifiers and detaching them from the signified established. But sometimes the unconsciousness of the work is formed in a totally different way. Kim JaeNam's works exclude the subjective mental action of human beings and leave the work process to the mechanical mechanism of the media. The incommensurability between the heterogenous media introduced in the work brings about a kind of sliding and indeterminacy effect resembling the multi-layering structure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Hanae Utamura's video work, showing her sweeping the sand dune of the Sahara Desert with a broom, looks as if it articulates the grammar and the mechanism of this pseudo-memory in a slow motion picture. The artist, standing on the vast sand dune of the Sahara Desert, tries to erase the traces on the dune with a broom, only to leave the dizzy footprints of herself, new traces digging and messing up the smooth sand dune. Even those often overlapping and tangling, the latter overwrites the former. And what looks clear now will eventually get distracted and disappear. Nevertheless, the artist constantly rubs. Is the artist's act to erase traces or to leave traces? Freud condenses the paradoxical nature of our consciousness with the expression "we remember to forget."

This form and grammar of pseudo-memory are not only concerned with the artist's work process. In an effort to hold onto the sliding image as a work, the artists try to convert the meaning of the work into an object of clear consciousness. In one way or another he tries to define the grammar of his work. This is inevitable. However, if a viewer, equally multi-determined by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as an artist is, meets the work, the knots of image and meaning the artist has tied so eagerly will loosen in no time. This is inevitable, too. Nevertheless, the effort, the knots will be an important trigger for the aesthetic experience of the viewer, so will never be exhausted meaninglessly. On the contrary, when the pleasure to witness his work in the slippery utters diverse subjective meanings is solely for the artist, what if the work of art being a slide on a playground?

나는 그동안 회화, 영상, 사진, 텍스트 등 다매체 설치작업을 통해 장소와 사물 사이의 미묘한 관계에 주목한 작업들을 이어왔다. 매체 간 상호작용과 “상호매체성”의 서사구조에 따른 우연성과 불확실성의 구조화를 통해 내용적 층위마저도 다양하게 변모할 수 있다는 점과 관객의 개입에 따른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 내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I have been working on various mediums, such as painting, video, photography and text, to note the subtl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nd object through installation. It focuses on the interaction between media and the structure of coincidences and internal or uncertainty depending on the narrative structure of “intermediality” to create a new narrative based on audience intervention, as well as the fact that the content layer can vary widely.



닿을 수 없는 지점 보이지 않는 시점-에트르타(프랑스) #6, 캔버스에 아크릴, 72.7X72.7cm, 2019
Unreachable Point, Veiled Point-Etretat(France) #6, acrylic on canvas, 72.7X72.7cm, 2019



닿을 수 없는 지점 보이지 않는 시점-에트르타(프랑스), 단채널 영상, 가변 설치, 루프, 2019
Unreachable Point, Veiled Point-Étretat(France), single channel HD video, variable installation, loop, 2019

활자들로 단어들을 사물처럼 읽고 만지며 떠오르는 기억을 끌어내서 다양한 개념을 만들어 봄으로서 이미 문자로 개념화된 사물성의 한계를 넘어 회화적이며 조각적인 표현으로 자신만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즉 언어적 텍스트를 넘어 생성과정으로서의 텍스트를 이용한 상호 텍스트성에 의한 의미생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Through reading and touching the movable types as objects, various concepts are created with surfacing memories coming to mind, overcoming limit of the nature conceptualized by the word and composing its new concept with pictorial and sculptural expression.

Utilizing the text as more than its linguistic meaning but as a process of formation, it is the expression of semantic formation via intertextuality





말을 담다, 납활자, 나무, 100x51x5cm, 2019
 Putting words, lead movable type, wooden box, 100x51x5cm, 2019

나는 친숙한 현실의 모습과 기이한 비현실적 존재가 뒤섞인 하이브리드 신체를 형상화한다. 이 형상은 비현실적인 존재가 드나들며 그 실재를 드러내고 현실과 환상이 공존하는 장이자 용기이다. 현실과 초자연, 외부와 내면 세계, 육체와 영혼이라는 이분법적 주체가 혼성이 되고, 아이와 성인, 동물과 인간, 여성과 남성의 개념을 초월하여 가시적임과 동시에 비가시적인 형상은 무의식의 세계를 소환하여 인간의 본질을 드러낸다.

I embody a hybrid body mixed with familiar reality and quirky impractical beings. This figure regards as a place or container where unrealistic beings move in and out, reveal their reality and fantasies coexist. The dichotomous subject of reality and super-nature, the outside and inner worlds, and the physical and soul become hybrid, and the unvisual form, while simultaneously visible, transcending the concepts of children and adults, animals and humans, women and men, subpoena the world of unconsciousness and revealing the nature of man.



권, 플라스틱 레진, 안료, 가변설치. 2007
권, plastic resin, color, variable installation, 2007



부분 인격들, 아크릴, 아크릴 물감, 플라스틱 레진, 에폭시, 가변설치, 2012
Partial Personalities, acrylic, acrylic paint, plastic resin, epoxy, variable size, 2012

본인의 작업은 동.식물체에서 보여지는 각 기관의 독특한 형태에 주목하여 이를 수집하고 다시 해체, 재결합하여 익숙한 듯 새로운 묘한 기시감의 생명체의 만듦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각기 다른 기관들을 바로 연결한다거나. 위치의 전이, 크기의 전환 등의 이질적인 구성을 통해 서로가 인과 관계에 의해 구성된 유기적 생명체가 아닌 독립된 기관 자체가 갖는 고유의 생명성, 특이성을 보다 직접적이고 촉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I have a habit where I stare at one spot when I come up with a plan for my work.

If I stare at one spot for a long time like this, suddenly the place or the shape slowly change, finally it becomes a strange shape that I can't see in real life.

I make my works by using this method.

In this way, the things that I want to express have an organic shape with a free curve line, rather than a uniform straight line.

My work is also feminine and sensible, rather than masculine and logical.

The work looks familiar, though it doesn't exist in real life.

I want to create a fantastic and grotesque world that escapes reality, and only exists in my imag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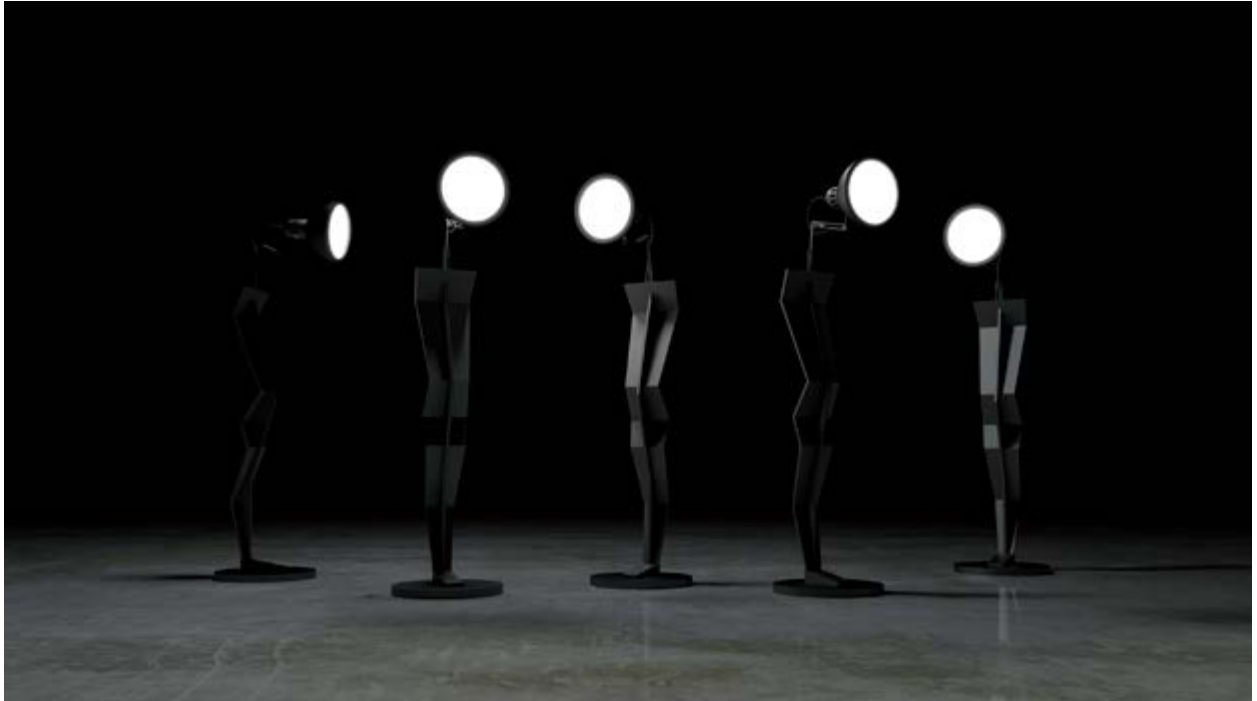
무제, 레진, 25x20x50cm, 2018
Untitled, resin, 25x20x50cm, 2018

익숙한 사물로 표상된 형상들은 누군가의 사적인 이야기이며 또한 모두의 이야기이다. 나의 작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동작과 빛 또는 소리인데, 시선을 주제로 한 작업들은 관객을 바라보고 있거나 관객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며 시선을 보낸다. 대상을 향해 빛을 비추기 위한 사물인 스탠드 조명의 형상이 마치 대상을 바라 보고있는 인간과 닮아 있다고 느꼈다. 냉소한 시선은 그들의 얼굴이 사라지고 점점 더 나와 괴리감 있는 존재로 느껴지게 하는데, 그 경험의 재현을 통하여 관객이 그들의 경험과 대입한 이 시대의 집단 이기주의, 차별과 소외, 익명성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shapes and forms that objects take have someone's or everyone's story behind them. What the following work emphasizes are movement, light, and sound. Works that are subject to sight, either are facing towards the audience or following their movement. The shape of the stands lighting that lights towards the audience resembles a shape of a human staring at them. As the cynical looks of those faces disappears making one feel distances apart from oneself, the work brings out today's issues of collectivism,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nd anonymity that we go through reenacting such experience.



eye-I, PLA, 크롬 도금, 아크릴 판넬 400x100x400mm, 2018
eye-I, PLA, chromium plating, acrylic panel, 400x100x400mm, 2018



시선폭력, 브론즈, 조명, 모터, 센서, 500x500x1800mm, 2019
Violent Eyes, bronze, light, motor, sensor, 500x500x1800m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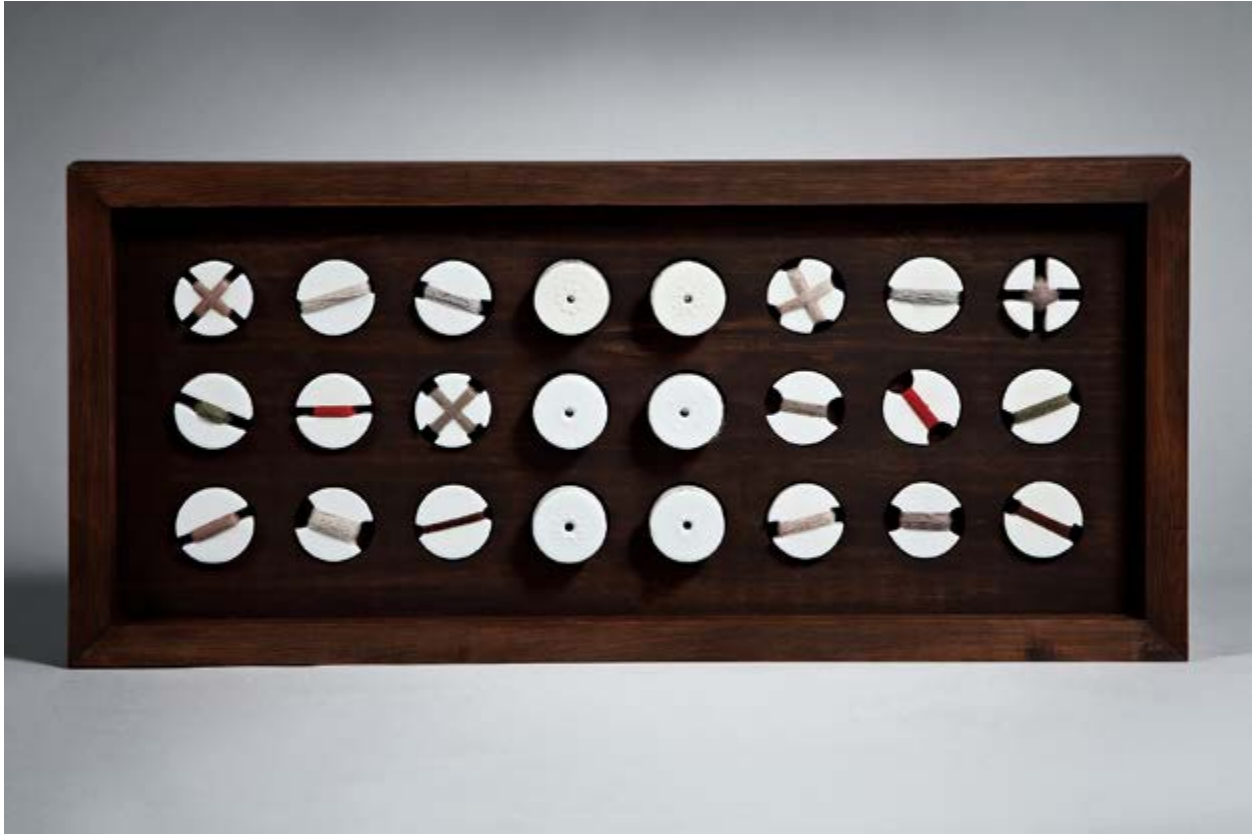
절제된 풍경을 거닐다.

일상의 잠재적 가치들(일상의 어떠한 것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에서 소중함을 느끼고, 이를 일깨우기 위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 중 하나인 책상 공간과 그 주변에서 멋을 찾고, 형상화하여 백자 문방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walk in a moderate and controlled scene.

To make feel preciousness from potential values of the daily things at the moment (a positive message that any daily things have values), and to enlighten you on that, I'm seeking flavor from and around the top of your desk, which is one of the spaces where you, modern people, stay the most and manufacture stationery of white porcelain through the embodiment of such flavor.





실패set, 도자, 실, 미송, 1000X450X60mm, 2012
BOBBIN SET, ceramic, thread, the Oregon pine, 1000X450X60mm, 2012

The artist is wiping the Sahara Desert with a broom, moving from the bottom to the top of the dune and from edge to edge of the screen.

작가는 사구의 아래에서 위로, 화면의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로 움직이면서 빗자루로 사하라 사막을 쓸고 있다.





Wiping the Sahara Desert, HD 비디오 루프, 5분 40초, 2010
Wiping the Sahara Desert, HD video loop, 5m 40s, 2010

In my video <Absence> I trace the empty space which opened after the death of my father in 2015. In a succession of scenes I present pieces of clothing that were worn by my father, as well as personal items belonging to other members of my family. I am attempting to create an intimate rapport with the incomprehensible aspect of the irrevocable.

The sequences pretend to follow a ritualistic tradition which in fact does not exist. My imagination for the creation of this video was fed by the experience of a Korean shamanistic ritual for the soul of a deceased dancer. I happen to attend that ritual, shortly after my fathers death, during a residency in Korea in 2015.

The first text that I speak in the video is written by the German philosopher Paul Ludwig Landsberg.

나는 영상 <Absence>에서 2015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문을 연 빈 공간을 추적한다.

연속되는 장면들에서 나는 아버지가 입었던 옷 조각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에 속하는 개인 물품들을 선보인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의 이해할 수 없는 양상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일련의 장면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제의적인 전통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한 나의 상상력은 죽은 무용수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샤머니즘적 제의 경험으로 채워졌다. 나는 2015년 한국에 거주하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우연히 그 제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내가 영상에서 말하는 첫 번째 텍스트는 독일의 철학자 폴 루트비히 란츠버그가 쓴 것이다.





Absence, 영상, 10분 40초, 2016
Absence, video, 10m 40s, 2016

As an artist with a background in architecture, I question our perception of space through a palette of immaterial phenomena: echo, shadow, noise, etc. My work conveys the geometric language of modernism, in which my favorite tools are lines, light, and sound.

In the video <Chair x 2>, two empty chairs face each other in a duel in which their silhouettes never intersect. Through this work I'm explo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pace, image, and sound; playing with the viewing angles and with the spatial orientation benchmarks X, Y, Z. I'm questioning the occupation of space in relation to emptiness; investigating the sound and mental landsca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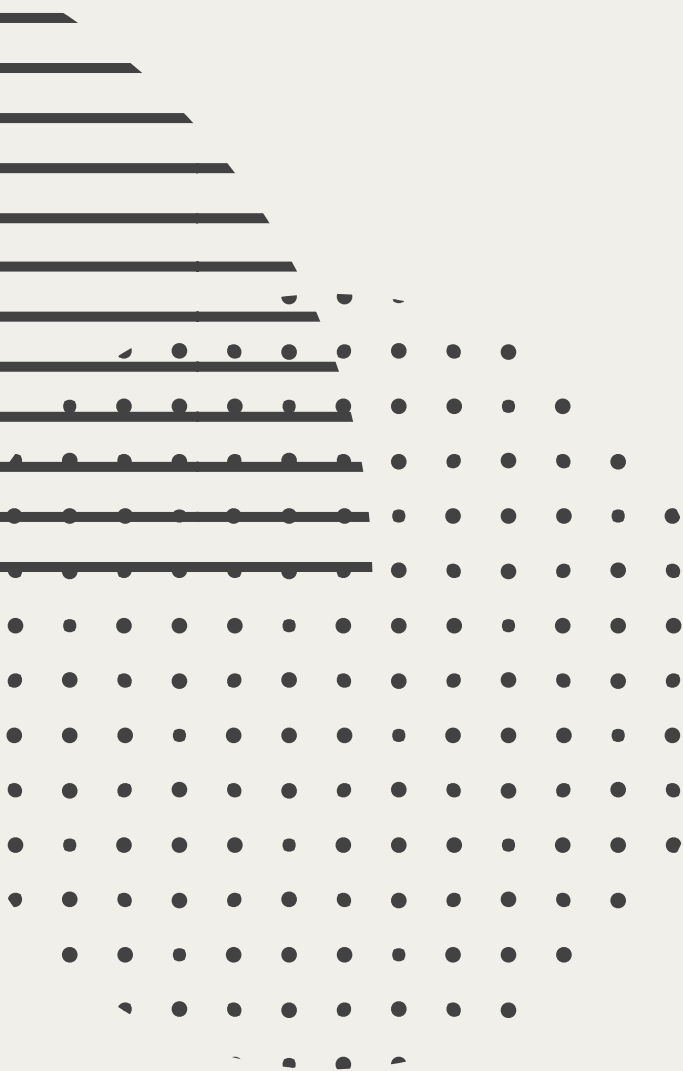
건축에 배경을 둔 예술가로서, 나는 메아리, 그림자, 소음 등 비물질적인 현상의 팔레트를 통해 공간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나의 작품은 모더니즘의 기하학적 언어를 전달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는 선, 빛, 소리다.

영상 <Chair x 2>에서는 두 개의 빈 의자가 겨루기를 하듯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각각의 실루엣은 결코 교차하지 않는다. 이 작업을 통해 나는 관측 각도와 공간적인 방향 기준점들인 X, Y, Z를 가지고 놀면서 공간, 이미지, 소리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나는 소리와 심리적 풍경을 연구하면서 공허함과 관련된 공간의 점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Chair x 2, 영상, 유성, 3분 15초, 2019
Chair x 2, video, sound, 3m 15s, 2019



개인과 집단 사이

개인과 집단 사이(in-between)

이봉욱 | 예술학박사

『개인과 집단 사이』 섹션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은 작품이 스스로 가지는 프로젝트의 주제나 형식, 의미에 따라 저마다 다양한 가치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작가들의 경험과 사건들을 통해 그들의 작품에서 미적 사유를 가능케 한다. 이번 섹션에서 개별적 작품들을 하나로 잇고 있는 것은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주체자로 볼 수 있다. 작품들은 조각, 영상 등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또 다른 미학적 실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보편화되고 고착화된 인식론적 사고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반동일화 및 이분법적 정주를 와해시키는지를 본 작품들을 사유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 개인과 집단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탈타자화가 될 수 있는 특이성(singularité)으로서의 주체자를 찾아 나서는 전시이기 때문이다.

1. 발터 벤야민이 근대적(modern) 시간에 있는 동질적인 것에 대해 일갈했던 이유는 근대화 과정에서 그 형태적 경향이 동질화 과정을 가졌기 때문이다. 동질화란 다양한 삶의 가능성들을 배제하거나 가능성 자체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동질화는 개인이 집단이나 민족, 더 나아가 국가로서 자신을 거대 서사와 동일시함으로써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이지 않게 만든다. 본 전시는 이러한 동질적 형태를 허물고 경계를 넘기 위한 해체론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여, 고착화된 사고를 와해하며 타자에서 주체적 사유로의 재위치를 시키고자 한다. 전시에서 소개된 작품들은 본질을 탐구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드러내고, 다름의 양식으로 조각이나 비디오 작품으로 이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작품의 특징을 본다면, 'Space2019-idea'는 인간 본질의 주체적 자아를 찾아 존재로 발현하였으며, '두개의 문'은 낯섬을 통한 또 다른 나=타자를 만나는 지점을 음양의 작품으로 나타내었다. 'ETW18_NK824'는 플라스틱코스와 같은 변형이 가능한 물성을 해체하여 일상적 이미지에서 벗어난 가상적 환영을 통해 새로운 회화적 독특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Fantasy Transformer in SHARE THE FANTASY'는 현대인의 소비에 대한 욕망의 실재적 이미지는 모방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주체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대홍수'를 주제로 한 영상 작품은 현재는 과거에 이미 항상 존재했던 것,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대상이 대홍수의 기록을 찾길 기대한다. '어울림'은 일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오브제를 통해 삶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다. 'Orient silk'는 탈영토화된 오리엔트 실크를 통해 아메리카 드림의 유목적 삶에 대한 서사이다. 'InBetween_Seoul_2017'에서 보여지는 투명 비닐은 경계를 관통하며서 이미지를 지연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화'는 코드화된 고정된 삶이 아닌, 소통 가능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저마다의 방식으로 나아가면서도

작가들은 보편적 동질화로부터 탈주하고 새로운 주체적 지층으로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련의 작품들은 작가 스스로 추구해나가는 주체성의 발현으로 각각 독특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그들의 실존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형언어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2. 주체적 실존은 인간이 삶 속에서 욕망을 통해 진정한 자기 존재자를 드러내는 것이다. 즉 자신의 결핍된 그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충족되는 동시에 결핍이 생성되고 만다. 결국, 욕망은 욕망하는 자체이다. 작가 자신은 욕망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가지며, 이것은 예술적 시각 이미지를 생성해 낸다. 인식론적 구조의 억압된 체계 내에서는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존재자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작가 스스로 주체성 획득에 부단히 노력하고 예술가의 실천적 행위로부터 자신의 근원을 찾아 나서며 경계 저 너머의 실재의 삶을 표상해야겠다. 이처럼 자신의 본질에 대한 성찰은 자신의 가치체계를 형상화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타자가 아닌 주체자로서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

『개인과 집단 사이』 섹션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작품들은 동시대가 지닌 고착화되고 보편화된 문제와 겹치면서 작가 스스로 내부에서 발견되는 잉여물을 예술작품으로 재-위치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를 통해 작가가 새롭게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은 개인과 집단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주체화를 만들어내면서 자신과 같지 않은 새로운 가치를 가진 주체자를 구현하는 지점이 된다.

3. '개인과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포함 불가능성이라는 모순적 관계 속에 개인이 주체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집단이 가지는 보편성 너머에 특이성(singularité)으로 항상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가는 경계를 넘어서는 다름에 대해 꾸준한 성찰을 추구해야 한다. 작가들은 작품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타자에서 주체자로 자신의 보편적이지 않은 예술세계의 근원을 발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시도의 실현을 목도하게 한다. 경계를 넘어 사이에 위치한 주체자는 언제 어느 곳에 귀속되지 않고 안과 바깥 사이에 거주하며, 사이에 존재하는 보편화 되지 않는 특이성으로 존재하게 된다.

작품으로 나타나는 특이성의 주체자는 개인과도 다르다.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으며 대상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사이공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특이성은 오직 예술작품으로 발현된 또 다른 존재자이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주체에 대한 사유는 집단에 고착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개인과도 닮지 않은 차이를 가지며, 어떠한 것으로도 환원 불가능한 다른 어떤 존재의 가능성으로 나타난다. 본 전시에서도 작가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이성을 가지며 중첩되고 겹치는 사이공간에서 그들의 실재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통해 또 다른 주체자를 만들고 있다.

특이성(singularité)으로 인한 새로운 예술의 생성 가능성은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사유를 통한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내·외부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회구조의 동일시로 점철된 체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이들의 예술적 실천을 우리는 읽어 볼 수 있을 것이다.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Lee, BongWook | Ph.D. in Art

In this part of this exhibition called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have different values depending on the subject, form and meaning of the work itself. These values enable aesthetic reasons in their works through their individual experiences and events. In this section, bringing individual works together is a new cross-border as a possibility. Exhibited works are sculptures and images, the viewers through the possibility is another form of aesthetic can be found. Through this, we can find out by thinking of works that have seen how universal and hardened cognitive thinking collapsed anti-identification and dichotomous spirits. The reason is that the exhibition is designed to break the boundaries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and find the person as a singularity that can be lead to de-objectfication.

1. The reason Walter Benjamin mentioned the homogenous thing in modern time is that its formative tendency had a homogenizing process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Homogeneity is the exclusion of various life possibilities or the creation of them. Homogenization makes the existence of "I" not independent by an individual by equating himself as a group, ethnicity or even a nation with a giant epic. Based on the diversity of the disorganization to break down this homogeneous form and cross the boundary, this exhibition aims to bring down hardened thinking and re-position from batter to self-reliance. Works introduced in the exhibition explore the nature and reveal a new identity, and display them in a different form as sculptures or video works. In particular, 'Space2019-idea' refers to the identity of the human nature, and 'Two Doors' refers to the point of meeting the batter as the work of yin-yang. 'ETW18_NK824' disassembles a transformable property such as plastiscus, creating the uniqueness that a painting can have through a hypothetical illusion that deviates from its everyday image, and in the case of 'Fantasy Transformer in SHARE THE FANTASY' the real image of modern consumer desire creates a self-reliance image due to differences resulting from imitation. Under the theme of "The Great Flood," video works hope that what has already always existed in the past, and what has yet to come, will find the record of the great flood. "Audience" can experience the dynamics of life through objects that can be found in everyday life. "Orient silk" is an epic about the U.S. Dream's nomadic life through desolated Orient Silk. Transparent vinyl shown in 'InBetween_Seoul_2017' penetrates the boundary and delays the image. Finally, "world anecdotes" reveal a communicable life, not a coded, fixed one. Writers are moving in their own ways, escaping from universal homogeneity and being transferred to a new self-reliance class. As such, the works are unique and have diverse values as the expression of the self-reliance that the writer pursues. We will face the answers to their existential questions in a formative language.

2. Self-reliance is a person's manifestation of true self-existence through desire in life. That is to say, finding something

that is lacking while being satisfied. After all, desire is desire itself. The writer himself has energy by himself through desire, which is an artistic motive for creating visual images. Within a system oppressed by the epistemological structure, one cannot exercise one's own identity. Therefore, such a writer on their own identity in order to show a continuously strives to have and find one's roots from the artist's practical activities, Should be a representation across borders, and then real life. As such, reflections on one's essence shape one's own value system to create new values based on one's own unique view of the art world, and thus discover its existence as a subject, not as a batter.

In the Individuals and Groups section, the works that we are facing overlap with the hardened and generalized problems of the contemporary era, and the writer himself is re-locating the rest found inside as artwork. The problem of the author's new position is to create a new identity across individuals and groups, creating a new identity that is not the same as him.

3. In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 of the possibility of non-inclusion that exists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in order for an individual to exist as a principal, one must always move beyond the universality of the group to become one. And in order to realize this singularity, the writer must pursue a steady reflection on the differences beyond boundaries. Writers, as is well illustrated in their works, express their unusual origins of the art world from batter to subject, making us face the realization of a new attempt. The principal located between the boundaries is not attributed anywhere at any time, but lives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and exists with the uncommon idiosyncrasies that exist between.

Individuals are not the ones who play a role in the peculiarity of the work. Does not belong to any place and the specificity that can exist only in the space between the 30's, is not dependent on another is only possible expression only in the works of art, Presence of history. The reason for the subject in the work is that it does not stick in the group, but it does not make the same difference as the individual, and that is the possibility of a non-reducible existence. Through this exhibition, writers are talking through a variety of media, which has an unparalleled singularity and creates another subject through a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real world in overlapping spaces.

The possibility of the creation of new art due to Singularité is through artists' continuing reasons, and we will be able to read about the artistic practice of those who are motivated by their desire to cross the boundaries of the individual or group and escape the system that has been marked by the same social structure.

본인은 2008년부터 하이힐을 통해 현대소비사회의 대중의 욕망에 대해 작업해왔다. 본인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실제로 포착할수 없는 욕망의 기표로 하이힐을 선택했다. 하이힐은 '환상, 페티시즘, 나르시시즘, 표상성' 을 관통하는 현대소비사회의 오브제이다. 이를 토대로 본인은 이미지와 실재와의 관계, 강박과의 관계, 자아구성과의 관계, 그리고 동일시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이힐 작품을 통해 다루고 있다.

Since 2008, I have been working on the public desire of the modern consumer society through high heels. I chose high heels as a sign of my invisible desire. High heels are the objects of the modern consumer society that explore 'fantasy, fetishism, narcissism and representation'. Based on this, I continue to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and reality, obsession, self-organization, and identification with high heels.





Fantasy Transformer in SHARE THE FANTASY, D-프린트, 100×60cm, 2018
Fantasy Transformer in SHARE THE FANTASY, D-print, 100×60cm, 2018

앞뒤 두 장의 절대로 찢어질 것 같지 않는 두툼한 비닐과 그사이에 공기가 빠진 채 꼼짝달싹 못하게 고정되어 갇힌 물체들을 내가 접한 최초의 기억은 미군 씨레이션(C-ration)이었다. 군용 식량인 씨레이션속에는 진공 포장된 크래커, 초콜릿, 파운드케익, 애플파이 등 70년대 초반 상상조차 못했던 달콤한 자본주의가 들어 있었다. 진공 포장은 두 장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물건을 넣고 공기를 빼고 접합함으로써 물체의 보존과 유통기한을 연장 시킨다. 대량소비 사회에 최적화된 포장 방식일 것이다. 오늘날도 나는 진공 포장된 육류와 소시지와 과일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와 메모리칩을 소비한다. 진공 포장된 물체들은 그 색이 더욱 선명해지고 본래의 것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나의 소비적 욕망을 자극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가 매일 만나는 일상의 사람이나 대상이 플라스틱처럼 낯설어지고 만질 수 없고 뚫을 수 없는 투명 막 속에 갇혀 있는 이질감과 괴리감을 주기도 한다.

The first memory I encountered objects trapped tightly without air in between thick pieces of vinyl was C-ration. There was sweet capitalism in the US military C-ration, including vacuum packed crackers, chocolate, pound cake, apple pie, all of which could not even be imagined in the early '70s. Vacuum packaging extends shelf life by placing objects between two sheets of plastic film, deflating and bonding them. It may be a packaging method optimized for mass consumption society. Today I consume hard disks and memory chips as well as vacuum packed meats, sausages and fruits. Vacuum packed objects are more vivid and more colorful than the original ones, stimulating my consumption desires. But unfortunately, people and things I meet every day make me feel different and dissimilar like plastic.



ETW18_NK824, 디지털 C 프린트 사진, 152.4×101.6cm, 2019
ETW18_NK824, Digital C Print Photography, 152.4×101.6cm, 2019



MD19_A317, 디지털 C 프린트 사진, 152.4×101.6cm, 2019
MD19_A317, Digital C Print Photography, 152.4X*101.6cm, 2019

대상에 대한 나의관점은 재현과 독해 그리고 해석이다

작가가 추구해온 공간 과 시간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현실 공간을 이 작품에서 보여주려 하였다.

하나의 공간에 과거와 현대 그리고 나와 다른 작가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보았다.

I interpreted the subject by reproducing and reading it.

I tried to show the new meaning of space in reality and the space and time that I've pursued in my previous works.

Therefore, I created a space that shows the coexistenc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between me and another sculptor.



Space2019-idea, 강철, 설치, 2019
Space2019-idea, steel, installation, 2019



Space2019-idea, 강철, 60x25x25cm, 2019
Space2019-idea, steel, 60x25x5cm, 2019

동존- 세계일화

동존의 의미는 연기(緣起)에서 기인한다.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며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상호의존적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에서도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이거나 무생물이거나 서로가 유기적으로 관계하면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은 멀리 않는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체적 존재들은 자연의 순환질서 속에서 생겨남과 소멸을 통해 다른 모습으로 변화 할 뿐 생명의 원형질은 그 뿌리를 같이 한다.

Coexistence -A world flower

The meaning of co-existence comes from 緣起. Everything happens by cause and condition, nothing exists on its own, and is the result of a bond that is caused by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Even in the natural world we live in, we can see that even inanimate beings and inanimate beings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in an organic way.

Individual beings are born in the circulatory order of nature and change into different shapes through extinction, but the archetypes of life share their roots.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복합재료, 가변설치, 2016
Where come from and where to go, mixed media, flexible installation, 2016



세계일화, FRP, 채색, 가변설치, 2018
世界一花, FRP, colored, variable installation, 2018

인간의 '신체'는 물질이면서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살아있는 신체는 복잡한 유기물의 집합체로 자신과 자신 밖의 세계를 지각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이다. 무엇보다 복잡한 유기물의 집합체인 인간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살아간다. 관계를 연결하는 신체에 깃들여 있는 소중한 가치, 그것은 마음(mind)이다. 사람과 사람이 상호의존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작가는 마치 껍질을 벗은 신체, 몸의 부재 혹은 텅 빈 몸, 열린 신체이미지로 제시해 놓았다.

'두 개의 문'은 허상을 통해 진상을 보는 통로이다.

Human 'body' is a substance as well as a container for life. A living body is a collection of complicated organisms that are capable of perceiving themselves and outside of the world. Above all, human beings, a collection of complex organic matter, are living in a social network. The mind is the precious value which lies in the body connecting the relationships. Lee installs the human being living through interdependence among persons as a body peeled its shell, a lack of body, an empty body, or an open body image. The shapes of the human body produced by Wonkyung Lee give the impression of the skin-peeled bodies and they are the white figures in suits and blue eyed which can be the ultimate accomplishment.

'Two Doors' is the way to perceive the truth through the illusion.





두 개의 문, 폴리코튼, 나무판넬, 도색, 가변크기, 2016

Two doors, polycotton, wooden panel, colored, dimension variable, 2016

정경연 작가는 장갑을 이용한 섬유조형작품으로 섬유미술의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열었다.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실험적인 섬유조형 작업세계를 펼쳐온 정경연 작가의 작품은 낡고 오래된 시간 예술이 아닌 시간의 누적으로 농익은 창작의 결과였다. 일상에서의 무미건조하고 색 바랜 면장갑에 색을 더하고 말리고 찌며 다림질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하고 이를 캔버스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새로운 조형예술 작품이 제작된다.

인간의 손을 연상시키는 단순한 '장갑'이 섬유조형 작업을 거치면서 풍부한 표정을 담은 작품으로 재탄생하였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 감각은 흘러간 찰나의 것을 넘어 쌓이고 모여 빛을 발하는 섬유조형작품이 되는 것이다. 장갑의 본질적인 신체감각의 형태는 작품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거치면 충동적이고 과감한 표현에 도달한다. 서민, 노동자의 손을 따뜻한 '장갑'으로 어루만지는 정경연의 작품은 현대미술의 또다른 물질적 텍스처어를 극명하게 강조한 구조물이나 앳상블라주로 표현했다.

Artist Chung, Kyoung-Yeon opened the possibility of various expressions in fiber art with a fiber sculpture using gloves. Chung, Kyoung-Yeon's art works, which experimental fiber art work for nearly half a century, was the result of a creation that was not an old-time art, but a accumulation of time. After repeated work such as adding color, drying, steaming, and ironing to dull, faded cotton gloves in everyday life, a new sculpture art piece will be produced. A simple "Glove" reminiscent of a human hand, has been reborn as a work with a rich facial expression through the fabricating process. The artistic sense that the artist wants to express is to be a fabric piece that builds up beyond the fleeting and gathers together to shine. The essential form of body sensibility of gloves reaches an impulsive and bold expression through the process of being expressed as a work. Chung, Kyoung-Yeon 's work, which touches the hands of ordinary people and workers with warm "Glove" described modern art as a structure or atsangblazue that emphasized material texture of other contemporary art.



하모니+19-21, 캔버스에 혼합재료 & 혼합기술, 72,7x60cm, 2019
HARMONY+19-21, mixed media& technique on canvas, 72.7x60cm, 2019



가을이야기 2019-02, 캔버스에 혼합기술 & 혼합재료 & 염색한 면장갑, 45.5x53.0cm, 2019
STORY OF AUTUMN 2019-02, mixed technique & mixed media & dyed cotton gloves on canvas, 45.5x53.0cm, 2019

Schmitz reactivates waste by recycling found plastic bags into wind-activated sculptures. Collecting abandoned plastic bags, she re-forms them as windsocks, windbags, and pneumatic sculptures. Installed in different cities (Berlin, New York, Budapest, Hong Kong and others), they serve as three-dimensional, moving silverscreens for her videoprojections. Projected onto the half-transparent, moving surfaces, the videos take on a reality of their own and create a completely new variety of space – a new layer of reality on the intersection of a changing local urban everyday reality, documentation, video reality, and sculpture.

In Between shows images from the Mediterranean, creating deeply ambiguous impressions of leisure and drowning, referencing the recent refugee crisis, but referring in a much wider sense to the feeling of a life with access to privilege versus existence without privilege: About moving and breathing space as opposed to being closed off in an airless space, about options and empowerment as opposed to being reduced to struggle for the barest necessities of survival. It is about privilege and waste, abundance and misery, about geographic as well as social borders. It returns the city's waste to the citizens in the form of free, public art.

Schmitz는 자신이 발견한 비닐봉지를 바람에 의해 작동되는 조각작품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을 재활용화한다. 그녀는 버려진 비닐봉지를 모아 풍향계, 바람주머니 공기가 든 조각으로 다시 만든다. 각기 다른 도시들(베를린, 뉴욕, 부다페스트, 홍콩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은 그녀의 영상을 영사하기 위한 3차원적이고 움직이는 은막 역할을 한다. 반투명하고 움직이는 표면에 투영된 영상들은 그것들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여 완전히 새로운 공간적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이는 곧 변화하는 지역 도시의 일상적 현실, 문서화, 영상 현실 및 조각의 교차점에 있는 새로운 층의 현실이다.

지중해에서 찍은 <In Between>은 레저와 익사에 대한 매우 모호한 인상을 주며 최근의 난민 위기를 언급하지만, 특권 대 특권이 없는 존재에 대한 접근과 함께 삶의 느낌을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공기가 없는 닫힌 공간과 대조되는 움직이고 숨쉬는 공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들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과 대조되는 선택과 권위, 그리고 특권과 낭비, 풍요와 비참, 지리적 및 사회적 국경들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도시의 쓰레기를 자유롭고 공공적인 예술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InBetween_NYEllisland, 사진, 2016
InBetween_NYEllisland, photograph, 2016



InBetween_Seoul, 사진, 2017
InBetween_Seoul, photograph, 2017

In a remote future after Anthropocene -humankind became extinct hundreds of years before- fictitious PHASO scientists present their research results to an intelligent post-human world population. The Deluge/ 대홍수/ Die Flut reveals the finding that there must have been some intelligent life on earth before. The last human being on earth saved a digital video to remember the humans and the story of their doom. The spectator is shown subjective- surrealistic and philosophical thoughts about the end of human beings, mixed with images of the megacity Seoul as ultimate expression of Anthropocene, and images of “abandoned places” which stand for the time after the disappearance.

인류세(Anthropocene) 이후 먼 미래에 - 인류는 수백 년 전에 멸종하게 되었다- 가공의 PHASO 과학자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를 지적인 포스트-휴먼 세계의 사람들에게 발표한다. Duge/대홍수/Die Flutt는 이전에 지구상에 지적인 생명체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지구상의 마지막 인간은 인간과 그들의 파멸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 디지털 비디오를 저장해두었다. 관람자는 인류세에 대한 궁극적 표현으로서 거대 도시 서울의 이미지와 소멸 후의 시기를 상징하는 “버려진 공간”의 이미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에서, 인류 종말에 대한 주관적이고 초현실적이며 철학적인 사고를 보게 된다.





대홍수, Original Full-HD, 28분 29초, 2014
The Deluge(Die Flut), original full-HD, 28m 29s, 2014

Weixin Quek Chong

Footbound is a video piece combining the movements of feet under latex with fourteen lines excerpted and recombined from the poet Sappho. Blending the spectre of the desired, desirer and desire with a cadence of laboured breath and insomnia-counteracting deep sea ASMR sounds.

*'Lotus foot' was an epithet given to the 3-inch and above bound foot- result of the foot-binding practiced in Chinese culture for well over 9 centuries. An intimately brutal violence enacted within families by women on female young, the extreme nature of this practice did not stop it from being widely normalised in Chinese society, with economic, aesthetic, cultural and disciplinary reasons provided for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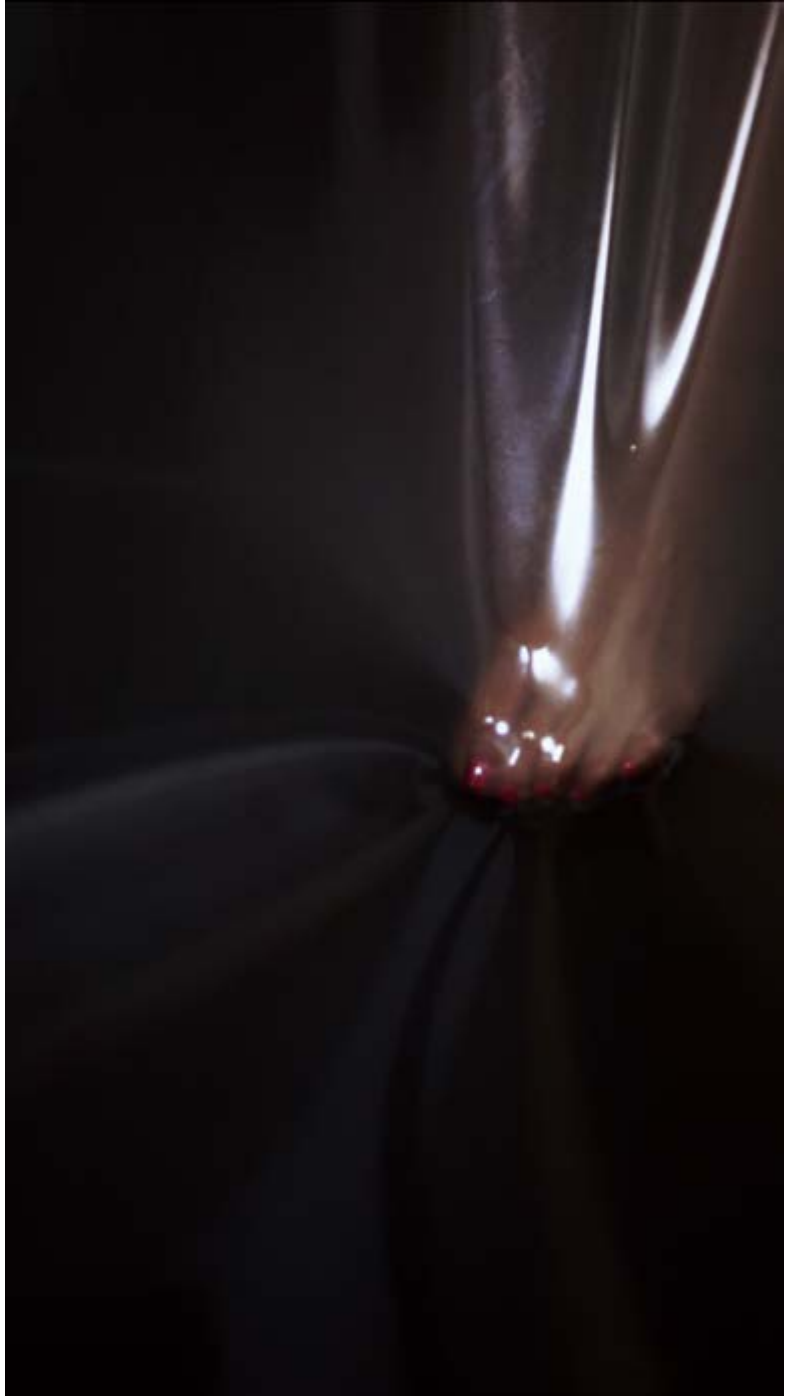
*Vacuum bondage makes use of the particular qualities of latex to create a pressure-sealed experience around the body, both immobilising and compressing. In this heightened state, the bound subject becomes unusually alert to their senses, and breathing can sometimes become a laboured effort. It should never be undertaken alone.

<전족>은 욕망의 대상, 욕망하는 자, 욕망의 스펙트럼을, 고된 호흡을 지닌 억양과 불면증을 일으키는 깊은 바다 ASMR의 소리와 혼합하고, 라텍스 밑에 싸인 발의 움직임과 사포의 시로부터 발취하여 재조합한 14행 시를 결합한 영상 작품이다.

'연꽃발'은 중국 문화권에서 9세기 이상 행해진 3인치 혹은 그 이상의 묶인 발에 붙여진 표현이다. 가족 내에서 여성들에 의해 소녀에게 행해진 친밀하지만 잔인한 폭력, 이 관습의 극단적인 본성은 그것이 중국 사회에 널리 정상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그것에 대한 경제적, 미학적, 문화적, 규율적 근거들이 제공되었다.

진공 결박은 몸 주위에 압박-밀폐된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정하기와 압축하기라는 라텍스의 특정 속성들을 이용한다. 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묶인 주체가 그들의 감각에 유난히 경각심을 갖게 되고, 호흡은 때로 노고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혼자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footbound, 영상, 8분, 2019
footbound, video, 8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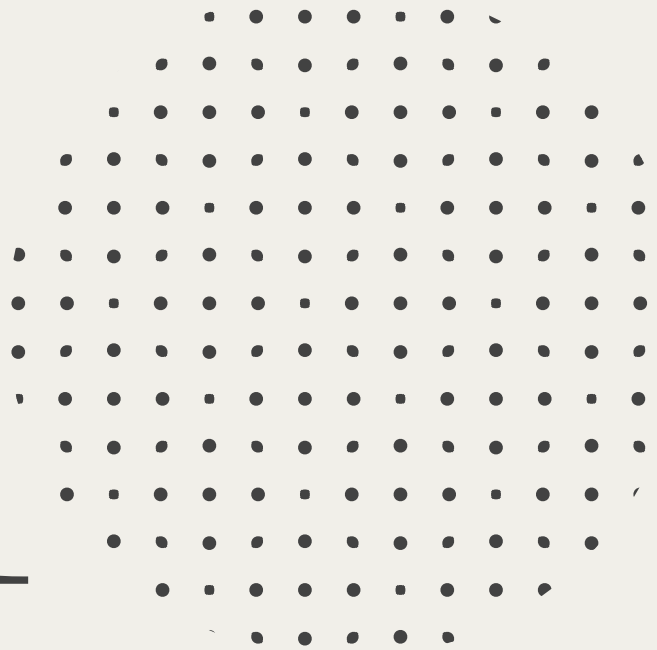
Oriental Silk explores the worldview of Kenneth Wong, the owner of the first silk importing company in Los Angeles: how his parents, first-generation Chinese immigrants, realized the American dream through the store; how the once legendary store's fortunes rose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Hollywood entertainment industry, then fell with the proliferation of cheaper silk in the new global economy; and about his deep feelings for the shop, its history, and its future. Through his worldview, the beauty of silk and its wondrous craftsmanship stand for all those human pursuits that link people and places – and provide purpose – across time and borders.

오리엔탈 실크는 로스앤젤레스 최초의 실크 수입 회사 소유주인 Kenneth Wong의 세계관을 탐구한다. 그의 부모, 즉 1세대 중국 이민자들이 가게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한때 전설적인 이 가게의 운명은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어떻게 상승하였는지, 그리고 나서 새로운 글로벌 경제에서 값싼 실크의 확산과 함께 어떻게 몰락하였는지; 그리고 이 가게와 그것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그의 깊은 감정에 대해. Kenneth Wong의 세계관을 통해, 실크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운 장인 정신은 시간과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과 장소를 연결하고 목적을 제공하는 모든 인간적인 추구를 상징한다.





Oriental Silk, 싱글 채널 필름, HD 비디오, 컬러, 유성, 30m, 2015
Oriental Silk, single-channel film, HD video, color, sound, 30m, 2015



권력과 난민 사이

권력과 난민 사이

이재걸 | 미술비평

“감옥이 공장이나 학교, 병영이나 병원과 흡사하고,
이러한 모든 기관이 감옥과 닮은 것이라 해서
무엇이 놀라운 일이겠는가?”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 1975)』

권력, 역사, 현대미술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우리 정체성이 발산하는 모든 내적·외적 면모들을 권력 관계의 결과로 이해한다. 그가 말하는 권력이란 사회관계 전체에 스며있는 ‘힘의 흐름’으로서, 개인이나 집단 어느 한 곳에 귀속되어 도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아우르고 이끄는 근원적인 힘에 가깝다. 그래서 푸코 철학 안에서 권력은 반드시 지배와 연관되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다. 권력은 개인들이나 제도적 기구들의 손에 의해 독점되거나 소유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 자체의 존재감으로 우리의 생각까지 구조화하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권력은 수직적 방식으로만 작동하지 않으며, 사회적 권력의 일차적 표현 중의 하나인 지배도 계급 관계의 형태를 띠지 않지만, 권력의 복잡한 작동이 계급 관계라는 단일 요소로 쉽게 환원될 수는 없는 것이다. 투쟁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수립하고, 그 지식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넓은 지식과 지엽적인 기억의 결합을 추구하며 권력의 계보(系譜)와 계도(系圖)에 관한 진위를 밝히는 데에 몰두했던 푸코에게 권력의 모양새는 그것의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다양한 사회적 층위 안에서 인식된다. “사물은 어떠한 본질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철학자에게 권력은 권력의 사전적 혹은 사변적 정의(定義)를 뛰어넘어서 사회의 촘촘한 관계망을 끝없이 양산하는 ‘힘의 작용’이자, 그 관계망의 ‘구조 자체’인 것이다.

현대 미술가들도 바로 이러한 권력의 본성에 주목한다. 이들은 권력을 현실적·정치적인 것에서 역사적·문화적인 것으로 확장하여 이해하고, 나아가 권력 구조를 존재론적 사유와 연관하여 파악한다. 집단이 표상하는 바와 개인이 표상하는 바가 서로 맞부딪히면서 생겨난 강렬한 괴리감 안에서 권력의 심층적인 구조는 삶과 예술을 통합하려는 현대미술의 주요 탐구 대상이 되었다. 현재의 의미를 구축하는 권력의 작용, 사회의 담론을 제공하는 권력의 작용, 제도와 개인의 상호관계를 구조화하는 권력의 작용... 이 모든 권력의 작용에 대한 성찰은 현대미술의 비판적 면모를 더욱더 날카롭게 다듬었다. 오랜 시간 동안 미술의

메세나(Mécénat)를 자처했던 권력의 요구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선언한 미술가들은 인간성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을 권력의 복잡한 메커니즘 안에서 찾는다. 때로는 투쟁의 방식으로, 때로는 탈주(脫走)의 방식으로 말이다.

부유(浮遊)하는 자, 이미지를 잃은 자, 탈주하는 자

자본주의 시대에 최고의 권력은 자본이다. 도시의 삶은 자본의 힘에 기댄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다. 자본은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이 이미지는 다시 자본을 만들어 낸다. 오늘날의 이미지는 죽지 않는다. 자연의 이미지들이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죽어 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편적인 위안을 주는 것과는 달리, 이 이미지들은 인간이 잠드는 동안에도, '나'의 소멸 이후에도, 견제하게 그 빛을 발산한다. 절대 죽지 않음으로 그것들은 본디 죽은 것이다. 그것들은 죽음을 망각한 빛이며, 생명을 모방한 어둠이다. 우리는 모두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가상의 실재'이다. 기계적으로 복제된 이미지라는 죽은 것들의 화려한 현전, 이미지라는 가상의 '절대적인 특수', 이 매력적인 유토피아적 발상은 권력과 자본주의의 얼굴이 되었고, 도시는 이미지의 풍요를 담는 거대한 용기가 되었다. 도시는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 주체인 개인의 삶은 권력과 자본의 힘에 기꺼이 종속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치밀한 지도 위에 서 있으나 부유하고 있으며, 풍요를 입은 채 혈벗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술사학자 최종철은 모습을 잃은 사람, 이미지를 잃은 사람, 무슨 일을 당해도 흔적이 남지 않는 '벌거벗은 삶(la nuda vita: Giorgio Agamben)'을 '난민(難民)'이라고 부른 바 있다. 여기서 난민이라 함은 단순히 '나라를 잃은 사람'에 한정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 곳을 잠식당하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된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된 사람에게 가해지는 사회의 악행이 누군가에게 보일 리는 만무하다. 인간성이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좌절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성에 대한 논의가 일상의 계획 뒤편으로 밀려난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미지의 세계로부터 '이미지를 잃은 자', 도시의 욕망으로부터 순수한 욕망의 선택권을 잃은 자.., 분명한 점은 이 '난민'의 진정한 리얼리티가 권력과 도시의 풍요가 가리키는 곳과는 정반대 편에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삶을 거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외적 풍요에 대한 진지한 각성은 삶의 주도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도시적 기능의 틈을 파고드는 미술가들은 이 점에 천착한다. 상품과 건축과 디지털 공간 사이를 유령처럼 떠도는 '나'의 혈벗은 이미지는 '나'의 주체적 사건을 기획하며 극복하려 하고, 도시의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공간은 '시각이 돌아다니는 세계'의 참신한 유동성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 이 미술가들은 특정한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가며 창조적인 행위에 바탕을 둔 삶을 제안하는 '노마드(Nomad, 유목민: Gilles Deleuze)'이다. 이들의 작품은 고정된 가치를 버리고, 고지식한 권력에 의해 이미 정해진 듯한 기성의 삶을 부정하는 방식을 포착한다. 노마드는 동일성을 피하는 것에 만족하는 데 그치고 마는 '도주'의 퇴행(退行)도 아니고, 현실에 가하는 냉소적 폭력도 아니다. 권력이 주도하는 '힘의 작용'으로부터 비껴나는 노마드의 각별한 철학적 의미는 새로운 차이를 생성하는 '탈주'의 역행(逆行)에 있는 것이다. '탈주하는 난민'은 그렇게 제한된 운명에 처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갱신할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와 지향(志向)을 획득할 수 있다. 죽지 않는 이미지를 영원히 소유할 필요도 없고, 이미지를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필요도 없다. 노마드에게 이미지는 단지 살아있는 이미지라는 촉진의 상태와 이미지에 대한 순수한 욕망 자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미지에 둘러싸인 현실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척해야 할 곳이 된다. 과도한 해석을 피하고 보더라도, 이는 우리라는 영혼에 일어나는 꽤 흥분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Between Power and Refugees

Lee, JaeGeol | Art Critic

"The prison is similar to a factory, a school, a army, or a hospital;
All of these institutions are similar to prisons.
What would be surprising?"
- Michel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1975."

Power, history, and contemporary art

Michel Foucault(1926-1984) understands all the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of our identity as a result of the power relationship. The power he refers to is the 'flow of power' that permeates the entire social relationship, not acting as a tool in any one individual or group, but as a fundamental force that encompasses and leads society as a whole. So within Foucault's philosophy, power is not necessarily a passive concept associated with governance. Power cannot be monopolized or owned by individuals or institutional institutions, rather it is a social phenomenon that structuralizes our thinking with its existence. Power does not work vertically only, and governance, one of the primary expressions of social power, can take the form of class relations, but the complex operation of power cannot be easily returned to a single element of class relations. For Foucault, who was bent on establishing a historical knowledge of struggle, pursuing a combination of broad knowledge and nonessential memories that made him strategically use it, and revealing the truth about the genealogy and genealogy of power, the shape of power is recognized within as diverse social strata as the complex structure. For the philosopher, who says "things don't have any substance," power is the "act of force" that goes beyond the dictionary or dialectical definition and creates an endless network of close relationships in society, and the "structure itself" of the relationship.

Contemporary artists also note the nature of these powers. They extend power from realistic and political to historical and cultural and further understand the power structure about existential reasons. The deep-seated structure of power became the main object of modern art to integrate life and art amid the intense gap between what the group and what the individual's example. The act of power building the present meaning, the act of power providing the discourse of society, the act of power to structure the system and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individual. The reflection of all this power has sharpened the critical aspect of modern art. Artists who have declared complete independence from the demands of power, which have long sought to be the Mécénat of art, seek another dimension of approach to humanity within the complex mechanism of power. Sometimes in a way of struggle, sometimes in a way of escape.

Floating Man, Invisible Man, Fugitive man

In the age of capitalism, the best power is capital. City life is full of images leaning against the power of capital. Capital creates an image, which in turn generates capital. Today's image doesn't die. Unlike the images of nature that grow with us and die with us and give us universal comfort, they emit their light even while humans are asleep, even after the disappearance of "I." By never dying they are already dead. They are the light of oblivion to death, the darkness imitating life. We all seem to own, but it's a 'real-life' that no one can own. Before the glitzy eyes of dead things mechanically reproduced images, the fictional "absolute speciality" of images, this charming utopian idea has become the face of power and capitalism, and the city has become a huge courage to contain the richness of images. Cities promoted consumption, and the lives of individuals who were the main consumers were willing to depend on the power and the power of capital. So we can say that we stand on the elaborate map of the city, but are rich and naked in luxuries. Art historian Choi Jong-chul once called "La nuda vita: Giorgio Agamben" a "Refugees" who has lost sight, lost image and no trace of anything. The term refugee here is not just for "the man who lost the country," but for the man who lost his place and became invisible. There is no society's evil in sight that can be seen by anyone. In a society where humanity is constantly threatened and frustrated, it is enough to know that the discussion about humanity has been pushed to the back of everyday planning. Someone who "lost his image" from the world of images and someone who has no choice of pure desire from the desire of the city... the true reality of "Refugees" i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power and urban affluence point.

Today it is almost impossible for us to reject the elastic and flexible life of capitalism, but a serious awakening of external affluence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life's initiative. Artists who delve into the functional gaps of society and cities note this point. The naked image of "I" floating ghostly among goods, architects and digital space seeks to overcome by planning the self-reliance event of "I," while the space of a high-handed, uniform city seeks to overcome through the fresh liquidity of a "world of sight." They are 'Nomad(Gilles Deleuze)' who constantly change themselves without resorting to a certain way of life and suggest a life based on creative behavior. Their work discards fixed values and negates a life of miracles, which seems to have already been set by an honest power. Nomad is not a retreat from "run away" that is content to avoid identity, nor is it a cynical violence inflicted on reality. The special philosophical meaning of those who are sidestepping from the power-led "action of force" lies in the reverse of the "exitment" that creates a new difference. The "escape refugee" can renew his image despite being such a limited fateful person, and acquire positive change and direction. You don't have to possess an image that doesn't die forever, nor do you have to translate the image into material value. For "escape refugees," the image is merely a condition of promotion of living image and a pure desire for image itself. Surrounded by images, the reality is not so given but a place to explore. Avoiding over-interpretation, this is a fairly exciting event that happens to our souls.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세계에는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한다. 그것은 대립되거나 혹은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의 병존으로서 애매모호한 그리고 양가적인 혹은 다의적인 것으로 양가성이라 말한다.

나는 이러한 질서가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소통하며, 이분법적인 도식을 해체하고 극복함을 보여주면서, 양가적인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여 그 경계를 넘어 새로운 의미의 가능성을 얻기를 희망하며 작업한다.

AmBivalent II (2018)는 '헨리 4세(Henry IV)'라는 소재목을 갖는 작품으로 권력이 갖는 양가성의 이항 대립구도를 보이기 위하여 실제 금과 금색의 아크릴, 금가루 등 금색이지만 금은 아닌 것을 역설적으로 병치하여 적용하였다. 역설적 병치는 왕관의 치졸함, 연민 등이라는 권력의 무상함을 표상하려 시도하였다.

Within the society we live in, there is an invisible order behind things. It is called ambivalence. This indicates equivocal coexistence between incompatible things.

My art works are intended to show that the order of ambivalence could make two incompatible things pose values on each other;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smantle and overcome dichotomy. Doing so, I would like to let people fully understand value of ambivalence and find meanings beyond it.



AmBivalent 2-1, 캔버스에 혼합재료, 72.7 x 72.7cm, 2018
AmBivalent 2-1, mixed on canvas, 72.7 x 72.7cm, 2018



AmBivalent 2-2, 캔버스에 혼합재료, 72.7 x 72.7cm, 2018
AmBivalent 2-2, mixed on canvas, 72.7 x 72.7 cm, 2018

이 작업은 본인의 도시탐구 프로젝트인 <워킹시티 프로젝트>(2014~)을 위한 것이며, 프로젝트의 내부 갈래로 만들어진 “감히 말할 수 없다” 시리즈 중의 하나이다. 앞의 프로젝트는 산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대화한 서울을 탐구한다는 목적을 지닌다. 그 안에서 “감히 말할 수 없다”는 방문지역의 잦은 접촉에서 생겨난 무의식의 발로를 실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작업은 산책자의 오감이 겪은 것, 정서적인 느낌, 상상력 등을 수거한 일종의 감각 지도이다. 본 작업을 위해 방문한 지역은 충정로(서대문)와 무악재이다.

This work is for my city study project, 'Walking City Project'(2014-), and it's internal part, "Wonderful Land". The previous project aims to explore modernized Seoul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flâneur. In it, "Wonderful Land" is to experiment on the works of unconsciousness which result from contact with the visiting area. This work is a kind of sensory map that collects the flâneur's senses experiences, emotional feelings and imaginations etc. The areas connected with this work are Chungjeong-ro (Seodaemun) and Muakjae.





HS4-볼다이렌, 콜라주, 잡지, 천, 오브제 트루베, 나무, 아크릴, 35x45cm, 2017
HS4-Boldairen, collage, magazine, fabric, objet trouve, wood, acrylic, 35x45cm, 2017

본인은 실재를 전유하고 재전유하는 과정을 전략적 방법으로 삼아 문화·예술 권력을 비판하며, 현대적 주체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조형적인 형태로 표현하기를 시도한다.

I use the process of appropriating and reappropriating reality as a strategic way to criticize cultural and artistic powers, and attempt to express the psychological pain and anxiety of modern subjects in a formative form.



The silence of Angel, FRP, 스테인리스 스틸, Car paint, 가변설치, 2019
The silence of Angel, FRP, stainless steel, car paint, variable installation, 2019



Mickey, F.R.P, 스테인리스스틸, 아크릴 거울, 우레탄 페인트, 홀로그램 필름 외, (Mickey) 160x120x170cm, (좌대) 60x60x90cm, 2019
Mickey, F.R.P, stainless steel, acrylic mirror, urethane paint, hologram film etc, (Mickey) 160x120x170cm, (pedestal) 60x60x90c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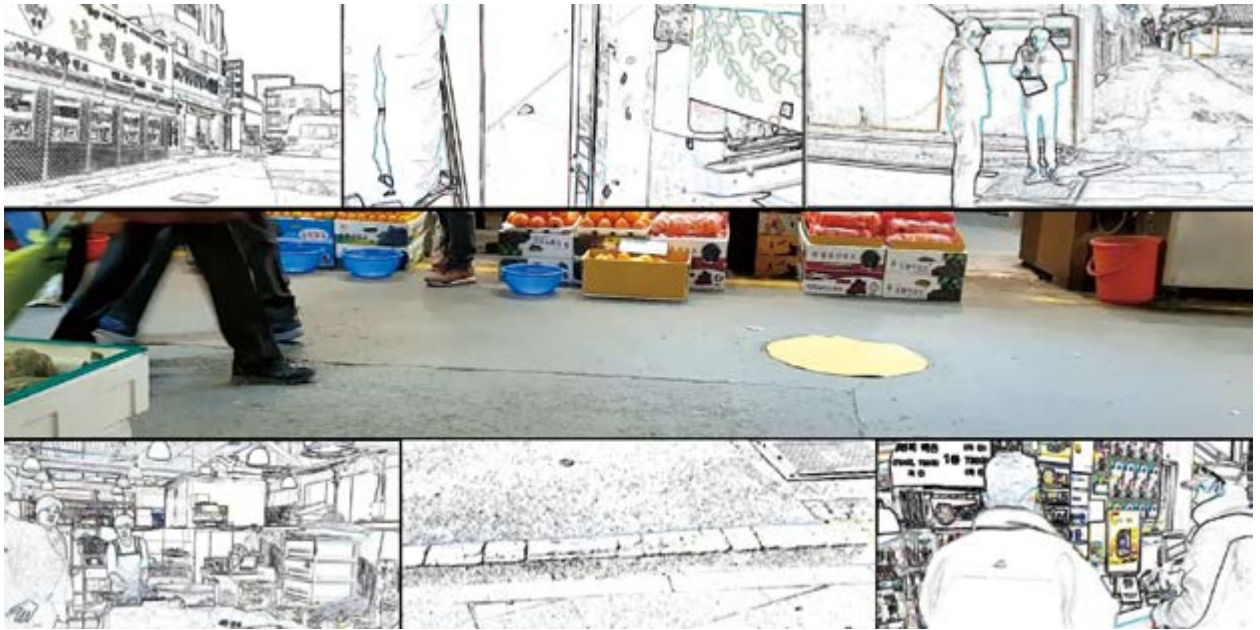
오고 가고 걸어가는 사람들...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영상과 우리일상 생활의 모습을 같이 보여줌으로서

각 각의 다양한 삶과 방향과 걸음의 다양함을 영상으로 표현하였다.

people coming and going by showing the image of the steps of the people walking and the image of our daily life together I expressed the various life, direction and various steps of each angle with the image.





We, 영상, 30초, 35x25x5cm, 2019
We, video, 30s, 35x25x5c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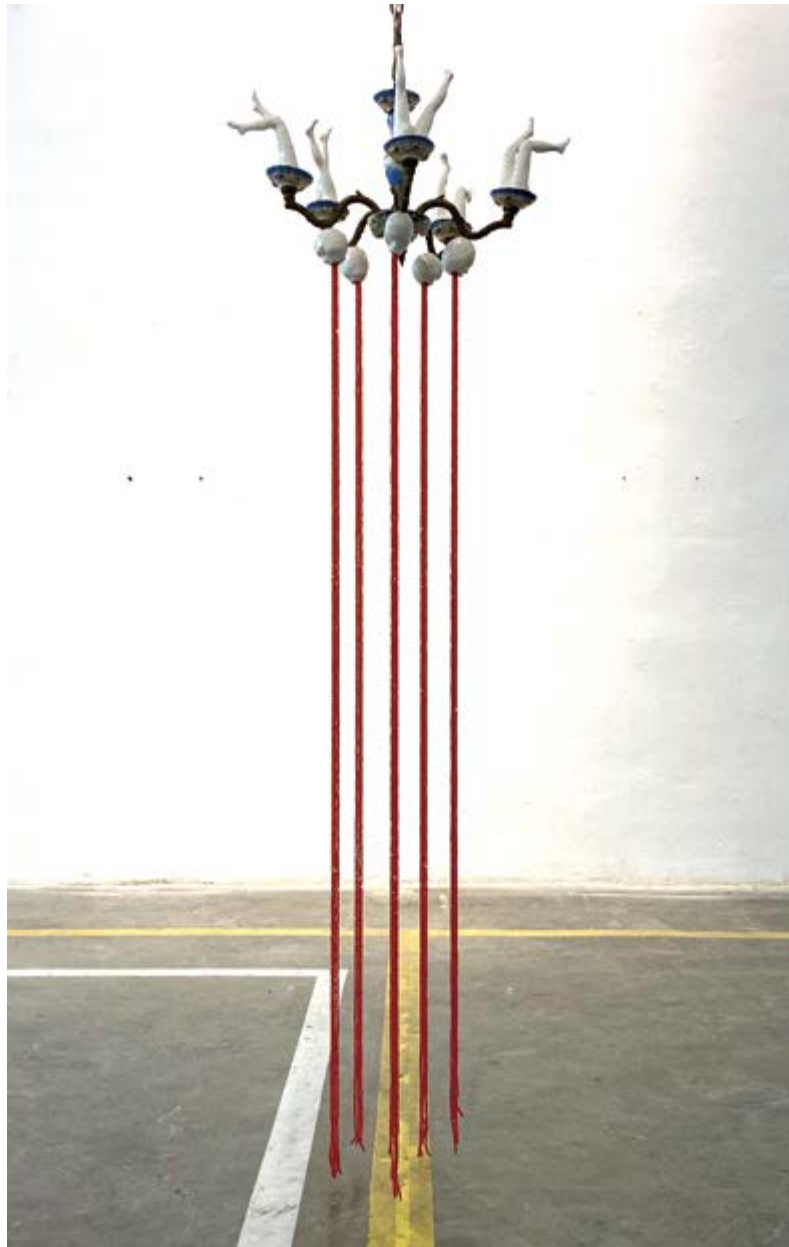
“인간정신은 신체가 자신에게 살짝 열어 놓은 문을 향해 그의 기억의 총체와 함께 밀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거기서부터 환상의 놀이들과 상상력의 작업이 유래한다.”

-앙리 베르그손 <물질과 기억>

“It would seem that the human mind ceaselessly presses with the totality of its memory against the door which the body may half open to it: hence the play of fancy and the work of imagination so many liberties which the mind takes with nature.”

-Henri Bergson, Matter and Memory





Falling into the rabbit hole-Five stories, 혼합재료, 특정공간 가변설치, 2019
Falling into the rabbit hole-Five stories, mixed media, site-specific installation, 2019

도시의 풍경에서 느껴지는 이질적인 감각이 가장 증폭되고 다양한 기호적 의미들이 뒤죽박죽 얽혀 있는 재개발 현장이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의 순환을 드러내는 작품의 주된 배경으로 어떻게 재해석 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I hope that the redevelopment scene where the sense of heterogeneity felt in the urban landscape is amplified and the various symbolic meanings are intertwined with each other is an opportunity to see how it is reinterpreted as the main background of the work that reveals the cycle.



Neon moving, 피그먼트 프린트, 90x180cm, 2019
Neon moving, pigment print, 90x180c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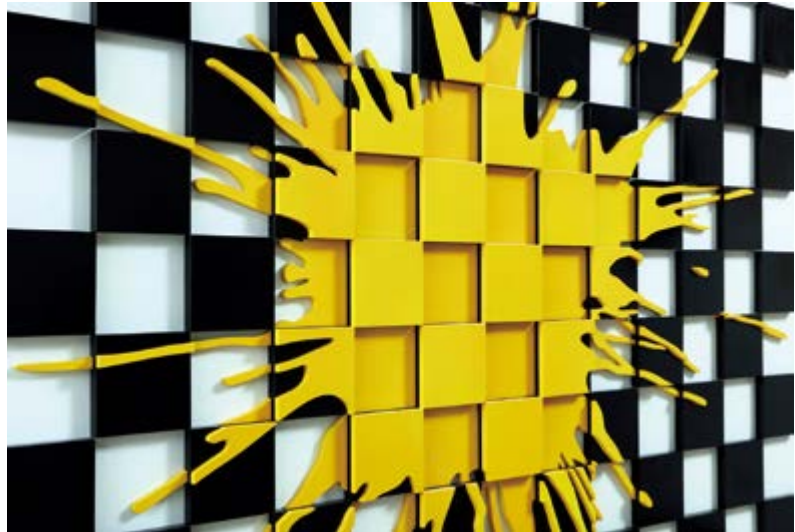
Neon moving, C-프린트, 112x160cm, 2018
Neon moving, C-print, 112x160c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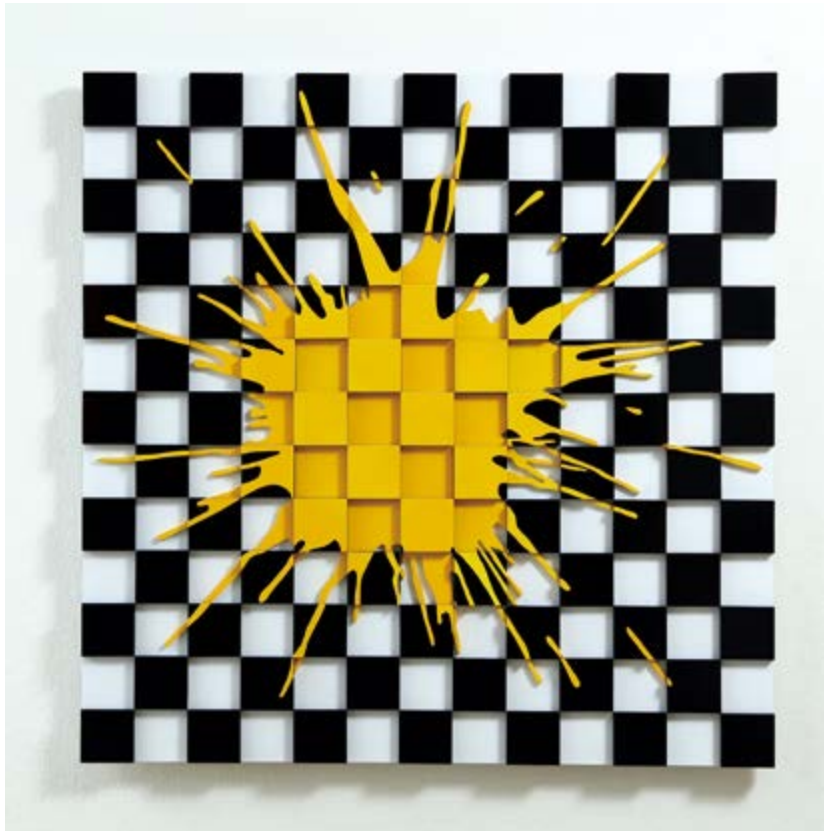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 (Friedensreich Hundertwasser)

어떤 규칙이나 시스템이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순 있으나 정신적 안정과 풍요로움은 제공하지 않는다. 결벽증환자의 방에서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There is no straight line in nature- Friedensreich Hundertwasser

Even though a principle or a system can bring comfort, it does not provide psychological stability and richness. It is terrifying to live in a room of a mysophobia patient.





Yellow bomb, 알루미늄, 우레탄 페인트, 930x930mm, 2018
Yellow bomb, aluminium, urethane paint, 930x930mm, 2018

Walking through the city, the landscape, through the past and being here and now at the same time.
Shaping new memories,
exploring new cities,
surrounded by languages,
people,
situations.
Footage from various sites when wandering around exploring the surroundings.

도시, 풍경, 과거를 지나 지금 이 자리에 동시에 서 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서,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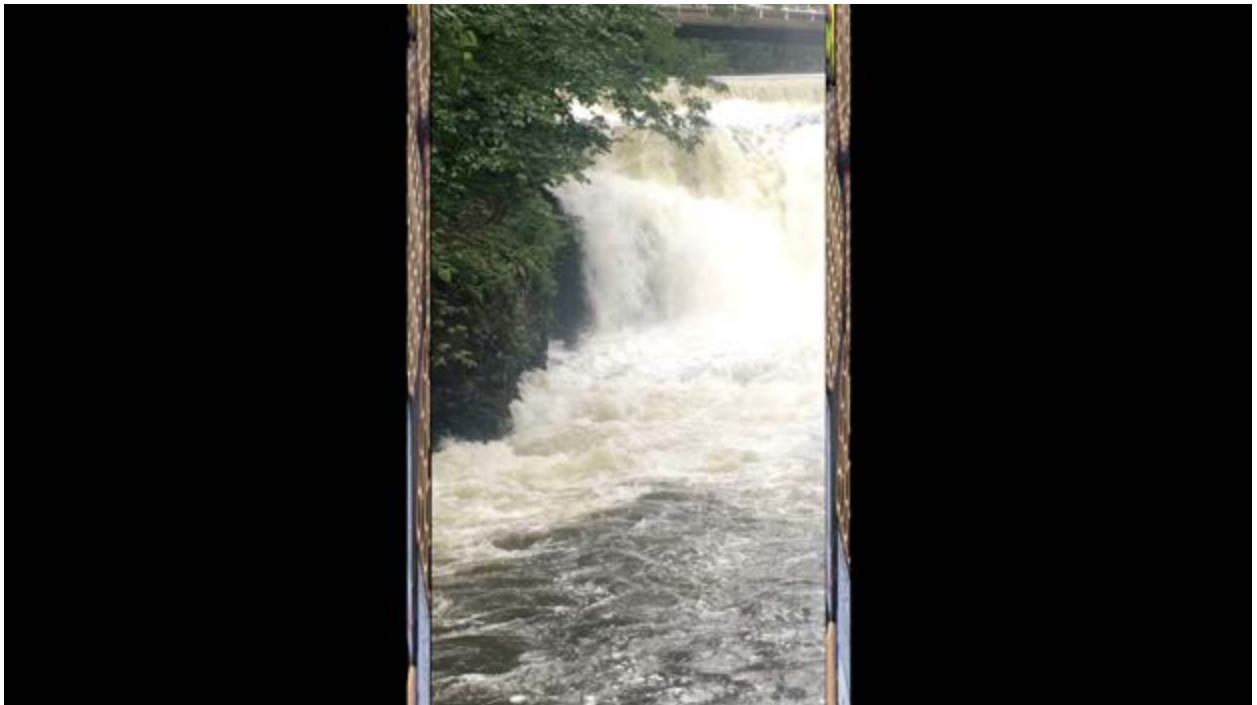
언어들에 둘러싸여,

사람들,

상황들.

주변을 둘러보며 돌아다닐 때 여러 곳에서 생기는 발자국.





one place after another (walking memories), 영상, 4분 33초, 2019
one place after another (walking memories), video, 4m 33s, 2019

Riccardo Matlakas

Matlakas, with the help of locals, created pyjamas for the T-34 tank in front of History Museum of Kharkiv, Ukraine. The action involved the creation of a fake permission document, the creation of extra large pyjamas for the original T-34 Tank from the 2nd world war and the operation of dressing the tank, which lasted 2 hours.

The aim of this performance was to cathartically change the image of a tank, wanting war to fall asleep so that peace can be awakened. Matlakas explains the choice of the pyjamas' patterns and more details on a TV interview to UA:

Харків, a local Tv Channel in Kharkiv, Ukraine. The interview can be found online:

The Tank performance and Pyjamas was acquired by The museum of Modern Art in Odessa.

Matlakas는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 하르키브 역사박물관 앞에 T-34 탱크를 위한 파자마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위조 허가 서류를 만드는 일, 2차 세계대전 당시 T-34 탱크 원형을 위한 대형 파자마를 추가로 제작하는 일, 그리고 2시간 동안 탱크에 옷을 입히는 일 등도 포함됐다.

이 퍼포먼스의 목적은 평화를 깨울 수 있도록 전쟁이 잠들기를 바라면서, 탱크의 이미지를 카타르시스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Matlakas는 이날 우크라이나 하르키브에 있는 현지 TV 채널인 UA와의 TV 인터뷰에서 파자마의 패턴 선택과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인터뷰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탱크 퍼포먼스와 파자마는 오데사의 현대 미술 박물관에 의해 인수되었다.





Pyajamas Party, 퍼포먼스, 14분 01초, 2018
Pyajamas Party, performance, 14m 01s, 2018





파리대학 팡데옹-소르본느에서 예술학 박사를 거쳐 97광주비엔날레 유럽 담당 큐레이터, 영은미술관 부관장, 2007년 인천여성비엔날레 커미셔너, 세오갤러리 디렉터, 예술의전당 전시예술감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책임위원, 국립현대미술관 평가단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전공, 문화예술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세종대왕, 한글문화시대를 열다」 전시 속 홍순명, 정연두&이지원 작품을 통해 본 사고의 충돌, 「현대미술 안의 비물질개념과 동양정신의 관계연구」, 「국제동시대미술전의 협업 매커니즘 연구」, 「젊은 작가들의 경향으로 살펴본 오늘의 미술연구」, 전시기획으로 「U.S.B전(예술의전당)」 등이 있으며 비평가와 전시기획자, 그 밖에 국공립기관의 운영자문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화부장관상 2회(2014, 12. 31), (1998.5.27.), 외교부장관상(2014, 9, 30)

She earned her doctorate of art studies at Pantheon-Sorbonne of Paris 1 University, and served as the curator for Europe at the 97 Gwangju Biennale, deputy director of the Young-eun Art Museum, commissioner of the Incheon Women's Biennale in 2007, director of the Seo Gallery, exhibition art director at the Seoul Arts Center, responsibility member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s Council, and chief evaluation director of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of arts planning and culture and arts at the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Her representative papers include "The Conflicts of Thinking Through the Works of Hong Soon-myung, Jeong Yeon-doo and Lee Ji-won in the Exhibition 《King Sejong, Opens the Age of Korean Cultur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Concept and Oriental Spirit in Contemporary Art", "A Study on the Collaborative Mechanism of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Contemporary Art" and "Today's Art Research through the Trends of Young Artists" She has organized the U.S.B. exhibition and is active as a critic and exhibition planner, and in the field of operational advice for state-run organizations. The Minister of Culture Prize twice(31, Dec 2014)(27, May 1998),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rize(30, Sep 2014)

홍익대 미학과 대학원에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의 기술(Technik)>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익대, 상명대, 한남대 등에서 미학과 대중문화 및 예술이론을 강의해왔다. 2012년 카셀 도큐멘타에 미술세계 리포터로 다녀오면서 생태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 2013년 생태미학예술연구소를 발족하였고 <지속가능한 도시-꽃>전시 시리즈를 기획했다. 2017년 한국화학연구소 주관으로 기후변화대응 화학예술특별전 <화성에서 온 메시지> 국제전 감독을 역임했다. 저서로 <대중문화와 미술>(미진사, 2014)가 있으며, 공저한 저서 <인공지능시대와 예술>(도서출판 b, 유현주 엮음, 2019)이 출간될 예정이다.

She earned her doctorate from the Graduate School of Aesthetics at Hongik University for “Technik in Adorno’s Aesthetics.” She has lectured on aesthetics, pop culture and visual art theory at Hongik University, Sangmyung University and Hannam University. In 2012, she became interested in ecological aesthetics while working as a reporter for the art magazine Art World in Kassel Documenta, and in 2013, launched the Ecological Aesthetics and Art Institute and organized exhibition series <the Sustainable City-Flower>. In 2017, she served as general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A Message from Mars>, the Chemical Arts Special Exhibiti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under the auspices of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She wrote the book titled "Popular Culture and Visual Art" (Mijinsa, 2014) and the co-authored book titled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 (book publishing b, ed. Yu HyunJu, 2019) will be published.

홍익대 예술학과와 대학원에서 예술학을 전공했고, 연세대 철학과에서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미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후 연수 과정을 거쳐 학위 논문을 체계적인 예술론으로 확장한 미학서 예술은 『어떻게 거짓이자 진실인가』, 『느낌의 미술관』을 출간했다. 현재 대학에 출강하며 전문적인 미학·예술학 연구와 예술 교양서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미학의 미래를 고민하며,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일어난 중대한 사상적, 문화적 전환들을 담아낼 수 있는 예술 식별 체계를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다.

He majored in art at Hongik University and in graduate school, and earned his doctorate in a paper that reinterpreted Whitehead's philosophy from an aesthetic point of view in the philosophy department of Yonsei University. He published "How Art Is a False and True", "Art as feelings" an aesthetic book that expanded his dissertation through post-doctoral training and into systematic art theories. He is currently teaching at the university, and is studying aesthetics and art studies and working on educational books of art at the same time.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aesthetics, he is engrossed in creating an art identification system that can capture the significant ideological and cultural transitions that have taken place since postmodernism.

서울대 미학과에서 미학과 미술이론을 전공하였고, 현대미술과 숭고미학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우리의 삶에서 미술이 무엇이었고, 무엇이며, 또 무엇이면 좋을지에 대해 아카데미와 미술현장을 오가며 고민하고 있으며, 고민의 결과를 글과 강의로 풀어내고 있다.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현재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학과에서 미학과 미술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She majored in aesthetics and art theory in the dept. of aesthet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ot the Ph. degree on the aesthetics of the sublime and the contemporary art. Respecting on what art was and is and would be in human life, acting in the academy and the field of visual art, she writes and teaches on art and aesthetics. She has given lectures at SNU, Hongik Univ., MMCA, LEEUM, Nam June Paik Art Center, etc., and now teaches aesthetics and art theory at Cha University Dept. of Art Therapy.

파리 13대학에서 전시개념 전문가과정을 공부하고, 홍익대에서 탈식민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되받아쓰기'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계미학자 대회, 미술과 담론, 해외 전시기획 등에서 활동하면서 예술가들의 현실 소통에 관한 담론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시기획을 기획하며,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Dr. Bong Wook Lee studied D.E.S.S. in Exhibition Conception from Paris 13 University. He also obtained PhD from Hongik University. His doctoral research was on the 'Writing-back' as a new perspective for Postcolonialism. He has worked in International Congress of Aesthetics 2016 and Art and Discourse, other International exhibitions planning, interested in critiques of communications between artists and the public. Now Dr. Lee gives lectures in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works as an art critic.

프랑스 Paris IV-Sorbonne 대학교 미술사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 논문에서는 쾌와 불쾌, 미와 추의 구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주목하면서 그로테스크와 승고의 현대적 의미를 재구축하고, 특히 그로테스크 개념에 내포한 인류학적·심리적 특성과 그것으로 인한 이미지의 다원적 출현 양상을 현대미술의 혁신을 이끄는 주요 동인으로 제안하였다. 귀국 후에는 대학에서 미술사와 예술학, 미학과 동시대미술론 등을 강의하는 한편 미술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2017 부산 바다미술제 학술심포지엄>과 <2018 창원 조각비엔날레 학술심포지엄> 등의 심포지엄에 참여하고, <기념인물조각> 展 큐레이터 (김세중미술관, 2018), <한국 근현대조각 100년: 한국 현대조각의 단면> 展 큐레이터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2019) 등의 전시에 큐레이터로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오늘날의 미술과 이미지가 시사하는 바에 관하여 미술사 및 미학의 관점은 물론, 문명학적, 사회학적, 과학사적 관점 등으로 접근하면서 예술의 가치와 쟁점을 보다 다층적이고 융합적인 토대 위에서 촉발하고 있다.

He majored in art history at Paris IV-Sorbonne University in France and earned his doctorate at the graduate school of the same university. He rebuilt the modern meaning of grotesque and sublime, paying attention to the perception of the distinction between pleasure and displeasure, beauty and ugliness in his doctoral dissertation. In particular, he proposed the anthropolog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mplicit in the concept of grotesque and the pluralistic appearance of images resulting from them as the main drivers of modern art innovation. After returning to Korea, he has been working as an art critic while lecturing on art history, art studies, aesthetics and contemporary art theories at university. He participated in symposiums such as "2017 Busan Sea Art Festival Academic Symposium" and "2018 Changwon Sculpture Biennale Academic Symposium" and also participated as the curator in exhibitions such as "Commemorative Human Sculpture" (Kim Se-joong Museum, 2018),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Sculpture 100 Years: A Trans of the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Seosomun shrine history Museum, 2019). He now takes an approach to the implications of today's art and image from the perspective of art history and aesthetics as well as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ization, sociology and science, triggering the values and issues of art on a more layered and converged foundation.

권순왕 Qwon, SunWang

학력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전시

2019	Masters of Korean Printmakers, Irkutsk State Museum, Russia
2019	Phanism - Camera Obscura/Camera Lucida (CyartSpace)
2019	서안동시대국제초대미술제, 서안감양청위서 미술박물관, China
2019	가려진 지속 - 역사, 시간, 생명, 금산갤러리
2019	가려진 지속 - 한세기,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 9P Gallery
2018	JIAAF일상의예술 - 생명속에 생명을 담다, 지리산아트팜, 서울예술의전당
2018	한국현대판화60년 - 판화하다, 경기도 미술관
2018	Pink Island Jeju-Berlin Seminar, Kunsthaus KuLe, Berlin, Germany
2016	약산 아리랑, 밀양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2015	약산 진달래, 살롱아터데인
2007	Sweetish or still-life, Jinart center, Heyri
2006	Rendezvous, Mille plateaux, Paris, France
2006	<Finding a kite> Que sais-je Gallery
2005	Catching the shadow, CEAAC Studio,Strasbourg, France

Education

Ph.D., Majored in Contemporary Art Department of Art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Exhibitions

2019	Xi'an International Invitational Exhibitions of Contemporary Art
2019	The Hidden flux - History, time, life, GeumSan Gallery
2016	YakSan Arirang, Miryang city Museum

권영란 Kwon, YoungRan

학력

인천가톨릭대학교대학원 현대회화전공

개인전

2018	석사학위청구 전, 리부스 갤러리
2018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부스 개인) (A), 가온 갤러리

단체전

2019	일상적인 삶 (인천가톨릭대학교 & 경기대학교 대학원 교류전), 나무 갤러리
2017	입속의 검은 입, 나무 갤러리
2017	모래는 처음부터 모래가 아니었다, 지오갤러리
2017	환경미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2016-2014	나는 그림이 좋다, 연정갤러리, 스퀘어원 갤러리
2013	인천미술한마당축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Education

Department of Contemporary Painting,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of Incheon

Solo Exhibitions

2018	Master's Degree Request, Ribus Gallery
2018	Elephant dance (booth) exhibition (ai), Gaon gallery

Group Exhibitions

2019	Everyday Life Exhibition (Incheon Catholic University & Gye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Tree gallery
2017	Black Mouth of Mouth 2017, Wood Gallery
2017	Sand Wasn't Sand from the Beginning, Geo Gallery
2017	Environmental Art Exhibition,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2016-2014	I like paintings I, Yon Gallery, Square One Gallery
2013	Incheon Art Hanmadang Festival,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김민형 Kim, MinHyung

학력

2018	성신여자대학교원 미술대학 조소과 박사 입학
2010	성신여자대학교원 미술대학 조소과 석사 졸업
2006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졸업

개인전

2019	SHARE THE FANTASY II, 서울시립미술관 SeMA참고, 서울
------	--

2018	SHARE THE FANTASY I, 문화잇슈, 충남서산
2016	구두방 & 구: 두방, 팔레드서울, 서울
2013	Miss kim & Myth kim 그여들의 이야기, 롯데갤러리, 경기
2011	나는 여자다, 대안공간 눈, 수원
2010	SUPERHILL & SUPERHERO, AG 갤러리, 서울
2008	김민형의 '빼딱구두 이야기', 관훈갤러리, 서울

Education

2018	Ph, D in Sculpture, Sungshin University
2010	Master of fine Arts, Sculpture, Sungshin University
2006	Bachelor of fine Arts, Sculpture, Sungshin University

Solo Exhibitions

2019	SHARE THE FANTASY II, SeMA Storage, Seoul
2018	SHARE THE FANTASY I, Munhwa itsu, Seosan
2016	Shoe repair shop & Chat room, Palaise Seoul, Seoul
2013	Miss kim & Myth kim, Gallery Lotte, Kyung-gi
2011	I am a woman, Space Noon, Suwon
2010	SUPERHILL & SUPERHERO, Gallery AG, Seoul
2008	Kim Minhyung's Highheel story, Gallery Kwanhoon, Seoul

김범수 Kim, BeomSoo

학력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학사, 석사, 박사졸업
파리 1대학 조형예술학 박사 논문(DOCTORAT) 수료
파리 1대학 조형예술학 박사 준비과정(D.E.A) 졸업
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예술과미디어학회 회장

전시

1992	현재 서울, 프랑스, 모스크바 16회 개인전
1988	현재 프랑스, 대만, 일본, 서울 등에서 단체전 다수전시 100여회

레지던시

2014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국립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2012-2013	양주시 장흥 조각아틀리에 입주작가

Education

D.F.A, M.F.A, B.F.A in department of sculpture,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Doctorat d'Arts Plastiques, Université Paris I, FRANCE
D.E.A, d'Arts Plastiques, Université Paris I, FRANCE
Present: Professor at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hibitions

1992	16th individual Exhibitions (france, moscow, Seoul, Paris)
1988	About 100th group Exhibitions (france,Taipei,Seoul,Paris,kyoto)

Residence

2014	Changdong Art Studio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12	YANGJU CITY Jangheung Sculpture Studio

김병직 Kim, ByoungJig

학력

1995	미국 뉴욕 Long Island univ. c.w.post N.Y. (BFA)
------	---

개인전 (10여회)

2017	眞空不滅 진공불멸, 갤러리오
2006	Blue, 아트스페이스 휴
2004	Dreams in Suitcase, 덕원 갤러리

단체전

2019	기획전시 레트로 미디어(Retro Media), 복합문화지구 누에
2016	서울사진축제, 문래동 특별전
2007	Text in bodyscape, 서울시립미술관
2004	광주비엔날레 코리안 특급, 광주
2003	사람을 닮은 책 책을 닮은 사람, 금호미술관
2001	한국미술의 눈, 성곡 미술관 개관 기념전

Education

1995	LIU Post (C.W. Post Campus of Long Island University) N.Y. (BFA)
------	--

Solo Exhibitions (About 10th)

- 2017 眞空不滅 The vacuum is never destroyed, Gallery O
- 2006 Blue, Art Space Hue
- 2004 Dreams in Suitcase, Dukwon gallery

Group Exhibitions

- 2019 Retro Media, Open Space nu_e
- 2016 Seoul Photo Festival, Mullaee-dong Special Exhibitions
- 2007 Text in bodyscape, Seoul Museum of Art
- 2004 GWANGJU BIENNALE, Korea Express, Gwangju
- 2003 A book resembling a person, A person resembling a book, Kumho Museum of Art
- 2001 The eye of Korean art - Opening Exhibitions of Sungkok Art Museum

예기 Kim, leggi

학력

파리1대학 미학(예술학)과 D.E.A, 박사

개인전

- 2017 감히 말할 수 없다, 트렁크갤러리, 서울(서울문화재단 지원)
- 2014 워킹시티, 총정리 모던아트센터 프로젝트홀, 서울(서울시립미술관 지원)
- 2011 The theater of Lefebvre 3년 II, 송원아트센터, 서울(서울문화재단 지원)
- 2010 The theater of Lefebvre 3년 I,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단체전

- 2017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무악재 재개발지, 서울 (전시기획 및 참여)
- 2012 파국(카타스트로프), 진단적 정신, 동아미술제 전시기획 대상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디자인 플라자, 서울 (전시기획 및 참여)
- 2004 (단편영화) Wonderful Night Merry Christmas!, Cinema Le cerf, Paris, 상영 (파리1대학 단편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

Education

University Paris 1, Aesthetic, Doctor

Solo Exposition

- 2017 Wondeland, Trunk Gallery, Seoul
- 2014 Walking City, Chungjeong-ro Modern, Art Sonje Center(Project hall)
- 2011 The Theater of Lefebvre Three Years,II, Sonwon Art Center, Seoul.
- 2010 The Theater of Lefebvre Three Years,I, One and J Gallery

Group Exposition

- 2017 State of Affairs(État des choses, MoakJae redevelopment area, Seoul. (Curatorial plan and participation)
- 2012 Catastrophe, Diagnostic Mind_I, Seoul, Awards-winning Exhibitions 'Call for curatorial proposal of Dong-A Art Festival', (Curatorial plan and participation)
- 2004 Wonderful Night Merry Christmas!, Cinema Le cerf, Paris. (Grand 'Prix Documentaire' of 'Short Film Festival' of Paris I)

김예성 Kim, YeSung

학력

- 2016-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도자예술전공 박사과정
- 2007 영국 왕립예술대학교 도자유리학과 석사졸업
- 2002 이화여자대학교 공예학부도자예술전공, 미술사학전공 학사졸업, 회화 및 판화 부전공

전시

- 2019 THE GOOD DAY-제 40회 도립전, 이화아트센터, 서울
- 2016 동서도예초대전-전통과 변화 한양대학교박물관, 서울
- 2015 Have a good one 갤러리단디, 서울

이력

- 2016-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도자예술전공 강사
- 2019 2019 공예매개인력 양성(KCDF주관) 공예큐레이터분야 매니저
- 2016-2017 프로젝트 스페이스 인큐베이터52 기획 및 운영, 서울

Education

- 2016-Present Ewha Womans University. Ceramic Art Ph.D Course Attending
- 2007 Royal College of Art. Ceramics and Glass MA
- 2002 Ewha Womans University. Ceramic Art BFA(Hons) / History of Art BA(Hons) / Minor subject: in Painting and Print making

Exhibitions

- 2019 The 40th Dorim Exhibition-THE GOOD DAY, Ewha Art Center, Seoul
- 2016 East-West Ceramics Invitational Exhibition, Hanyang University Museum, Seoul
- 2015 Have a good one, Gallery Dandy, Seoul

CV

- 2016-Present Part time Lecturer of Ewha Womans University, Ceramic Art, Seoul
- 2019 Manager of Curatorial Department, 2019 The Crafts Cultural Intermediary Program(KCDF)
- 2016-2017 Operator of Project Space Incubator52, Seoul

김재남 Kim, JaeNam

학력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대학원 회화과 졸업

개인전

- 2019 닿을 수 없는 지점, 보이지 않는 시점, 웨마미술관, 청주
- 2018 검은 소금을 찾아서, 무풍시대 아트스페이스, 북경, 중국
- 2017 사라진 풍경, 벽과나사이갤러리, 서울
- 2016 문래 거주 프로젝트, 뮤온예술공간, 서울
- 2012 Nostalgia 프로젝트,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 2011 두 개의 섬 프로젝트, CSP 111아트스페이스, 서울
- 2006 표류하는 영웅을 프로젝트, 금호미술관, 서울
- 2001 Time code '가시바다' 영상전, 보다갤러리, 서울

Education

Ph.D., Fine Art, Hongik Univ., Seoul, Korea
B.F.A./ M.F.A. School of Fine Art, Graduate School of Fine Art, Hongik Univ, Seoul, Korea

Solo Exhibitions

- 2019 Unreachable Point, Veiled Point, Étretat, France, Schema ArtMuseum, Cheongju, Korea
- 2018 Finding Black Salt, Windless Zone Artspace, Beijing, China
- 2017 Lost Landscape, SAI gallery, Seoul, Korea
- 2016 'Mullaee Resident' Project, Art space Muon, Seoul, Korea
- 2012 Nostalgia, Hongik University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2011 Two Islands project, CSP 111Artspace, Seoul, Korea
- 2006 Drift Heroes project,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01 Time code-video installation 'Thorny sea', boda gallery, Seoul, Korea

김정숙 Kim, JeongSook

경력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전라북도 미술대전 및 경상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미술대전심사위원(2003, 2009, 2013) 및 각종 공모전 운영 및 심사위원 역임
현 국립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개인전(28여회)-미국, 일본, 호주, 독일, 중국, 서울 등) 수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3회 및 입선 7회
사)한국미술협회 미술인상 수상, 오늘의 미술가상, 동서미술상, 원미술상, 춘추미술상 수상

CV

Invited artist at the Korea Grand Art Exhibitions, Jeonbuk and Kyungnam Province Grand Art Exhibitions
Performed as a judge of the Korea Grand Art Exhibitions
Present: Professor at College of Art, Kunsan National University
Solo Exhibitions (About 28th - U.S.A., Japan, Australia, Germany, China, Seoul, etc.)

Awards

Specially selected at the Korea Grand Art Exhibitions; three times & selected; seven times
Awarded Artist Art Priz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Today's Artist Art Prize, the 5th Dong Seo Art Prize, Won Art Prize, Choonchoo Art Prize

김정희 Kim, JungHee

학력

1977 성신여자 사범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사 졸업
1979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조소학과 석사 졸업

현: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 사단법인 한국조각가협회 회장, 송정미술문화재단 이사, 중국 조소연구회 회원, 아시아현대조각회 회원, 한국여류조각가회 회원, 성신조각회 회원

개인전 (32여회)

초대전 및 단체전 (600여회)

Education

Graduated from the Dept. of Sculpture, College of Fine Art, Sung 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d from the Sculpture Course at the Graduate School of Fine Art, Sung shin Women's University

Present: Professor college of Art, Sung shin Women's University, President of Korean Sculptor's Association, Member of National Academy of sculptor, Member of Sung shin sculpture Association, Member of Korean Women's Sculptor Association

Solo Exhibitions (About 32th)

Group Exhibitions and Invited Exhibitions (About 600th)

김혜련 Kim, HaeRyun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현: 한국미술협회, 한국아티스트협회, 흐름 회원

개인전

2019 바라데기의 노래, 미술세계 초대기획전
2019 마음이 bring to mind, 갤러리 담 초대전
2019 bring to mind, 혜원 갤러리
2017 국립 중앙의료원, 갤러리 스킨디아 초대전

단체전

2019 '흐름' 봄 전시, 한전아트센터
2019 한국아티스트협회 정기전, 마루갤러리
2018 베이징 국제미술 초대전, 베이징 G-ART 갤러리
2017 Vision 전, 갤러리 가야

Education

B.A.F Department of Decorative arts, college of Fine Arts, Ewha Woman's University

Solo Exhibitions

2019 Song of Baridegi, Misulsegye Gallery
2019 bring to mind, Gallery Dam
2019 bring to mind, Hae won Gallery
2017 Invitation exhibition, National Medical Center

Group Exhibition

2019 'The Flow' spring exhibition, Han jeon Artcenter
2019 Korea Artists Association, Exhibition Topo Hause
2018 ART & MEDIA Silk Road, G-ART Gallery, Beijing
2017 <Vision>, Gallery Gaia

남기성 Nam, GiSung

현: 전업 사진작가

개인전

2019 Dust monitor Series, 이태알레, 수원 등 개인전 7회

단체전

2019 DMZ국제예술정치-무경계프로젝트, 온새미로, 실험공간UJ, 수원
2019 상고사, 실험공간UJ, 수원
2018 구조의 건축,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2017 수원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 연대, 실험공간UJ, 수원
2015 지금 우리 수원,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2014 더 많이 그리고 믿을 만한, 수원미술관, 수원
2014 시각의 향해, 팔레드 서울, 서울

Present: a full-time photographer

Solo Exhibitions

2019 Dust Monitor series, Ideale, suwon, etc. 7th

Group Exhibitions

2019 DMZ International Art Politics-Project Border Crossing ONSAEMIRO, Space UZ, Suwon, Korea
2019 An ancient history, Experimental Space UZ, Suwon, Korea
2018 The Architecture of Structure, Suwon IPark Museum of Art, Suwon,
2017 Suwon Art Space Project Solidarity, Experimental space UZ, Suwon, Korea
2015 Now Us Suwon, Suwon IPark Museum of Art, Suwon, Korea
2014 See More to be Reliable, Suwon Art Center, Suwon, Korea
2014 Vision's Voyage, Palais de Seoul, Seoul

노영훈 No, YangHoun

학력

1998 홍익대학교 조소과 졸업
2006-2007 파리1대학 팡테온-소르본 Maitrise, Master
2020 홍익대학교 미술학 박사 취득 예정
현: 홍익대학교 조소과 겸임교수

개인전 (7여회)

2019 The Silence of Angel,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2017 Fiction-objets:Reappropriation of Habitus, 김세중미술관
2015 Fiction-objet:Person, 장욱미술관
2014 Fiction-objets, 국제조각페스타

단체전 (50여회)

Education

1998 Degree of Sculpture: The University of HONG-IK, Seoul, Korea
2006-2007 University Paris 1 Pantheon-Sorbonne, Paris, France, Master Degree of Department of Art & Maitrise Degree of Department of Art
2020 Preserved to acquire a Ph.D. in philosophy,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Present: Adjunct Professor, Dept. of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olo Exhibitions (About 7th)

2019 The Silence of Angel, Hongik Museum of art.
2017 Fiction-objets:Reappropriation of Habitus, Kimsechoong Museum.
2015 Fiction-objet:Person, Jangok Museum.
2014 Fiction-objets, International Sculpture Festa

Group Exhibitions (About 50th)

노주환 Noh, JuHwan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동대학원 졸업
현: 한국미술협회, 한국조각가협회, 영상미디어협회원, 성북구디자인위원,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개인전 (12여회)

2015 지혜의방, 바움아트갤러리, 서울
2014 사랑해요, 갤러리 서림, 서울
2011 먼저할일부터, 갤러리 아트파크, 서울

단체전

2018 디카르비엔날레, 보리바나미술관, 세네갈
2017 문화본일률, 슬거미술관, 경주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 성산아트홀, 창원

Education

Fine Art College &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Seoul, Sculpture
Present: Professor of Sculpture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Solo Exhibitions (About 12th)

2015 wisdom Room, Baum Art Gallery, Seoul
2014 I Love You, Gallery SeoRim, Seoul
2011 First Do, Gallery Artpark, Seoul

Group Exhibitions

2018 Dakar Biennale, Boribana Museum, Senegal
2017 Cultural Bible uniformity, Solger Museum, Gyeongju
2016 Changwon Sculpture Biennale, Sungsan Art Hall, ChangWon

박정용 Park, JeongYong

학력

전남대학교 및 경희대학원 졸업

현: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대한민국미술대전초대작가, 익산국제현대문화비엔날레 운영위원, 광주시 동구문화예술운영위원

개인전 (15여회)

2018 등촌-연기, FUSIO Gallery, 송창, 중국

단체전

2019 전국조각가협회전, "태화강의 꿈" 울산문화회관
2019 작가미술장터Art at HomeIII, 신세계갤러리, 아크갤러리
2019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춘천MBC호반광장
2019 제33회 '見生 조각전, 강진군 생태공원

CV

Present: Professor, Dept. of Ar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mber of Iksan International Stone Culture Biennale, Invited artist in Grand Art Exhibitions of Korea, Commissioner of Arts Center, Dong-gu, Gwangju

Solo Exhibitions (About 15th)

2018 "Dongjon-纉起", FUSIO Gallery, Beijing Songzhuan, China

Group Exhibitions

2019 Gawngju International Art Fair, Gallery Grace invitational Exhibitions.
2019 Visual Artists Maket - Art at HomeIII, Shinsegae Gallery, Arc Gallery
2019 Invitational Exhibitions Modern Korea Sculptor, Chuncheon MBC Lakeside Square
2019 33th 'GyunSaeng(見生)'sculpture Exhibitions, Gangjin-gun Eco Park

박형오 Park, HyoungO

학력

2019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2001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졸업
1998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현: 전남대, 성신여대 강의

소속

전남조각회, 한국조각가협회, 전국 조각가 협회,
조각그룹푸른흙, 흙과사람들, 구상조각회 회원

개인전 (8여회)

Education

2019 P.H.D. in Sculpture sung sin woman University, Seoul, Korea
1998 M.F.A. in Sculpture sung sin woman University, Seoul, Korea
1990 B.F.A. in Sculp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nnam, Korea

Solo Exhibitions

2019 9nd Solo Exhibitions / KOSA Gallery, Seoul
2017 8nd Solo Exhibitions / Mudeung Gallery, Seoul
2017 6nd Solo Exhibitions / Han Garam Art Centa, Seoul
2016 5nd Solo Exhibitions / Han Garam Art Centa, Seoul
2013 4nd Solo Exhibitions / Gallery Jang Eunseon, Seoul
2006 3nd Solo Exhibitions / Insa Art Centa, Seoul
2003 2nd Solo Exhibitions / Gallery InSa, Seoul
2000 1st Solo Exhibitions / Gallery Seo Gyeong, Seoul

서정자 Suh, JungJa

학력

홍익대학교 조소과 졸업
The Claremont Graduate Univ 대학원 석사 졸업, 미국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예술공학 석사 졸업, 박사 과정 수료
현: 한국미술협회, Mass회원

개인전

2015 소리- 채워지다, 스페로 갤러리, 인천
2012 소리- 진동하다,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2010 Being with 2010, Noam Gallery, 서울
1995 "Concentration", West Gallery, CA, 미국

1994 "Incompleted", Installation, Garrison Gallery, CA, 미국

단체전

2019 통일기원-현대조각전, 오두산 통일전망대
2016-2018 Mass전
2015 소마드로잉 무심(無心)전, 소마미술관 기획 초대전
2014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세종문화회관, 서울

Education

M.F.A from The Claremont Graduate Univ, CA, U.S.A
M.S, Ph.D Complete Art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Media, Sogang Univ, Seoul, Korea
Present :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Membership, Mass Membership

Solo Exhibitions

2015 Voice - put in, Spero Gallery, Inchun, Korea
2012 Voice - Vibrating (Seeing Sound), Kunst Dog Gallery, Seoul, Korea
2010 Being with 2010, Noam Gallery, Seoul, Korea
1995 "Concentration", West Gallery, CA, U.S.A
1994 "Incompleted", Garrison Gallery, CA, U.S.A.

심은석 Shim, EunSeok

현: 한국조각가협회, 전국조각가협회, 전남대학교 강사

개인전

2019 삼투, JM Art Space, 베이징, 중국
2019 색의 촉감, 오버랩(OverLab.), 광주
2018 국제 조각 페스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7 기이한 또 다른 하나의 세계, 갤러리 봄, 광주

단체전

2019 광주의 빛 신년기획전, 갤러리 S, 광주
2019 아트페스티벌: 예술길 봄 마중전,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광주
2018-2019 광주 빛 조각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Present: Korea Sculptors Association, National Sculptors Association Korea,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Solo Exhibitions

2019 Penetration, JM Art Space, Beijing, China
2019 The Tactility of Color, OverLab, Gwangju, Korea
2018 International Sculpture Festa, Hangaram Art Museum, Seoul, Korea
2017 Eccentric, Another World, Gallery Spring, Gwangju, Korea

Group Exhibitions

2019 Gwangju Light New Year's Exhibitions, Gallery S, Gwangju, Korea
2019 Art Festival: Spring meet at Art-길,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2018-2019 Light Sculpture Kwangju,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오테원 Oh, TaeWon

학력

프랑스 국립파리8대학교 조형예술학과 학사 및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서양화와 석사 졸업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박사과정 수료

개인전

2019 Drops, TimeSlip, Gallery O, 서울
2019 Black in Drops 27, SamTanArtMine 세화장 마인갤러리, 강원도 정선
2018 DC Project : Beijing, SongZhuang, Gallery No-Wind Zone, 송창예술특구, 북경, 중국

단체전

2019 달콤한 비눗방울, 아트스페이스M개관전, 아트스페이스M, 서울
2018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2018, 지리산아트팜, 하동

Education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Plastic Arts, National PARISVIII University, Paris, France.(M.F.A, B.F.A)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Western painting, National SEOUL University, (M.F.A)
Ph.D course completion of Visual Design Major, Hongi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Solo Exhibitions

2019 Drops TimeSlip, Gallery O, Seoul, South Korea
2019 Black in Drops 27, SamtanArtMine, Gangwondo Jungsun, South Korea
2018 DC Project:City Road Beijing, SongZhuang Art Road>, Gallery No-Wind Zone, Beijing

Group Exhibitions

- 2019 Sweet Soap Bubbles, Art Space M, Seoul, Korea
2018 Jirisan International Environment & Art Festival 2018, Jirisan Art Farm, Hadong

이선희 Lee, SunHee

학력

경북대학교 디지털미디어아트학과 박사 수료
현: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정보계열 교수

전시

- 2018 KOSMA(한국영상학회) 국제초대전(미디어 파사드), 'Particle of Light',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7 KOSMA(한국영상학회) 국제초대전(미디어 파사드), 'Play in Virtual World',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6 Colorful Convergence 국제교류전, 'the Virtual World', KNU Gallery, 대구
2015 KSBDA 삿포로 국제기획 초대전, '29.97 fps', 삿포로시 갤러리, 일본
2014 KSBDA 파리 국제기획 초대전, 'Digital Pond II', Centre culturel coreen Salle d'exposition, 파리, 프랑스
2014 KSBDA 샌프란시스코 국제기획 초대전, 'the re-creation', SF State Special Collections Gallery, 캘리포니아, 미국

Exhibitions

- 2018 KOSMA International Exhibitions(Media Facade), 'Particle of Light', Asia Culture Plaza, Gwangju, Korea
2017 KOSMA International Exhibitions(Media Facade), 'Play in Virtual World', Asia Culture Plaza, Gwangju, Korea
2016 Colorful Convergence Exhibitions, 'the Virtual World', KNU Gallery, Daegu
2015 KSBDA Sapporo International Invitational Exhibitions, '29.97 fps', Sapporo Gallery, Japan
2014 KSBDA Paris International Invitational Exhibitions, 'Digital Pond II', Centre culturel coreen Salle d'exposition, Paris, France
2014 KSBDA San Francisco International Invitational Exhibitions, 'the re-creation', SF State Special Collections Gallery, California, U.S.A.

이수홍 Lee, SooHong

학력

- 1984 홍익대학교 조소과 (학사) 졸업
1989 홍익대학교 조소과 (석사) 졸업
1992 프렛 인스티튜트 대학원졸업

개인전

- 2019 문신미술상 수상전: ㅁㅁ,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창원
2017 안과 밖 -그 사이: ㅁㅁ, 김세중미술관, 서울
2016 안과 밖 -그 사이: ㅁㅁ, Art Mora, 뉴욕
2008 안과 밖-그 사이, Gallery Konrin, 동경
2007 Necessary Pair, State Museum of Ostrovskiy, 모스크바
1999 안과 밖-그 사이, 학교제, 서울
1993 안과 밖-그 사이, 브로드웨이 윈도우즈, 뉴욕
1988 제법무상, 토탈갤러리, 서울

Education

- 1984 B.F.A with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989 M.F.A with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992 M.F.A with Sculpture, Pratt Institute, New York

Solo Exhibitions

- 2019 Inside/Outside/Interside - ㅁㅁ, Moonshin Museum, Changwon
2017 Inside/Outside/Interside - ㅁㅁ, Kimsejung Museum of Art, Seoul
2016 Inside/Outside/Interside - ㅁㅁ, Art Mora, New York
2008 Inside/Outside/Interside, Gallery Konrin, Tokyo
2007 Necessary Pair, State Museum of Ostrovskiy, Moscow
1999 Inside/Outside/Interside, Art Space Seoul, Seoul
1993 Inside/Outside/Interside, Broadway Windows, New York
1988 Nothing is stable, Total Gallery, Seoul

이승희 Lee, SeungHee

학력

- 2018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전시

- 2019 개인전, 스퀘어원, 문화출갤러리, 인천
2018 북경국제미술 초대전, 예술과 미디어, 실크로드전, G-ART 갤러리, 북경
2018 인천국제아트페어, 인천송도컨벤시아
2017 개인전, 뮤온예술공간, 서울
2015 화양연화, 가온갤러리
2015 불랑블루호텔아트페어, 호텔엠베서더
2015 우타라안 레지던시, 인도
2014 감각! 현대미술에 묻다, 가온갤러리

Education

- 2018 Graduated from Painting course, Incheon Catholic University

Exhibition

- 2019 Square one Culture Hall Gallery, Incheon
2018 Beijing International Art Invitation Exhibition Art and Media Secret Road G, ART Gallery, Beijing
2018 Incheon International Art Fair Incheon Songdo Convensia
2017 Muon Art Space, Seoul
2015 Hwayang-yeonhwa, Gaon Gallery
2015 Blanblue Hotel Art Fair, Hotel Ambassador
2015 India Utararayan Residency About 80 team exhibitions
2014 Sensel Inquiry in Contemporary Art Gaon Gallery

이연숙 Lee, YeonSook

학력

- 2008 Goldsmiths College Fine Art(MFA)졸업
2002 홍익대학교 조소과 (석사) 졸업
1999 홍익대학교 조소과 (학사) 졸업

개인전

- 2017 천공의 성, 신당창작스튜디오, 서울문화재단, 서울, 한국
2017 봉다리, 신세계 갤러리, 광주, 한국
2017 Color for the day, Window gallery 기획, 성복예술창작터, 서울, 한국
2016 Memory container, 아워문스터, 서울, 한국
2015 Sonic landscape, 성복도원, 서울, 한국
2015 Memory from the garage, 64b1, 서울, 한국
2015 Memory in..., 오래된집 캔 파운데이션, 서울, 한국

EDUCATION

- 2008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MFA in Fine Art, London, UK
2002 Hong-ik University, M.F.A. Sculpture, Seoul, Korea
1999 Hong-ik University, B.F.A. Sculpture, Seoul, Korea

Exhibition

- 2017 Laputa, Seoul Art Space Shindang,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2017 Bongdari, Shinsegye gallery, Gwangju, Korea
2017 Color for the day, curated by Window gallery, Seongbuk art creativity center, Sungbuk Cultural Foundation, Seoul, Korea
2016 Memory container, OurMonster alternative space, Seoul, Korea
2015 Sonic landscape, SungBuk Do Won,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ungbuk Cultural Foundation, Seoul, Korea
2015 Memory from the garage, 64b1 alternative space, Seoul, Korea
2015 Memory in..., The old House, Can foundation, Seoul Korea

이원경 Lee, WonKyung

학력

- 198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200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졸업

개인전

- 2017 제 7회 아트스페이스필 기획초대전, 아트스페이스필, 대구

- 2016 제 6회 포네티브 스페이스 기획 초대전, 포네티브 스페이스, 헤이리
- 2013 제 5회 리서울 갤러리 초대 개인전, 리서울 갤러리
- 2009 제 4회 개인전, 미술공간 현, 서울문화재단 전시 기금전
- 2005 제 3회 개인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 2004 제 2회 개인전, 영도등대내 SEE&SEA 갤러리 개관기념전
- 2004 제 1회 개인전, 인사아트센터 지하

단체전

- 2017 NordArt 2017 International Exhibitions, BÜDOLDORF, Germany

Education

- 1985 B.F.A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2006 M.F.A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Solo Exhibitions

- 2017 The 7st Solo Exhibitions, ArtSpace Purl, Deagu
- 2016 The 6st Solo Exhibitions, Phonotive Space, Heyli
- 2013 The 5st Solo Exhibitions, LEE SEOUL Gallery, Seoul
- 2009 The 4st Solo Exhibitions, Art Space Hyun, Seoul
- 2005 The 3st Solo Exhibitions, Seojong Center Art Museum ,Seoul
- 2004 The 2st Solo Exhibitions, SEE & SEA Gallery , Busan
- 2004 The 1st Solo Exhibitions, Insa Art Center,Seoul

이지숙 Lee, JiSook

학력

- 2011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일반대학원 조소과 석사 졸업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박사과정 수료

개인전

- 2019 중간계, 서울시립미술관세마창고, 서울
- 2018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공간291, 서울
- 2016 공유공간 Mutualspace-Neonwater, 대안공간눈, 수원
- 2015 Metaphor, ART SPACE 수다방, 서울
- 2010 나는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다, CUBESPACE, 서울

단체전

- 2018 몽테소사이어터: 오늘을 걷다, 조선대학교미술대학, 전라남도 광주
- 2018 신진작가 공모당선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Art space WATT, 서울

Education

- 2011 Master of fine Arts, Sculpture
- 2018 Ph, Din Sculpture

Solo Exhibitions

- 2019 Potential stage, SeMA Storage, Seoul
- 2018 Alotof suspicious things, Space291, Seoul
- 2016 Mutual space-Neonwater, Alternative space Noon, Suwon
- 2015 Metaphor, ART SPACE SUDA room, Seoul
- 2010 I have never seen my face, CUBE SPACE, Seoul

Group Exhibitions

- 2018 Monte Societies: Walking Today, Chosun University College of Art, Jeollanam-do Gwangju
- 2018 New Face Artist Contest, What we thought we knew well, Artspace WATT, Seoul

이지희 Lee, JeeHee

학력

- 서울대학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 New York University 대학원 졸업
- 송실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
- 현: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영상미디어협회, 한국영상학회 이사
- 개인전 (15여회)
- 단체전 (다수)

Education

- BA, MFA,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Painting
- MA, New York University, Major: Art & Media
- Ph.D, Soongsil University, Major: Media Art
- Present: Hanya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Makeshop Art Space(2011-12) Artist in

- Residence , CAMMP KOSIAM Director
- Solo Exhibitions(About 15th)
- Group Exhibitions (Numerous International and domestic)

이주현 Lee, JuHyun

학력

- 2009 홍익대학교 조소과 석사 졸업
- 2002 홍익대학교 조소과 학사 졸업

전시

- 2019 공간의 맛, 스페이스 신선, 서울
- 2018 D-ensemble, 이정아 갤러리, 서울
- 2018 Seize+1,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 2017 D-ensemble, 이정아 갤러리, 서울
- 2015 갤러리 파비온드 개인전 - 갤러리 파비온드, 서울

Education

- 2009 M.F.A in department of sculpture studies,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2002 B.F.A in department of sculpture,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Exhibitions

- 2019 Taste of space, Space shinseon, seoul
- 2018 D-ensemble, LJA gallery, seoul
- 2018 Seize+1, HOMA, seoul
- 2017 D-ensemble, LJA gallery, seoul
- 2015 Solo Exhibitions 'Incubation period', gallery Far beyond, Seoul

이한수 Lee, HanSu

학력

- 2001-2002 브라운슈바이크 미술대학, 마이스터슐러, 독일
- 1996-2000 브라운슈바이크 미술대학, 독일

전시

- 2018 New Dialogue, 제 5회 청주국제현대미술전 한불국제교류전
- 2017 노마딕 전, Nomadic Traveler, 제 5회 한 인도네시아 미디어설치전, 에드윈 갤러리 인도네시아
- 2016 미디어+아트 패러다임-세계미학자 대회 대중예술축전 특별전, 화이트블록 아트센터
- 2015-2016 인조선경人造仙境, 한중 청년예술전, 금계호 미술관, 소주, 중국

Education

- 2001-2002 Braunschweig School of Art, Braunschweig, Germany
- 1996-2000 M.F. A. Braunschweig School of Art, Braunschweig, Germany

Solo Exhibitions

- 2018 New Dialogue, korea-france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 2017 Nomadic Traveler, The 5th KOREA-INDONESIA Media Installation Art, Edwin's Gallery, INDONESIA
- 2016 Paradigm for Media Art , White Block Art Center
- 2015-2016 Artificial Fairyland, Suzhou Jinji lake Art Museum, china

임수빈 Lim, SuBin

학력

- 2018 홍익대학교 조소과 박사과정
- 2017 중국노신미대 대학원 조소과 졸업
- 2014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

- 2014 Natural Emotion (Gallery Art Spae H)

수상

- 2014 제12회 서울미술대상전 우수상
- 2013 제3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 2012 제2회 중외그룹 JW Young Art Award 대상

그룹전

- 2019 Pre-Biennale 비조각의 프롤로그 (성산아트홀, 창원)
- 2019 제9회 조각페스타 (예술의전당, 서울)
- 2019 제33회 한국현대조각초대전 (MBC문화방송국, 춘천)
- 2019 통일기원 현대조각전 (통일전망대, 파주)
- 2018 제26회 아시아현대조각협회전 (하이난 Just Space Gallery, 중국)
- 2018 Time -Space (Ponitive Space, 파주)
- 2018 Seize+1 (홍익대학교현대미술관, 서울)
- 2017 ZuoZhan 현대미술초대전 (ZuoZhan Gallery, 중국)
- 2014 제30회 NICA (부산시민공원, 부산)
- 2013 서울 Art Show (COEX, 서울)
- 2013 Square (Space WomB, 뉴욕)

Education

- Present : Doctoral Course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South Korea)
- 2017 M.F.A Dept. of Sculpture, LAFA (China)
- 2014 B.A in Dept. of Art Education, Kyeoungnam University(South Korea)

Solo Exhibition

- 2014Natural - Emotion (Gallery Art Space H, Seoul, South Korea)

Awards

- 2014 Recieved 3rd prize in The 12th Seoul Arts Competition
- 2013 Recieved special prize in The 32nd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 2012 Recieved 1st prize in The 2nd JW Young Art Award

Group Exhibitions

- 2019 Pre-Biennale Non-figurative sculpture Prologue (Seongsan Art Hall, Changwon)
- 2019 The 9th International Sculpture Festa (COEX, Seoul Korea)
- 2019 The 33rd Invitational Exhibition Modern Korea Sculpture (MBC, Chuncheon, South Korea)
- 2019 A Wish for Reunification Contemporary Sculpture Exhibition (Odusan, Paju, South Korea)
- 2018 The 26th Association of Asian contemporary Sculptors Exhibition (Just Space Gallery, Hinan, China)
- 2018 Time -Space (Ponitive Space, Paju, South Korea)
- 2018 Seize+1 (SEMA, Seoul Korea)
- 2017 ZuoZha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ZuoZhan Gallery, China)
- 2014 The 30th NICA (Citizenpark, Pusan, South Korea)
- 2013 Seoul Art Show (COEX, Seoul Korea) 2013Square (Space WomB, Newyork USA)

정경연 Chung, KyoungYeon

학력

로드아일랜드 스킵 오브 디자인 석사, 미국
 모스크바 국립 산업 미술대학, 명예박사, 러시아
 현: 홍익대학교 교수, 홍익섬유 패션조형회 회장, 한국미술협회 상임자문위원, 인도박물관 부관장

개인전 (52여회 - 한국, 대만,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이태리, 스페인 등)

단체전 (국내외 1000여회)

수상

뉴저지주 문화상, AAM그랑프리, 제25회 목양공예상, 디자인코리아 20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미술인상 여성작가상, from Lausanne to Beijing 은상, 특별상 등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한국), 워싱턴여성미술관(미국), 대만국립역사박물관(대만), 도야미미술관(일본)

Education

Graduated from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M.A.E., U.S.A.
 Moscow S.G Strognov State University of Industry Art's, an honorary doctor, Russia
 Present: A Professor, Department of Fine Arts at Hongik University, The President of Hongik Textile Arts & Fashion Association, Permanent Consultant Member of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Director of the Museum of India. etc.

Solo Exhibitions (About 52th)

Group Exhibitions (Thousands - Korea, Taiwan, U.S.A., France, Japan, Russia, Italy, etc.)

Awards

Grand Prix, AIAM (Paris), The 25th Mokyang Craft Prize, Minister Awards of Design Korea, Ministry of Trades, Industry and Energy, Women's Artist Prize of Korean Artists Prize, Special Prize. etc.

Museum Collec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Korea), The National Museum of Women in the Arts(U.S.A.), National Museum of History(R.O.C), The Museum of Modern Art(Japan), etc.

정미옥 Chung, MiOk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 학사, 박사
 노스텍사스주립대 석사

개인전 (30여회)

단체전

- 2018 한국관화 60년 전,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18 CHUNG & INAGAKI, Kaze gallery, 오사카
- 2017 Capacity&Tension, China Art Museum, 상하이
- 2017 인사: 새기다프, 홍익대 현대미술관, 서울
- 2017 Between, Spare room, RMIT대학, 멜버른
- 2016 기호경, 생거판화미술관, 진천
- 2016 나가사키현대미술전, 브릭홀, 나가사키

Education

Ph.D & BFA in Hongik University
 MFA in Univ. in North Texas

Solo Exhibitions (About 30th)

Group Exhibitions

- 2018 60th Anniversary of Korean Printmaking, Kyunggido Art Museum, Ansan
- 2018 Miok CHUNG & Yukiko INAGAKI, Kaze gallery, Osaka
- 2017 Capacity&Tension, China Art Museum, Shanghai
- 2017 Human Being: Carving, Hongik Contemporary Art Museum, Seoul
- 2017 Between, Spare room, RMIT Univ., Melbourne
- 2016 The Sign of Printmaking, Sanggye Print Museum, Jincheon
- 2016 Nagasaki Contemporary Art Show, Bric Hall, Nagasaki, Japan

정유정 Jung, YouJung

학력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도자공예전공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전시

- 2019 홀데이블데코페어, 코엑스
- 2019 신당창작아케이드 10주년 기획전시, 송원아트센터
- 2018 공예트렌드페어 창작공방관, 코엑스
- 2018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코엑스
- 2018 메종오브제, 파리, 프랑스
- 2017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영디자이너 프로모션, 코엑스
- 2016 공예트렌드페어 창작공방관, 코엑스
- 2015 이천세계도자센터, 국립박물관 공동기획전 <심, 흙길 걷다>, 이천도자센터 2,3전시실

Education

MFA., Ceramic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BFA., Ceramic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Exhibitions

- 2019 Home.Table.Deco Fair, COEX, Seoul, Korea
- 2019 The 10th Anniversary of Sindang Creative Arcade, Songwon Art Center, Seoul, Korea
- 2018 Craft Trend Fair , COEX, Seoul, Korea
- 2018 Seoul Living Design Fair, COEX, Seoul, Korea
- 2018 Maison & Objet, Paris, France
- 2017 Seoul Design Festival, COEX, Seoul, Korea
- 2016 Craft Trend Fair, COEX, Seoul, Korea
- 2015 Icheon World Ceramic Center; National Folk Museum Joint Exhibitions <Rest, Walk on a Soil Road>, Icheon World Ceramic Center

정영한 Chung, YoungHan

학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학과 및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화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미술학과 졸업
 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개인전 (24여회)

- 1996~현재 노보시비르스크 시립미술관, 성곡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인사아트센터, 송은갤러리, 갤러리 우덕, 예술의전당 미술관 등

단체전 (500여회)

1995-현재 바코드 Barcode전 -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 양평군립미술관
기획초대, 양평 극사실 세계와 만나다, 오송우미술관 기획초대, 무안

수상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선정 주목할 예술가상, 대한민국미술인상 청년작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MBC미술대전 우수상 등

Education

B.F.A., Department of Western Paint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M.F.A., Department of Painting,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D.F.A., Department of Fine Arts,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Present: Professor of Chung-Ang University

Solo Exhibitions (About 24th)

1996-Present Novosibirsk State Art Museum, Seoul Museum of Art, SUNGKOK Art Museum,
INSA art center, Song Eun Gallery and so forth, etc.

Group Exhibitions (About 500th)

1995-Present 21C Hyperrealism, Invitation Yangpyeong Art Museum, Yangpyeong The
Exhibitions of Meet the Extreme Real World, Invitation MJUAN Art Museum, Muan

Awards

A Remarkable Artist Prize, Korea Artist's Day-Young Artist Prize, Korea National Grand Art
Exhibitions-Excellence Prize

정택성 Jeung, TakeSung

학력

파리8대학 및 동대학원 조형예술학 졸업
개인전 (4여회 - 서울, 창원)

단체전

2019 서울국제조각페스타,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9 현대미술의 스펙트럼, 성산아트홀, 창원, 경남
2018 서울국제조각페스타,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8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춘천MBC, 춘천
2018 한국의 조각가전, 해운대아트센터, 부산
2018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쇼, 콘라드호텔, 홍콩

Education

MFA / BFA Arts plastiques, University of Paris 8, France
Solo Exhibitions (About 4th - Seoul, Changwon)

Group Exhibitions

2019 International Sculpture Festa, Seoul art center, Seoul
2019 Gyeongnam, Spectrum of modern art, Sungsan art hall, Changwon
2018 International Sculpture Festa, Hangaram Art Museum, Seoul
2018 Invitational Exhibitions Modern Korea Sculpture, Chuncheon MBC, Chuncheon
2018 Sculptor in Korea, Haeundae Art Center, Busan
2018 Asia Contemporary Art Show, Conrad Hotel, Hongkong

최철 Choi, Chul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파리 1대학 평대웅 소르본 조형예술학 박사

개인전 (41여회)

2019 마네킹의 이상스런 꿈, G&J갤러리, 서울
2018 Promenade dans le cahier, 갤러리 빌라데자르, 파리

단체전

2015 사물이 존재하는... 경계를 넘어, 아트스페이스 호서, 서울
2013 꼬마 속의 그림자..., 자하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미술창작 스튜디오.

Education

Master degree, Painting Department, Hongik University.

Ph.D. University of Pantheon Sorbonne.

Solo Exhibitions (About 41th)

2019 Mannequin's Strange Dream, G & J Gallery, Seoul.
2018 Promenade dans le cahier, Gallery Vila des Arts, Paris.

Group Exhibitions

2015 Existence of things... Beyond boundaries, Art Space Hoseo, Seoul
2013 Shadows in the Comma, The Museum of Art, Seoul

Residency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Goyang Art Studio

Claudia Schmitz

Education

1999-2006 Studies at the Academy of Media Arts Cologne (KHM), media art Diploma for
Audiovisual Media with VALIE EXPORT, Peter Zimmermann, Prof.

Work as an Educator

2019 Lecture at Daegu Art Factory, Daegu, Rep. of Korea: Touching Projections In
Dialog with Marshall McLuhan, Donna Haraway and Karan Barad

Collection

Artist book Collection Telavi State University, Georgia
Museum Weserburg, Bremen
Kupferstichkabinett – cabinet of prints (Prolog, Heft für Zeichnung), Germany

GRANTS, Awards

2019 Residency Gerlesborgsskolan (with UnStumm), Bohuslan, Sweden
2017 Landesstipendium RLP Rep. Of Korea - MMCA Residency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in Coop. with Kunsterhaus Schloss
Balmoral and the ministry of science, education and culture RLP
2013 AREnschede - Artist Residencies Enschede, the Netherlands
2010 nominated for the 24th Mainz Art Awards for staged photograph
Eisenturm, Germany

Emmanuel Ferrand

Education

1997 PhD in mathematics, under the supervision of V.J. Arnold, Ecole
Polytechnique, France
2007 Habilitation a diriger des recherches
Several Art / Science / Technology Projects and Collaborations
Scientific advisor at La Generale, an independant art space in Paris
Founding member of the Free Fermentology Foundation, an open art+biology project.
Contributor of Revue du Cube, an electronic journal in digital humanities associated with Le Cube

Selection of Various Recent Projects

2019 research residency for Daejeon Artience
2005-2019 curator of "Vieux Media" events (visual and sound art based on
"Old Media" : obsolete technologies, Super 8, VHS, cassette tape,
DIY analog electronics, vintage software, etc.)
2018 curator of Variations, Exhibitions at ENSAD, Paris, France
2016-2019 conferences and workshops on genetics, biohacking and citizen
science, Toulouse Hacker, Space Factory , Toulouse, France
2018 workshop at Attempts and Failures, in Oradea, Romania
2014-2015 The Brain in Daejeon, Neuroswitch project
2012-2013 Art and technology residency at Gaité Lyrique digital art center in
Paris, with Dorkbot Paris
2010 Curator of an interdisciplinary festival (math, architecture, music,
poetry, digital art, food art) in Paris, France, and in Seoul, Korea, at
the occasion of the centenary of Yi Sang

Hanae Utamura

Education

2010 Graduated from MA Fine Art at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2019 Visiting Scholar at New York University

Solo Exhibitions/ Performances

- 2018 Weather Constellation, Rosenberg Gallery, Hofstra University, Hempstead, NY 2018 Holiday at War, Shiseido Art Egg Awards Exhibitions, Shiseido Art Gallery, Tokyo
- 2016 Holiday at War, Künstlerhaus Bethanien, Berlin
- 2015 Holiday at War, Akademie Schloss Solitude, Stuttgart, Germany (SOLO)

Group Exhibitions/ Performances

- 2019 Lively in Between, Aomori Contemporary Art Center, Japan
- 2019 Modest Expressionism #1, J&M Studio, New York
- 2017 Auguries, Seoul Art Space_GEUMCHEON, Seoul, S. Korea
- 2016 Almost Void, concert by Ensemble cross.art, Kunstraum34, Stuttgart, Germany
- 2015 AS_pedia Project Vol. 1, Gallery Purple, Gyeonggi-do, South Korea
- 2014 Super Romantics, Daegu Art Factory, Daegu, South Korea
- 2013 Tighrope, Sumarria Lunn Gallery, London

Residencies

- 2019 Aomori Contemporary Art Center, Aomori, Japan
- 2019 Chez Bushwick - Jonah Bokaer Arts Foundation, New York, U.S.A.

Awards/Grants/Fellowships

- 2018-2019 Program of Overseas Study for Upcoming Artists, Agency of Cultural Affairs
- 2018 Japan - United States Exchange Friendship Program in the Arts
- 2018 Immigrant Artist Mentoring Program, New York Foundation for the Arts
- 2018 Shiseido Art Egg Awards, Tokyo, Japan

Irene Pérez Hernández

Education

- 2006-2008 MFA Fine Ar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 2004 Grant Awardsed: High Professional Specialisation in Textile Fashion Trends by Govt. of Valencia
- 2001-2002 Erasmus Grant, Exchange program Fine Art, Middlesex University of London
- 1997-2002 BA Fine Art, Polytechnic University of Valencia, Spain

Solo Exhibitions

- 2019 Open Studio, Artist in Residence at grove, Bury St Edmunds, Suffolk, UK
- 2018 Schau & Horfenster (Watch & Listening Window), Friedrichstr.5a, Sankt Georgen, Black Forest, Germany
- 2016 Hook-Up, Six Foot Gallery, Glasgow, Scotland
- 2015 fast>forward>student, Basement Project Space, Ruskin Building, Cambridge School of Art, ARU
- 2012 Terms Of Service, General Store for Contemporary Art, Sydney, Australia
- 2011 Sculptural Arrangement, M2 Gallery, London
- 2002 The Pool of Tears, Quicksilver Place, Middlesex School of Art, London

Group Exhibitions

- 2018 Dirty Pretty Things, Chauffeurhq, Sydney, Australia
- 2017 Members' Show, Outpost, Norwich, UK. Curated by Andy Holden
- 2015 Contemporary British Art Auction, Casa Morton, Mexico City
- 2014 Konvent. 0, Cal Rosal (Bergueda), Barcelona

Residence

- 2019 Artist in Residence at grove, Bury St Edmunds, Suffolk, UK

Janne Malmros

Solo Exhibitions

- 2018 Janne Malmros, Pandesia, MOCA Museum, London, UK
- 2014 Nothing Edures But Change, Andipa Gallery Nightsbridge, London, UK
- 2013 2014 Much Light Strong Shadow, Skagen Museum, Michael & Anna Anchers Hus, Denmark
- 2012 Shifts & Contrivances, Hürtig/Kany Gallery, St.Kongensgade, Copenhagen, Denmark
- 2011 In Circles, The Hirschsprung Collection (Hirsprungske Samling), Copenhagen, Denmark
- 2010 Black-veined White – Acme Project Space, London, UK

Group Exhibitions

- 2019 Sixty Years: Women's Art in the Clifford Chance Art Collection, London, UK

- 2018 ABSTRACT METHODOLOGIES–Parasol Projects, Lower East Side, New York, U.S.A.
- 2017 ABSTRACT METHODOLOGIES, Beton7 Arts, Athens, Greece
- 2016 Nature Morte, Artists Invigorating the Still Life Tradition, Bohuslän Museum, Sweden
- 2014 Fabric, Oriël Sycharth Gallery, Wales, UK - curated by Janne Malmros
- 2013 Afghan Contemporary Art Prize, Queens Palace, Kabul, Afghanistan
- 2011 OrNamenTTokYo: mobile lab, Ornament, Tokyo, Japan
- 2010 HUE Art Space, Seoul, South Korea

Awards

- Royal Society of Sculptors & Andipa Gallery, London, UK
- Royal British Society of Sculptors Bursary Awards, UK

Laure Catugier

Education

- 2007 MA of Art and Design,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Toulouse, France
- 2005 BA of Art and Design with honors,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Toulouse, France
- 2004 BA of Architecture,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chitecture de Toulouse, France

Solo Exhibitions

- 2018 Element.A project, Berlin Art Week
- 2018 Things Get Heavy, Sonntag Berlin, Berlin
- 2016 Schlagschatten/ Ombre Portee, Institut Francais, Dusseldorf
- 2015 Found Footage, Fenster 61, Berlin
- 2014 Blind Spot, Epicentro artspace, Berlin
- 2013 Cyclorama, Paolo Erbetta Gallery, Berlin

Group Exhibitions

- 2019 Jeune Creation Performance, galerie Thaddeus Ropac, Paris
- 2019 Crossing Boundaries, Artum Foundation Ewa Partum, Warsaw
- 2019 Objectivity, 24H POZ/ BRL project, Museum Night Poznan, Poland
- 2019 Back Of(f) Future, 48h Neukolln, Retramp Gallery, Berlin
- 2018 Off the Wall, Arts + Literature Laboratory, Madison, U.S.
- 2017 Ultra Topos, FABRIK culture, Basel, Switzerland
- 2016 Celeste Prize, Bargehouse at OXO Warf Tower, London

Mari Eriksen

Education

- 2019-2021 Master in Fine Arts, Oslo National Academy of the Arts, Norway
- 2015-2018 Bachelor in Fine Arts, Cambridge School of Art, England

Exhibitions

- 2019 Fragments of a Turbulent Landscape, Studio Baustelle, Berlin, Tyskland.
- 2018 Ufer Open. An annual art event for artists with studios in Uferhallen, Uferstraße 8, north in Berlin.
- 2018 Dot dot dot, degree show at Cambridge School of Art, Anglia Ruskin University, England
- 2018 The Sustainability Art Prize, Ruskin Gallery, Cambridge School of Art, England.
- 2018 Introspectrum, Cambridge School of Art, England. Group Exhibitions (In conjunction with the bachelor studies)
- 2018 In Situ, Gallery 9, Cambridge, England
- 2017 Geomancy, The David Attenborough Building, Cambridge, England
- 2016 Prolusion, Ruskin Gallery, Cambridge, England. Group Exhibitions in conjunction with the bachelor studies

Nadine Rennert

Exhibitions

- 2019 The Party/Exhibition, Studio Cherie, Berlin
- 2019 Die Möglichkeit einer Insel, Galerie Ursula Walter, Dresden
- 2018 Gyre Project: Poetic Group Action, United Nations, Geneva, Switzerland
- 2018 Gyre Project: Poetic Group Actions at Théâtre du Grütli, Geneva
- 2017 Gyre Project: Manga Opera, Fort L' Ecluse, France

- 2017 The Human Aspect, Barlach Halle, Hamburg
- 2016 BMS, Miboo Art Center, Busan, South Korea
- 2015 Shapeshape Shakeshake, p-District, Busan, South Korea
- 2014 In a Wilderness of Mirrors, Galerie Ursula Walter, Dresden
- 2013 Landscape in One's Mind, Moha Foundation, South Korea
- 2012 500,5 km, Kunsthalle Mainz, Mainz, Germany
- 2011 Translated, Korea Foundation Cultural Center, Seoul
- 2010 Uckermark Festival 2010, Uckermark, Germany
- 2009 Sittenbilder, Altes Innenministerium, Erfurt
- 2008 Dem Staub ein Gegengewicht, Solo exhibition, Georg-Kolbe-Museum, Berlin

Residence

- 2015 Artist in Residence, Art district_P, Busan, South Korea
- 2013 Artist in Residence, Moha Studios, South Korea
- 2011 Schloss Balmoral Grant for Goyang Residency, South Korea
- 2004 Artist in Residence, Centro Cultural Andratx, Mallorca, Spain

Riccardo Matlakas

Education

- 2018 ISI, Seni University, Jogja, Yogyakarta, Indonesia
- 2012-2014 MA in Social Sculpture and Contemporary Art, Oxford Brookes University, UK
- 2006 Degree in Sculpture and Design at University of FineArt, Naples, Italy LECTURES Busan Museum of Art, Busan, South Korea

Solo Exhibitions

- 2019 Lighthouse in the Woods Museum, Soyang, Wanju, South Korea
- 2018 Solo Exhibitions of Murals made on the Entire Floor of Sunflower Hotel In Berlin
- 2016 Castel Dell' Ovo "East and West Crossroads", Naples, Italy
- 2014-2016 La Fresco restaurant Gwangju (South Korea), "Peace and Ferocity"
- 2012 Cerreto (painting, performance and video), MAMEC, Museo d'arte Moderna Contemporanea, solo Exhibitions with live performance. Italy
- 2009 Theatre G. D'Annunzio, Latina, Italy, "Post-Stencilism"

Granted Residences

- 2019 Lighthouse in the Woods Museum, Wanju, South Korea
- 2019 Odessa Museum of Art, in Ukraine, sponsored by British Council, England
- 2014 Residency in Gwangju Biennale, Korea, Sweet Dew, curated by Gwangju Biennale

Performance Shows

- 2019 JIEAF 2019 in collaboration with Unesco, performance in Jeju Island, South Korea
- 2019 Lee Kang Ha Museum in Gwangju "Face To Face" Performance Symposium, ACC, Asian Cultural Centre, Gwangju, South Korea
- 2019 TAC Festival, Valladolid, Spain 2018 Darat Al Funun, Amman, Jordan

Sarah Oh-Mock

Scholarships

- 2018 Work scholarship for videoartists, Senate Department for Culture and Europe, Berlin
- 2015 Research scholarship from DAAD, South Korea

Solo Exhibitions

- 2018 Hither and Tither, Kulturschmiede Nieder-Olm, Germany
- 2017 In Between, museum palatina gallery, Kaiserslautern
- 2017 Future Alchemy, Kunstverein Wolfenbuttel, Germany
- 2017 after the end, 사라진 후에, 800/40, Cheonggyecheon, Seoul, Korea
- 2015 Lichte Momente im Rahmen des EMAF Osnabruck, Germany, mit Ulu Braun
- 2015 '올파로스' 뜨가남 긴 것/ Herr Nabel Von Welt, Art Space One, mit Gemini Kim, Seoul
- 2014 post- expectation/- erwartung/- očekavani/- 기대, (A)VOID Floating Gallery, Prague

Group Exhibitions, Festivals

- 2019 Touching from a Distance II: Transmediations in the Digital Age, Goethe-Institut Toronto, CAN
- 2019 Mitte Media Festival, Fata Morgana Gallery, Berlin
- 2018 CO/ LAB III, Torrance Art Museum Los Angeles, U.S.A.
- 2018 Aa International Inter-media Art Project <재의 기술 (Description of Absence/Description of Absence), Art Space IAa, Jeju, Korea

Awards

- 2016 Palatina Art Awards, Kaiserslautern, GER
- 2015 finalist Hans-Purmann-art Awards

Simon Whetham

Exhibitions

- 2019 Made to Malfunction, hosted by In Vitro, Matera European Capital of Culture 2019, Italy
- 2019 Composed during a storm, solo Exhibitions, Redbase, Sewon, Yogyakarta, Indonesia
- 2019 Made to Malfunction, solo Exhibitions, Openarts Space Merge, Busan, South Korea
- 2018 Made to Malfunction, ACC Showcase, Asia Culture Center, Gwangju, South Korea
- 2018 Translation, Chateau de Sacy, Picardie, France
- 2017 Trace of Lime, Tsonami XI, Valparaiso, Chile - supported by British Council
- 2017 Trace of Mokpo Harbour, Jeonnam Ink Drawing Pre-Biennale, Mokpo, South Korea
- 2016 Fureai, Abiko International Open-air Arts Project, Japan
- 2015 Return, Sousei, Tsukuba Art Center, Tsukuba Mountain, Japan
- 2014 Found Sound Materials & Solo performance for opening event 창작의 내일 Residency Festival, Seoul City Hall, South Korea

Solo Performances

- GreenLightDistrict Festival, Skien, Norway/ Instants Chavirés, Paris, France/ Nameless Sound, Houston, U.S.A.

Awards

- 2011 Grant for the Arts, Arts Council England to curate and organise touring Exhibitions "Active Crossover 2011"
- 2009 Grant for the Arts, Arts Council England to curate and organise "Active Crossover"

Weixin Quek Chong

Education

- 2014 MA Fine Art, Printmaking, Poyal College of Art, London
- 2011 BA(Hons) Fine Art (Printmaking), Lasalle College of the Arts, Singapore

Exhibitions

- 2019 Grey Projects Artist in Residence, National Museum of Modern & Contemporary Art, Seoul
- 2019 Commissioned installation work for Botanic Gardens Singapore
- 2019 Super trajectory, group show, Tainan Art Museum
- 2018 Art and Soul, 80th annm printmaking exhibition, NAFA, Singapore
- 2018 Fantasy Islands, risograph show with Kunkles & Notch, Island, Peninsular, Singapore
- 2018 Among plants and animals, solo show, SPRMRKT, Singapore
- 2017 Molten Capital artist residency and exhibition, Museo de Arte Contemporaneo, Santiago
- 2017 UNSEEN photography fair, Amsterdam
- 2017 METAGRAPHY, Meme Space, Taipei
- 2016 EXCAVATA, duo exhibition with Gabriele Dini, Palazzo Binelli, Carrara
- 2015 Living Room in the Tropics, presentation with invited NTU-CCA Residencies, Art Day Out

Awards, Grants

- 2019 Young Artist Award, National Art Council
- 2018 President's Young Talents Grand Prize
- 2012 Tan Ean Kiam Postgraduate Scholarship

Xiaowen Zhu

Education

- 2012 Master of Fine Arts in Art Video, Syracuse University. U.S.A.
- 2008 Bachelor of Art in Media Art, Tongji University, China

Solo Exhibitions

- 2017 The Details Are Invented, Passengers, London, UK
- 2016 Oriental Silk, Arthub Asia, Shanghai, China
- 2016 Unrolled Silk, Bloomsbury Gallery, London, UK
- 2016 Distance Between, China Exchange, London, UK
- 2012 There is No Why, The Arcade Gallery, Los Angeles, U.S.A.

Group Exhibitions

- 2019 Inside Out Outside In, Flutgraben, Berlin, Germany
- 2019 Strangelove Festival, London, UK
- 2018 Oriental Silk, The Fowler Museum, Los Angeles, U.S.A.
- 2018 Athens Digital Arts Festival, Greece
- 2017 Essex Road IV, Tintype Gallery, London, UK
- 2016 Two Films by Xiaowen Zhu, Echo Park Film Center, Los Angeles, U.S.A.
- 2015 DISTANCE BETWEEN, Arthub Asia screening programme, Shanghai, China

Awards, Grants

- 2019 Artist honorarium, Lund University, Lund, Sweden
- 2017 Artis grant, Arts Council England
- 2016 Jury Award, Hua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Los Angeles, U.S.A.

Yasemin Özcan

Education

- 1997 Mimar Sinan University – Fine Arts Academy, Ceramics Department, Istanbul-TR

Residencies, Awards

- 2019 Artist-in-Residence Stipend Istanbul-Berlin, nGbK-DEPO, Berlin-DE
- 2012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Artist Residence, Paris-FR
- 2009 Can Xalant Center for Contemporary Art, Artist Exchange Programme Mataro-ES

Sole Exhibitions

- 2016 Dead-end of Bliss, .artSümer, Istanbul-TR
- 2012 What is it that you're worried about?, in collaboration with Banu Cennetoğlu, RODEO, Istanbul
- 2009 Threehundredandone, Apartment Project, Tünel, Istanbul
- 2004 Elmaslı Apt., Elmaslı Apartment, Tünel, Istanbul

Group Exhibitions

- 2019 Standart, Eldem Sanat Alanı, Eskişehir-TR
- 2019 Journey to the Spirit of Place, halka art project, İstanbul-TR
- 2018 Artists Pick Artists, .artSümer, Istanbul-TR
- 2017 Flâneuses, French Cultural Center, Istanbul
- 2015 stay with me, Aparman Project Berlin, DEPO, Istanbul
- 2014 What Is It That You Are Worried About?, RODEO, Istanbul
- 2013 Giving Form to The Impatience of Liberty, WKV, Stuttgart-DE

=====

이미지_역사와 인간 사이 다섯 가지 해석들
Image_Between History and Human Five Interpretations

2019.12.9.-12.19

토탈미술관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서울시 종로구 평창32길 8)

주최 (사) 한국영상미디어협회 Council for Advanced Media & Moving Pictures

주관 예술과미디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Art and Media

후원 토탈미술관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rt Director
김미진 Kim MiJin

Curator
이봉욱 Lee BongWook

Critic
유현주 Yu HyunJu, 조경진 Cho JyungJin, 정수경 Chung SuKyung
이봉욱 Lee BongWook, 이재걸 Lee JaeGeol

Installation Director
김재남 Kim JaeNam

Finance Operating
노영훈 No YangHoun

Project Manager
이연숙 Lee YeonSook

Assistant Manager
고연경 Ko YeonGyeong, 임수빈 Lim SuBin, 전은선 Jeon EunS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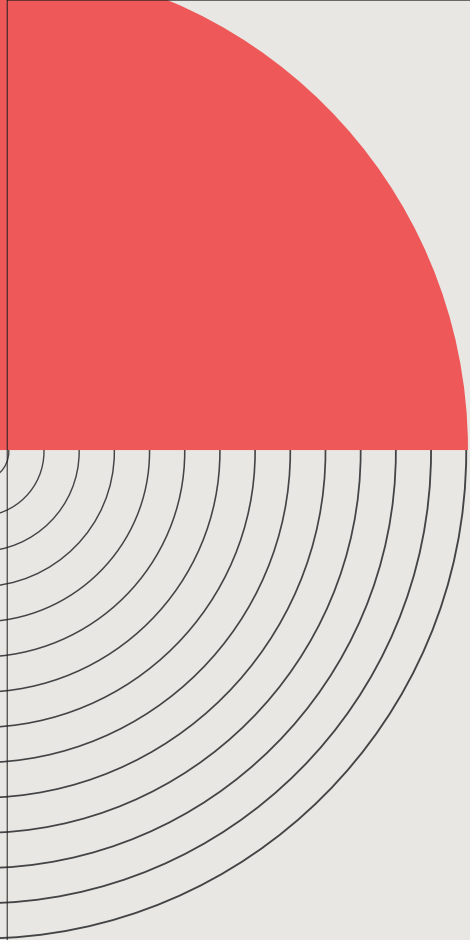
Translation
한수지 Han SuJi

Design
NINERIVER

Publisher
(사)한국영상미디어협회 | www.cammp.or.kr

© 이 책의 저작권 및 모든 내용은 (사)한국영상미디어협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영상미디어협회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Special thanks to
토탈미술관 노준의 관장님과 학예연구실, 큐레이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mage_

**Between History and Human
Five Interpretations**

주최 (사)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주관 예술과미디어학회
후원 토탈미술관